

보보담

걸으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步步譚

LS Networks Membership Magazine BOBODAM
Issue 17, Summer 2015

17









“RE-WILD”



「보보담」 2015년 여름호(통권 17호)
LS Networks Membership Magazine
BOBODAM
Issue 17, Summer 2015

등록번호 용산 바 00030
등록일자 2011년 6월 27일
ISSN 2234 - 1102

주간. 구자열
총괄. 김연재
실무. 손호영, 전유니

편집장. 이지누
기획. 무빙재
편집. 김경미
디자인. 쿠담디자인
사진. 이지누, 유동영, 김동진, 안재인

발행처. (주)LS네트웍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발행인. 김승동
발행일. 2015년 8월 15일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보보담」에 실린 기사를 보니 옛 기억이 떠오르네요. 30여 년 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늦봄에서 초여름이면 재첩국 장사 아지매가 머리에 양은 물통 같은 것을 이고 돌아다니며 아침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재치국 사소. 재치! 안 삼미꺼, 재치!” 그러면 엄마가 집에서 냄비를 들고 나가 맑은 하늘색 국물에 작은 조개(재첩)가 담긴 ‘재치국’을 담아 왔어요. 같이 주는 정구지(부추)를 넣어 한 번 더 끓여 먹는데, 국물이나 조개에서 가끔 흠이나 모래가 섞히기도 했지만 몇 천원짜리 재첩국 한 냄비를 온 가족이 맛있게 나눠 먹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30년 전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게 해준 기사였습니다.

— 송지영 경남 밀양시

책을 열면 곧장 읽기 시작하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보보담」은 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장을 넘기며 사진부터 보게 됩니다. 소박한 촉감의 종이 위에 담담하게 펼쳐진 풍경과 사람들의 삶이 진솔하게 다가오지요. 그러다 어느새 사진 속을 파고들 듯 들여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카메라는 참 신기한 물건이라서 원경을 찍어도 세세한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보이니 들여다볼수록 보이는 게 많습니다. 16호에는 봄꽃이 가득하네요. 갖가지 꽃들이 전해주는 봄날 풍경, 눈으로 보는 사진은 은근한데 느낌은 찬란합니다. 글 읽기로 들어가니 뉴질랜드 사람 로저 셰퍼드의 남북 백두대간 종주 기사가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어눌한 한국말로 토해낸 그의 이야기와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없는 곳의 사진들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네요.

— 임지인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매일 같은 장소만 오고가는 단조로운 일상에 치여 봄이 오고 가는 걸 못 느꼈습니다.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늘·꽃·나무를 바라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보담」을 통

해 섬진강을 보고 지리산도 만나게 되네요. 사진으로 만나는 봄이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의 소중한, 애뜻함도 느껴지고요. 가깝지만 먼 북쪽 백두대간까지 횡단한 로저 셰퍼드가 부럽습니다. 두류산의 캠핑, 개마고원의 아릿한 안개까지... ‘난 언제쯤 가볼까? 갈 수 있을까?’ 상상하게 되네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일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쉽게 피로하고 지치는데 「보보담」 속 자연과 사람들은 망원경을 통해 보는 것 같아 신기하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름 호도 빨리 보고 싶네요.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보보담」이 참 좋습니다.

— 진연주 대전시 서구 도안동

「보보담」은 정겨운 사진만 보아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내 고향 충청도 두메산골, 아득한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들입니다. 섬진강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는 자식들을 모두 도회지로 내보내고 당신들은 한평생 흙 속에서 살다 가신 우리 부모님들 얘기 같아 가슴이 시립니다. 교편을 잡고 있는 저의 올 여름방학 숙제는 홈페이지에서 보지 못한 지난 호를 꼼꼼하게 쟁겨보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고향·부모님·향수를 일깨워준 「보보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김종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보담」을 읽고 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소개된 분께는 LS네트웍스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제품(프로스펙스·몽벨·잭울프스킨·스케처스)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www.lsnetworks.com
사이버 홍보실 >> 보보담



성혈사 나한전 문창살의 동자

편집실에서

지혜로운 젊음의 꽃

•
어간문
부처님이 앉아 있는 법당의
정면에 나 있는 문.

지역을 다니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다. 흔히 알기를 선비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경북 영주에는 유교만 있을 것 같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불교 문화가 찬란하게 빛났던 곳이기도 하다. 반면 빼어나게 아름다운 산수가 돋보이는 단양에는 그 산수를 즐기려는 사대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영주 못지않게 많은 선비들이 머물렀다. 그런 반면 단양에는 내로라하는 사찰이 없으니 당연히 불교 문화가 꽃피지는 못했다.

이처럼 불교와 유교, 두 문화는 시대에 따라 제각각 궤를 달리하며 전해져 내려온 우리들의 정신적 뿌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그 어느 것은 뛰어나고, 또 다른 것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통치 이념에 따라 어느 것은 흥하고 또 다른 것은 꺾박을 받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 없으면 기울어서 굴러가지 못하는 수레바퀴의 한쪽씩이다.

문제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굴러갈 수레에 타고 있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이들은 대개 나이가 지긋한 이들일 뿐, 젊은 사람들이 드물다. 물론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세상은 우리만의 문화를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아니다. 그러나 넓은 세상 속에서 ‘너’를 만나려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때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소백산 기슭의 성혈사 나한전 어간문•에는 연 앞에 앉아 터질 듯 봉긋한 연봉으로 노를 짓는 동자가 한 명 있다. 머리를 두 갈래의 쌍상투로 묶은 것이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와 닮았다. 불교에서 말하는 문수(文殊)는 지혜를 상징한다. 나는 그 문수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더욱 빛나는 꽃으로 피우기를 기대한다. ㉠

편집주간 구 자 열



소수서원 경림정

보보담

LS Networks Membership Magazine
BOBODAM
Issue 17, Summer 2015

단양·영주
丹陽·榮州

20	여는 글 서로 만나지 않아 아름다운 단양과 영주 글과 사진. 이지누	소백산 자락의 문화
40	두 마을 이야기 단양과 영주의 아름다운 강마을 용진·무섬 채록과 사진. 용진마을 안재인, 무섬마을 유동영	124 남한강과 소백산 기슭의 산성 글. 홍성화, 사진. 안재인
56	사진가가 멈춘 자리 “고마 물이 든다 카네” 채록과 사진. 김동진	138 감성적인 불교 건축과 이성적인 유교 건축 글. 김도경, 사진. 유동영
70	반가의 손님맞이상 마음으로 매만진 음식 채록과 사진. 김동진	154 영험한 바위에 부처를 새기다 글. 이지누, 사진. 유동영
74	묵은 마을길을 걷다 소백은 농염하고, 달밭은 애뜻하니 글. 이성아, 사진. 유동영	164 화가와 시인이 사랑한 단양팔경 글. 이경화
88	낡고 묵은 책방을 찾다 그 숲에는 헌책방이 있다 글. 김이정, 사진. 유동영	인문 풍경 人文風景
108	길게 들은 이야기 “아들도 머뭇거리는데 누가 하겠어” 글과 사진. 이지누	178 1차 세계대전 유적지 아무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글과 사진. 이지누
		196 나무를 깎는 사람들 대를 이어 나무를 깎는 사람들 글. 이지누, 사진. 유동영
		208 나의 집 돌로미티 La mia casa, Dolomiti 글. 임덕용, 사진. 이지누

단양 · 영주
丹陽 · 榮州







서로 만나지 않아 아름다운 단양과 영주

큰 산 아래 고을인 영주와 단양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죽령을 서너 차례 걸어서 넘고,
단양의 계곡을 너덧 차례, 영주의 산골을 대여섯 차례 드나들고 나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렇게 둘은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독특한 곳이다.

은자들의 천국

어느 시대나 기인은 있게 마련이고, 감당되지 않는 기행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행은 때로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는데, 자를 경삼(景參)으로 쓴 오대익(1729~1803)이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 그는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이 초시에 합격하여 양평의 수종사에 노닐러 갈 때 동행할 정도로 가까이 지낸 인물이기도 했다. 그가 71세가 되던 1799년에 다산이 그를 위해 글을 한 편 지었는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전 병조참판 오공(吳公)이 젊을 적에 단양(丹陽)을 찾아 굴혈(窟穴)로 삼고 일찍이 윤건(綸巾)과 우선(羽扇) 차림으로 검은 학과 흰 사슴을 타고 운암(雲巖)과 사인암(舍人巖) 사이를 노닐다가 오공이 일찍이 목학(木鶴)을 타고 사인암에 내려왔으며, 집에 사슴 한 마리를 길들여서 출입할 때에 반드시 데리고 다녔다.



글 내용으로만 보면 거의 신선에 가깝다. 굴혈이란 은거해서 사는 집을 말하고, 윤건은 은자들이 쓰는 비단으로 만든 두건, 우선은 은자나 신선들이 가지고 다니는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다. 그러한 차림으로 다니던 오대익은 어느 날, 나무로 만든 학을 가지고 사인암 정상에 올랐다. 그러곤 학에 올라탄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그 줄의 다른 한쪽은 정상에 있는 소나무에 묶었다는 것이다. 데리고 올라간 노복 둘에게 소나무에 묶은 줄을 서서히 풀라고 명하여 사인암 정상으로부터 아래 맑은 물이 고인 못으로 내려왔다. 이런 기이한 행동을 두고 다산은 『단양산수기(丹陽山水記)』에서 말하기를 “선인(仙人)이 학을 타는 놀이(仙人騎鶴之遊)”라고 했다. 또 오대익은 운선구곡(雲仙九曲)을 설정하여 경영하며 산수를 즐겼는데 사인암은 그중 7곡이었다.

단양 일대를 ‘사군강산삼선수석(四郡江山參儼水石)’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곧이곧대로 풀면 ‘네 개 군의 강과 산, 그리고 세 신선의 고사가 얹힌 물과 바위’라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네 개 군은 단양·청풍·제천·영춘을 말하며, 세 신선은 삼선계곡에 있는 상선암·중선암 그리고 하선암을 일컫는다. 더구나 신선들이 구름을 타고 노니는 아홉 골짜기라는 뜻인 운선구곡 중 사인암에도 신선들이 바둑을 두던 곳인 난가대(爛柯臺)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보면 이 일대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숨어 살며 산수를 즐기던 곳이라는 말이 된다.

비단 오대익뿐 아니다. 조선 후기 문인화가로 이름을 드높였던 단릉(丹陵) 이윤영(1714~1759)은 『도담기(島潭記)』에서 “가운데 섬은 서 있는 것 같고 위의 섬은 누운 것 같으며 아래의 섬은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를 멀리서 보면 진인(真人)이 허공에서 노닐거나 푸른빛의 연꽃이 물에 떨어져 출렁이듯 하니 이 또한 기이한 경관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단릉은 1751년 단양부사로 임명된 아버지 자유(子由) 이기중(1697~1761)을 찾아 단양에 첫발을 디뎠다가 그 매혹적인 모습에 반하여 그해 9월부터 1755년까지 단양에 은거했던 인물이다.

그는 구담봉 기슭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 그보다 먼저 사인암에 서벽정(棲碧亭)을 짓고 머물렀다.

단양에 다다르자마자 사인암을 찾은 그는 다음 날 새벽인 1751년 3월 20일, 사인암과 맞닥뜨린 순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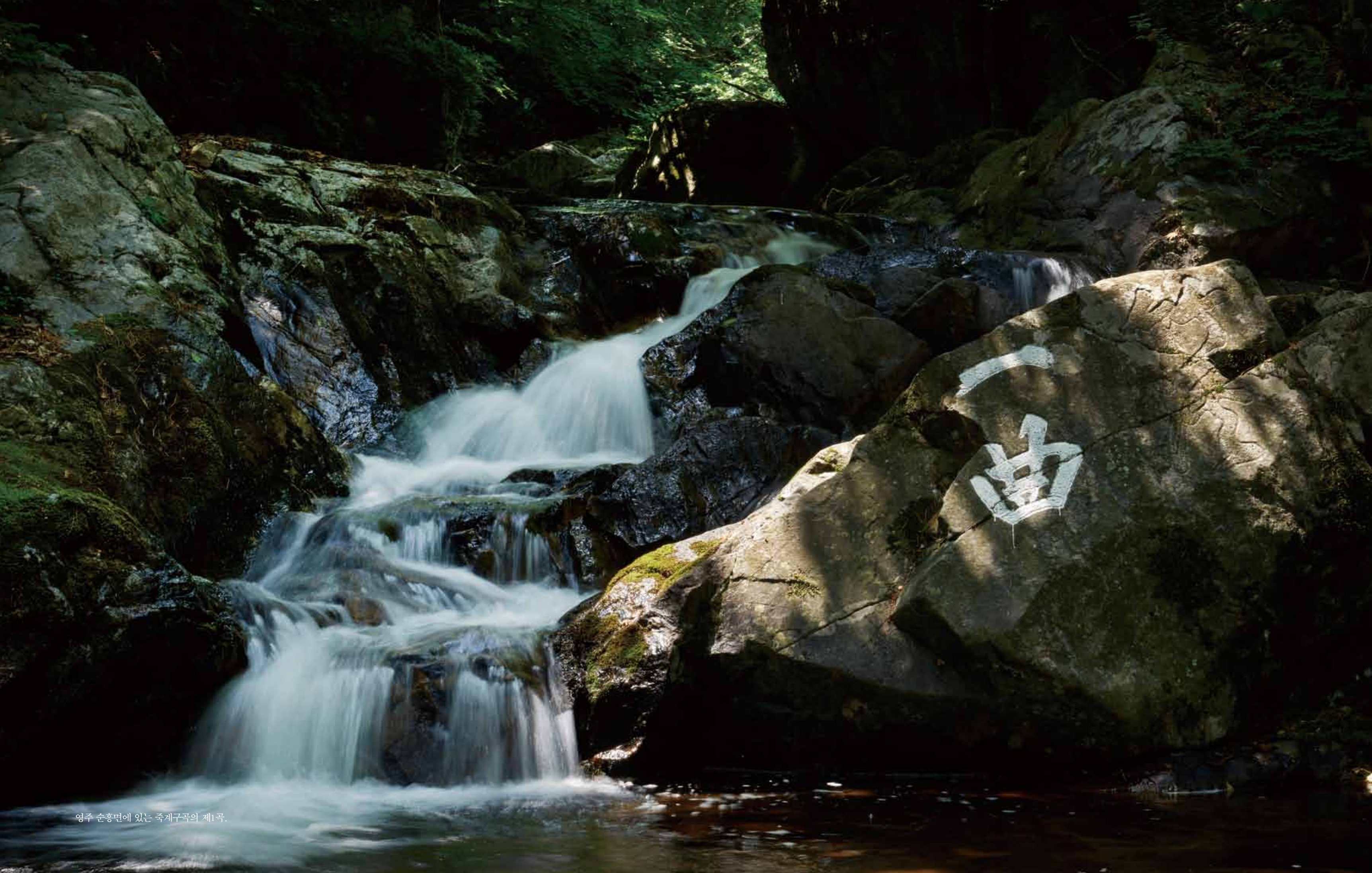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이끌며 흐르는 물에 씻고 선대(仙臺)에서 옷깃을 여몄다. 계류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다가 바라보니 이른바 사인암이 우뚝 솟아 마치 몸을 낮춰 절을 하려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절로 무릎이 꿇어졌다. … 백 걸음 밖에서부터 걸음마다 우러르며 그 아래에 이르렀다. 서서 보고, 앉아서 보고, 누워서 보며 한참 동안이나 떠나지 못했다.

그해 4월 2일에는 비록 서열이긴 하지만 당대의 문인화가로 널리 이름을 떨치던 능호관(凌壺觀) 이인상(1710~1760)도 사인암을 찾아 이윤영과 어울렸다. 그때 다른 벗들과 함께 한 구절씩 지은 시를 사인암에 새겼으니 글씨는 이인상이 썼다. 이렇듯 단양에는 사인암은 물론 사인암과 멀지 않은 선암계곡, 또 단양팔경이라고 일컫는 구비마다 사대부들이 숨어들어 이야기를 남겼다.

현세가 마땅치 않아 또 다른 삶을 꿈꾸며 이상향을 찾은 사람들은 소백산 너머 풍기에도 가득하다. 그들이 그렇듯 소백산 기슭으로 깃든 까닭은 ‘십승지(十勝之地)’ 때문이다. ‘십승지’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그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10여 곳의 특정한 장소들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전쟁이 나도 그 마을은 안전해야 하며, 전염병도 그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흉년이 들지 않아서 먹을 것이 항상 풍족해야 하는 것이다.

『정감록(鄭鑑錄)』에 근거한 십승지는 대략 영월의 정동(正東)쪽 상류, 풍기의 금계촌(金鷄村), 합천 가야산의 만수동(萬壽洞) 동북쪽, 부안 호암(壺巖) 아래, 보은 속리산 아래의 증향(甞項) 근처, 남원 운봉 지리산 아래의 동점촌(銅店村), 안동의 화곡(華谷), 단양의 영춘, 무주의 무풍 북동쪽이 된다. 그렇지만 대략 그렇다는 것이지,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곳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땅이기도 했던 영주(榮州)는 본디 순안(順安)이었다. 하지만 이 고을 출신인 김인준(金仁俊)이 고려시대 최씨 무신정권을 평정하여 왕정을 복구하는데 큰 공을 세우자 이를 치하하기 위하여 순안을 주(州)로 승격시키면서 영주가 되었다.



영주 순흥면에 있는 죽계구곡의 제1곡.



사인암은 단양을 아낀 사대부들이 즐겨 찾았던 곳으로, 단양팔경과 운선구곡에 포함된다.



신암계곡 중선암에 새겨진 '사군강산삼선수석(四郡江山參遷水石)' 각자.

한국전쟁 전 삼팔선 이북에 살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 풍기로 내려왔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은 곳이 말 그대로 십승지지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누에가 만든 비단을 일컫는 본견(本絹)과는 달리 사람이 만든 비단이라는 뜻의 인견(人造絹絲)이 풍기에서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30년대 십승지지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로부터였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렇듯 소백산을 사이에 두고 그 기슭으로 찾아든 사람들의 성향이 사뭇 다르다. 단양에는 이상주의자들이 머물렀다고 한다면, 풍기에는 현실주의자들이 머물렀던 것 같으니까 말이다.

금석문의 천국

단양에는 수많은 금석문이 있다. 앞에 말한 ‘사군강산삼선수석(四郡江山參僊水石)’은 중선암의 옥렴대(玉簾臺)에 새겨져 있으며, 충청도 관찰사인 윤헌주(尹憲柱, 1661~1729)가 1717년 이곳에 유람 왔다가 썼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사인암에는 마치 금석문의 박물관인 것처럼 수많은 각자들이 그 화려함을 자랑한다. 말했듯 이인상과 이윤영은 물론이거니와 우탁(禹倬, 1263~1342), 낭원군(朗原君) 이간(1640~1699), 충청도 관찰사 원재명(元在明, 1763~1817)과 같은 인물들의 글씨와 함께 ‘사인암(Rock of Sign)’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이름들이 무분별할 정도로 새겨져 있다.

단양군수를 지냈던 퇴계(退溪) 이황(1501~1570) 또한 단양 일대에 각자를 많이 남겼는데 옥순봉에는 단구동문(丹丘洞門)이라고 새겼다. 단구는 신선이 산다는 곳이며, 밤도 낮과 같이 늘 밝은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또 단릉(丹陵)과 함께 단양을 일컫는다. 퇴계는 지금은 수몰된 곳에 있었던 바위에 탁오대(濯吾臺)와 복도별업(復道別業)을 새겼는데, 이 암각자들은 아예 바위를 떼어내서 적성면 하방리 적성산성 올라가는 길에 있는 수몰이주기념관으로 옮겨놓았다. 그런가 하면 퇴계는 구담봉 농바위 소석대(小石臺)에 〈단양줄과청풍(丹陽倅過淸風)〉이라는 시 한 수를 새겼는데 지금은 물속에 잠겨 볼 수가 없다. 시는 다음과 같다.

푸른 물 붉은 산의 경계에	碧水丹山界
맑은 바람 밝은 달의 누대라	淸風明月樓
신선도 얻기 어려운 경치	仙人不可待
애석히도 혼자서 배 타고 돌아가네	悵悵獨歸舟

또한 바위가 부처를 닮아 불암(佛巖)이라고 불리던 하선암에도 전서로 새겨진 글씨가 있는데 명소단조(明紹丹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명과 소는 이명(李明)과 이소(李紹) 형제의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단은 단양 그리고 조는 부역을 뜻한다. 단조라는 말을 붙여서 이해하면 이는 신선들이 마신다는 단약을 달이는 술이라는 말이 된다. 이를 또 풀어보면 두 형제가 단약을 달이던 장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듯 단양 일대에는 그 빼어난 풍광을 즐기던 사대부들이 무수히 많은 암각자를 새겨놓았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서체로 말이다. 그러니 말했듯 단양군을 금석문의 박물관이라고 해도 좋을 듯싶다. 단양만큼은 아니지만 영주에서도 암각자를 볼 수 있다. 그중 소수서원에 들어서면 취한대(翠寒臺) 곁에 보이는 바위에 새겨진 흰색의 백운동(白雲洞)과 붉은 색의 ‘경(敬)’자가 으뜸이다.

주세붕은 주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모방하여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후 이 바위에 ‘경’자를 새기고 “오, 회헌(晦軒) 선생을 선사(先師)로 경모하여 서원을 세우고 후학들에게 선사의 학리를 수계(受繼)하고자 하나 세월이 흐르면 건물이 허물어져 없어지더라도 ‘경’자만은 후세에 길이 전하여 회헌 선생을 선사로 경모하였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회헌은 풍기에서 태어난 고려시대 성리학자인 안향(1243~1306)의 호이며, 소수서원에 그의 영정이 보관되어 있다.

‘경’자 바로 위, 흰색으로 쓴 ‘백운동(白雲洞)’이란 글씨는 퇴계 이황 선생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고 난 다음 옛 이름인 백운동을 새겨놓은 것으로 전한다. 또 ‘경’자가 붉은색으로 된 까닭은 세조 3년(1457) 10월, 금성대군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축지변(丁丑之變)이라는 참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적산현(赤山懸), 고려 초에 단산현(丹山懸)이었다가 조선 태종(1400년)때에 단양군(丹陽郡)이 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영춘현(永春懸)을 합하여 지금의 단양군이 되었다. 단양을 밤이나 낮이나 항상 밝으며 신선이 산다는 가상의 언덕인 ‘단구(丹丘)’라고 부르기도 했다.



죽계천 너머 오른쪽 건물은 취한대이며, 왼쪽 끝에 퇴계가 쓴 '백운동', 주세붕이 쓴 '정'자가 보인다.



無量壽殿

무량수전은 극락보전과 같은 뜻이다. 때문에 주불은 서방 극락정토를 지키는 아미타불이다.

스님

스님



영주 마구령 아래 신종선 씨 댁 부엌문이다. '승공통일'이 아니라 '성공통일'이 눈길을 끈다.



영주 마구령 아래 주막집 문이다. 오죽 쌓인 것이 많았으면 이토록 살벌한 문구를 썼을까.

당시 죽임을 당한 순흥도호부의 주민들 모두 ‘경’자가 새겨진 바위 앞을 흐르는 죽계천에 버려졌는데 그 원혼들이 밤마다 슬피 울었다고 한다. 이에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그들을 위로하는 제를 지내고 ‘경’자에 붉은색을 칠하자 울음이 그쳤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영주의 또 다른 금석문 하나는 부석사 무량수전 곁의 바위에 새겨진 부석(浮石)이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설화가 깃들어 있는 바위이긴 하지만 그 글씨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부석이라는 바위 이름 자체가 뜬 바위가 아닌가. 그 때문인지 그곳에 새겨진 돌 석(石)이 흥미롭다. 아무리 봐도 익히 알고 있는 석(石)이 아닌 석(𨾏)이기 때문이다. 더러 말하기를 그것이 혹시 바위가 달아날까 봐 가운데에 못을 박아서 그렇게 썼다고 하지만 뜬 바위라는 그 바위의 상징성에 빗대어 재미로 하는 말일 뿐이다. 석(𨾏) 또한 석(石)과 같은 한자어이다.

그런데 나는 영주에서 그보다 더 재미있는 글씨를 본 적이 있다. 물론 그때도 어언 15년 전쯤이다. 그런데 그중 한 곳은 아직도 그 글씨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성공통일’이 그것이다. 마구령 고갯길이 지금은 잘 포장되어 자동차들이 뽕뽕 달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먼지 날리는 비포장이었다. 고즈넉한 그 길을 걸어서 넘어 다니기를 즐겼으며, 강원도 영월과 경북 영주 그리고 충북 단양, 삼도의 마을이 서로 만나는 의풍에서 영주의 부석면으로 넘어 가는 마구령 아래 삼거리에 다다라 마주 친 그 글씨는 신중선 씨 집 부역문에 써어 있었다.

최근 다시 가보니 어른은 돌아가셨지만 글씨가 써어 있는 부역문은 그대로였다. 공산당과 간첩을 막는다는 방공과 방첩은 그렇다 하지만 그 곁에 있는 ‘성공통일’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었다. 분명 경상도식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승공통일’이 맞을 것이지만 경상도에서 승은 성으로 발음하지 않던가. 그 때문이었다. 웃음이 나온 까닭이 말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통일을 성공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서 함부로 웃을 수도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부역문의 ‘성공통일’과 방공·방첩

그 집에서 50미터 남짓 떨어졌을까, 예전에 주막이었던 집이 있다. 그 집 또한 지금도 남아 있지만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집 바로 앞에 도로의 가드레일이 훗측하게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그 집 문에 써어 있는 내용은 몹시 자극적이었다. “문 발로 차면 죽인다”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캘리그라피라는 손글씨 못지않게 조형적이기까지 한 글씨이다. 거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드나드는 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주인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싶기도 했다.

신선들의 천국

앞에 사인암에서 나무로 만든 학을 타며 신선을 꿈꾸었던 오대익에 대하여 말했지만 구담봉에도 그런 사람이 살았다. 오대익보다 앞선 사람인 그는 구옹(龜翁) 이지번(?~1575)이다. 그는 구담봉에 첩덩굴로 만든 줄을 매어 스스로 만든 학선(鶴船)을 타고 왕래를 하였으며, 푸른 소를 타고 마실을 다녀서 사람들이 그를 신선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이처럼 단양에는 신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인암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바둑을 두었다는 돌 바둑판과 장기관이 있는가 하면, 소백산 신선봉에도 돌 바둑판이 있다. 신선봉의 주소지는 단양군 영춘면이며, 그곳에 있는 바둑판은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둑판이다.

곧 사인암의 돌 바둑판은 신선을 꿈꾸는 인간들이 바둑을 둔 자리라면, 소백산 신선봉은 봉우리 이름처럼 선계의 신선들이 산봉우리로 하강하여 바둑을 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 소백산을 기준으로 남쪽인 영주는 유교와 불교가 성했다면, 북쪽인 단양은 도교의 불길이 왕성하게 타올랐던 것 같다. 그것은 다분히 산과 강이 빚어낸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단양은 웅장하지는 않지만 골골살살, 몸과 마음을 감추기 좋은 자연 환경이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들을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며, 영주 또한 그와 썩 다르지 않다. 뚜렷하게 대별되면서도 서로 모나지 않아 아름다운 곳, 바로 영주와 단양이다. ㉞

영주와 단양은 소백산으로
나뉘어 있으며, 두 고장에
는 각기 큰 물줄기가
흐른다. 단양은 남한강,
영주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그것이다.
그 기슭에 기대어 있는
강마을을 찾았다. 단양
영춘면의 용진마을은
몇 차례 홍수로 마을이
송두리째 잠기기도 한
전형적인 강마을이다.
또 영주시의 무섬마을은
맑은 물과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내성천 줄기가
휘감고 돌아가는
강마을이다.

단양과 영주의 아름다운 강마을 용진·무섬

•
멧꾼
멧목을 이용해 집 운반을 담당하는 사람.

강이 주는 넉넉함, 단양군 영춘면 용진리

남쪽으로는 소백산에서 시작한 동대천이, 서쪽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두 물줄기에 둘러싸인 용진리. 느티마을을 꼬리에 두고 북쪽 오사
리마을을 향해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큰 나
루터가 있어 ‘용진(龍津)’이라 불리는 마을.

강원도 영월·경북 영주·충북 단양의 삼도가 만나는 경계에 있는
이곳은 과거 뱃길 문화의 기착지이자 출발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만
주의 콩깍묵을 배급받기 위해 삼도의 사람이 몰리기도 했고, 소금이나
보급품 등을 상류로 나르는 길목에 있었기에 한때 대단히 번성했던 곳
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소백산에서 베어낸 목재를 이곳 용진 나루
에서 뗏목으로 엮어 한강을 통해 서울로 날랐는데, 이 때문에 전국의
목상과 뱃사공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소금배가 요까지 들어왔어, 개울 있는데 거기까지
뗏목도 땡겼어요. 정선, 영월, 저 김삿갓 있는 쪽으
로 의풍, 모두 여 모여가 뗏목 짜고 그랬어요. 뗏꾼•
들도 와서 일부러 밥 사 먹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됐
어요. 담배 팔고 술도 팔고 영업집이 있었다고. 엄
청 많았어요.”

병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한태희(84)는 그렇게 옛날을 회상했다.
그러나 그런 영화와 달리 지금의 용진마을은 고요하기만 하다. 곳곳
에 도로가 뚫려 더는 뱃길이 필요치 않게 됐고, 화전 정리사업으로 많
은 사람이 마을을 떠났기 때문이다. 한때는 137호, 400명이 넘는 주민
이 살았으나 현재는 80여 가구 120명 정도가 살고 있다. 강이 있긴 하
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다. 지금 온 나라가 가뭄에 시달
릴 때에도 용진마을은 바로 곁에 강이 있어서 양수기만 있으면 그나마
물을 펴 올려 쓸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다.

“예전엔 비가 안 와가지고 강에서 기우제 지냈지.
여가 당집 있던 자리야. 새마을 사업할 적에 당을
다 없애버렸거든. 지금은 당제도 안 지내고 기우제
도 안 해. 노인들만 많아 할 사람이 없어.”

가물어도 걱정,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다. 한때는 강이 있어 번성
했던 이 마을은 물난리로 마을 대부분이 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저 아래 느티나무 있잖아요. 우리 집이 거 있었는데,
72년도에 집이 홀랑 떠내려갔어요. 물이 거진
여까지 다 찼어요. 나무집인데 집을 아주 고냥 이래
파가지고 밑을 달랑 들고 저까지 나갔어요.”

길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집이 있었다는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에는 전
해지는 전설이 있다. 조선시대 때 어느 날, 느티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
던 한 젊은이 곁을 지나가며 스님이 혼잣말을 했다.



강 건너에서 바라본 용진마을. 오른쪽 멀리 영춘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용진대교가 보인다.

“이곳이 용나루라, 용나루라. 하지만 용이 승천하진 못하겠구먼. 나룻배가 논밭을 지나가겠구먼.” 젊은 이는 무슨 뜻인지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물었다. 스님은 “빠르면 오갑자 늦어도 육갑자에 천지개벽을 한 번 할 것ियो. 그런데 이 느티나무를 잘 키우면 그때 이 나무에다 저 강변에 매어둔 배를 땔 날이 올 것이며, 그 후 10년이나 20년 뒤면 저 배도 없어지고 나루도 없어질 거요.”

스님의 예언이 맞았던 걸까? 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1972년 강물이 범람했고, 강가에 있던 큰 나무들은 다 물에 잠겼다. 주민들은 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나룻배를 끌어올리고 나루터에서 5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느티나무에 배를 매서 떠내려가지 않게 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도로가 개설되고 이후로는 뱃길을 찾는 사람이 없어 배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 전설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땀가 <전설의 고향>에서 원고를 공모하길래 내가 그걸 한 번 써가지고 보냈는데 연락이 없더라구. 하하.”

용진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박종열(55).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곳에서 유일하게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쏘가리를 잡아달라는 사람이 있다며 조금 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운이 좋으면 한 네댓 마리, 안 그러면 한두 마리 잡히고 그래요. 옛날에는 뱀장어·누치 그런 거 많았어요. 댐 막고부터 좀 귀해졌죠. 저 밑에 소수력발전소 이런 거 때문에 고기가 많이 못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새는 잡고기·피라미·참마자·모래무지 이런 거 잡히고.”

긴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팔자 좋게 마을 이야기를 들으러 다닌다는 것이 영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때마침 두 시간 남짓 장대비가 쏟아졌다. 조금만 더 내렸으면 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해갈이 됐다며 만족해했다. 작은 개울물이 졸졸졸 흐르며 돌에 물방울이 툭툭 튀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해맑은 마음 같다면, 잔잔히 흐르는 큰 강은 어미의 품처럼 포근하고 넉넉하다. 넉넉하면 만족하고 베풀기 마련이다.

“뭐하러 그리케 땡기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물은 많이 드릴까, 적게 드릴까? 식사 안 했으면 컵라면에 물 부어드릴까? 아휴, 뭘 땀을 그리 흘린대요? 우리 집 여 옆에 가서 목욕 좀 하고 가요.”

마을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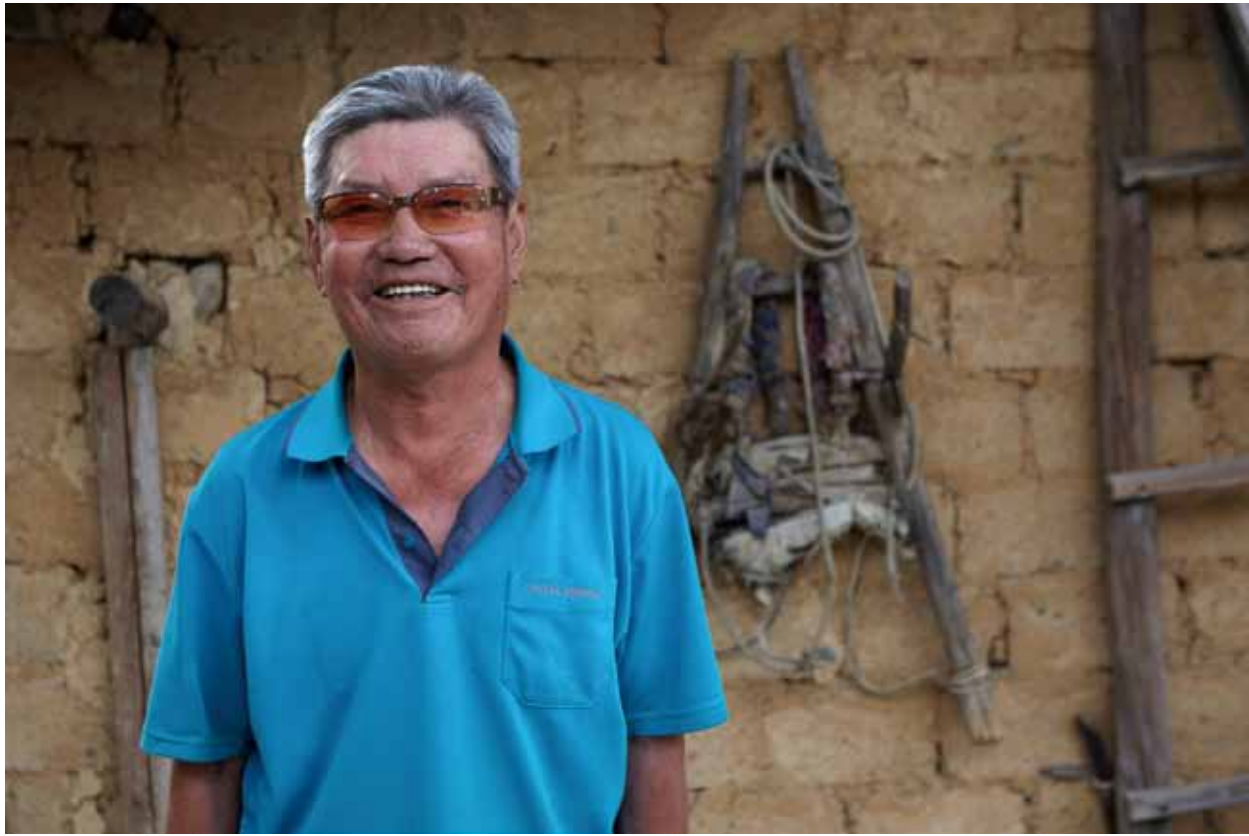
김순옥⁽⁸²⁾

육이오 나던 해가 열다섯 살 때인데, 그날이 뭐 고비라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안 드가다가 그날은 하두 드가라 해가지고 침 드갔어요. 느티마을 곡계굴에. 순찰기가 횡 도는데 아줌마가 하나 굴로 뛰 들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 때린 기래요. 아, 저게 인민군이 저 굴에 드가서 사는구나 하고. 휘발유를 한 서너 통은 때려 넣고 폭탄 하나 내리 때리니까 그마 연기가 굴로 짹 다 땡기 드간 거지 뭐. 그래가 다 죽었지, 연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치고 기관총을 마 이제 쏘네기 오듯 하니 뭐 꿈쩍이나 할 수 있어. 그래 드가야 산다, 나가야 산다, 뭐 왔다 갔다 잘못하면 밟혀 죽겠더라고요. 그래 내 가만 어린 마음에도 나가야 산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 문턱에 나갔는데요, 뜨거워서 바깥에 못 나갔어요. 이 밑에 공간이 사람 하나 누울 만치 있는데, 얼굴을 퍼거득 묻었지 뭐. 밤중이 됐는데 금란아, 복순아, 하며 디리 울어대고 그때 이제 정신이 났는데 가우 눌린 거맹키로 꿈쩍을 못 하겠데요. 그래 누가 깨워가지고 워티케 해서 집에를 오기는 왔어요. 동굴에서 362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굴에서 살아나온 사람 없어요. 딱 나하고 누구하고 둘이 살아 나왔는데 젊어서 죽고 내 혼자 살았어요. 살긴 살았어도 이 팔도 꾸부러졌고 이쥌 다리가 뿌러져가지고 지대로 퍼지지도 안 하고. 그뻘 어떤 줄도 몰랐고 늙으니까 이젠 아프쥌. 그래 천정 식구 육이오 때 죽고 배우지도 못하고 열여덟에 결혼했지. 기냥 뭘 맨 중매로 만났지. 신랑 얼굴도 보도 몬 하고. 그래 서울 문래동에서 제재소 하다가 다시 여기로 내려와 농사짓고 살았지. 담배 농사 해가지고 그때 술하게 고생했지 뭐.



박종열⁽⁵⁵⁾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짓고. 담배·고추·배추·약초 뭐 지황서부터 황기 안 한 거 없이 다 했죠. 농사지어가지고 돈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기도 잡고, 강에 나가면 자라 알을 주워가지고 여 갖다놓고 집에서 부화시키는 거죠. 4년을 혼자 했어요. 몇 월 며칠 오전 몇 시에 물을 얼마 주고 온도는 얼마 되고 다 기록해가지고 알이 부화하는 게 몇 퍼센트. 뭐 이래 4년을 하니깐 군수님이 자라 양식장을 해보라고, 지원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인제 자라 양식장을 시작을 한 거야. 한 3년 키워가지고 알 낳아서 부화시켜가지고 방류 한 번 딱 하고, 그해 수해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다시 치어를 또 사가지고 여 있는 자연산 알 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잡종을 만들었지. 인제 잡종을 만들어가지고 사오 년 키워서 팔 때 되면 또 수해를 입고. 1년에 뭐 어떨 때는 두 번까지도 양식장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 수해 피해를 다섯 번 보고, 겨울에 폭설 피해 한 번 보고. 그래 여섯 번, 쫓딱 망했죠. 지금은 그냥 고기만 잡아요. 옛날에는 강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아버지 처음에 잡을 때는 저 밑에 가곡면 고 앞에까지 잡고 그랬다가 지금은 하리 쪽에서 저 도 경계까지 두 사람인데, 영춘면에 한 분은 그물로 잡다가 다슬기로 바꿨어요. 그분은 다슬기만 잡고, 나는 인제 고기만 잡고. 남들이 보면 강에 배 타고 왔다 갔다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생업이 되다 보니까 것두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 네 시에 나가 고기 빼고 뭐 그러면 점심때가 되고 그물 손질하면 또 그물 놓으러 가야 돼, 시간이. 하루가 금방 가.



한태희⁽⁸⁴⁾

윗대 우리 아버지가 여 살았지. 옛날엔 여기가 제일 알아줬는데 지금은 뭐 다 그래. 옛날엔 그냥 농사지었어. 담배·고추·벼농사. 저기 곳간 있지? 저게 옛날에 담배 찌던 창고야. 담배를 새끼줄에 끼가지고 이쪽에 하나 달고 여 하나 달고 그래. 맷 충을 다는데 사람 너이 해야 돼. 담배 열기 뺨에 앞도 안 보이니까 달 때도 막 애먹어. 담배를 여 차곡차곡 막 이래 묶어 나르니까 마지막에 가면 얼굴하고 흠뻑하고 담배가 다 다리 붙어가지고 그래 되거든. 너무 힘들니까 인제 담배 하는 사람이 없지 뭐. 할 사람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담배가 질 나는데... 어릴 적에 여서 장보러 가면 맨 영춘면 소재지 다녔지. 의풍 넘어 부석이란 데도 갔는데 거기는 농사지어가지고 가을에 김장할 때 소금 바꾸러 가는 거지. 옛날에 노인들 기운이 썩잖아. 돈이 없으니까 콩 같은 거 한 지게씩 지고 갈 만치 가가지고 소금하고 교환해오고. 또 저 강원도 삼척 있잖아. 거기가 고기가 많이 나니까 바닷고기 사가지고 와서 팔고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는 인제 그때 삼척 가서 콩치 사가지고 와서 팔고 그랬는데. 삼척도 순 걸어서, 뭐 좀 짊어지고 가서 바까오고 그래. 걸어가도 하루 반이면 가. 이를 안 걸려. 빨리 가면 잘하면 하루에 갔다가 장보고 밤에도 계속 오고 이랬는데. 영월 상동으로 해 올라가면 거 뭐 재냐 잊어뿌렸다. 정선 쪽으로 바로 질러서 넘어가는 데가 있어. 젓갈 있잖아. 새우젓 이런 거 짊어지고 와서 여 곡식하고 마 교환해가고. 그러니까 그기 몇 년도냐, 우리가 쪼만할 때니까 한 70년 됐겠다.



환기와 채광이 목적인 벽창호는 대개 사각형이지만 무섬마을은 둥글게 만들었다.



이재남, 2003

박필남(1922~2007)

13년 전, 섬계고택에서 만났던 박필남은 직접 쇠
여물을 끓여서 소에게 먹였다. 끼니때마다 여물통을 부엌에서 소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는 것이 여간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남편인 김두한은 소가 끄는 수
레를 타고 다녔는데 삿자리를 엮는 솜씨가 빼어났다. 박필남은 세탁기는커녕 안
마당 수돗가에 있는 돌로 만든 빨래판에 나무로 만든 빨래방망이를 두들겨 빨래
를 하곤 했다. 1730년에 지었다는 집의 대청마루에는 크다만 성주단지용 향아
리가 놓여 있었고, 안마당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다. 이제 그 섬계고택은 대구에
살다 고향에 돌아온 그들의 장손인 김동근이 지킨다.



김동근(62, 박필남의 맏아들)

박필남의 맏아들인 김동근이다. 섬계는 무
섬의 옛 이름이며, 김동근의 부모는 모두 무섬마을이 고향이다. 어른들의 중매로
스무 살에 결혼해 문수면 월호리에서 17년을 살다가 지금의 집을 사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지켰다. 아버지 김두한은 강한 성격에 근력이 좋고 부지런해 남부럽
지 않게 논마지기를 가졌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식들 신세를 지지 않았다. 반
면 어머니 박필남은 온화하고 정이 많아 부족한 이웃과 나누고 거친 아버지를 묵
묵히 보좌했다고 전한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어머니 생각에
전에 없이 종종 눈물을 보였으며, 술을 자주 드시곤 했으며 안타까워했다.



까치구멍집 주인인 김정규 할아버지가 읍내에 나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지남, 2003

김정규(1919~2010)

김정규는 담배를 좋아했다. 굳이 담배를 입에 갖다 대지 않는 것 같은데 늘 들고는 있었다. 매화가 피던 어느 이른 봄, 그는 양지바른 마루에 나와 있었고, 마루에는 몽당비와 요강이 놓여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집 구경을 하라며 지나가는 우리를 불러 세웠다. 그의 집은 용마루 아래 합각●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까치구멍집이었다. 대개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에 많이 보이는 까치구멍집의 까치구멍은 집안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용도로 뚫은 것이다. 또 그 구멍이 마치 까치가 집을 지은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오래되어 반들반들 윤이 나던 기둥이며 안마루는 탐이 날 정도였다. 지저분하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혼자 생활을 하던 때라 뭐라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읍내에 나갈 때는 반듯하게 차려입은 품새가 여간 아니었다. 는개●가 훑날리던 어느 가을 날, 집 바로 옆까지 들어오는 버스를 기다리던 그를 만났는데, 중절모에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었다. 그날은 장날이었다.

●
합각
한옥 위 용마루 옆면에
삼각형으로 꾸민 부분.

●
는개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



송재월(62, 김정규의 집에서 살고 있는 먼 친척)

부모님이 이 집으로 이사 온 게 나 초등학교 때니까 거진 60년이 넘었어요. 전에 살던 사람도 예안 김씨 우리 일간데 돈을 좀 모아서 일본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집터가 부자 되는 집터라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몸도 약하고 일머리가 없어서 몸 쓰는 일을 못해서 집이 가난했지. 밭에서 감자를 한 바구니 캐도 우리 엄마가 하고, 심지어 밭에서 메고 오는 것도 우리 아버지는 못해요. 힘쓰는 일은 몽땅 어머니 차지니 참... 근데도 아버지는 문중 일 같은 바깥일은 나서서 많이 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양반이 힘이라도 잘 썼으면 어머니 고생이 덜했을 텐데 그래선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한량 같은 양반이었지, 우리 아버지. 이 집이 본래는 방이 세 개였어요. 그 안에서 우리 사 남매 다 컸지. 지금은 방이 하나인 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편하게 사시라고 싱크대도 만들고 하면서 하나로 합했어요. 사실 어머니 돌아가신 뒤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을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까치구멍집이라고 문화재 지정되고 하면서 못했지.

● 구술 _ 김정규의 장녀 김진남(72)
● 김정규의 집은 '경북문화재자료 제362호'이다.

“고마 물이 든다 카네”

낙동강 중상류 지천, 내성천을 거닐면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며 간질이곤 했다. 그때마다 발을 움찔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 가득 머금은 채 거닐던 내성천, 그러나 고운 모래가 금빛으로 빛나던 내성천을 이제 더 이상 거닐지 못할지도 모른다. 내성천 가운데를 막아 보를 쌓고 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불박이로 살아온 마을 사람들은 그나마 한 사발씩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산과 강은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묵묵하다.





이웃들은 새로운 이주단지로의 이동을 준비하거나 이사를 마쳤다. 그나마 땅과 집이 있는 주민들은 새로이 조성될 이주 단지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주민들은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준비랄 것도 없는 것이, 가지고 갈 것보다 버리고 갈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댐 담수를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어 더 이상 농사나 과수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웃들이 농사지를 땅도 없거니와 농사 이외에 새로운 생계수단도 없다.



영주댐 환경평가서는 댐의 필요성에 대해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낙동강 홍수 피해가 극심하여 홍수 재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11년 정초식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댐을 쌓기 시작했다. 높이 50미터, 길이 380미터, 총저수량 1억8100만 톤 규모의 영주댐이다. 사람과 산업을 불러 모으던 강물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물을 대주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댐에게 내주었다. 이제 아이들은 맥 감고 고기 잡던 강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평은리는 이렇듯 아름답지만 물이 들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신수학 부부(56, 슈퍼 운영)

1988년도에 가게를 시작하였으며, 27년 동안 가게의 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이야 중앙고속도로와 4차선으로 확장된 5번 국도가 있지만 옛날에는 안동·대구·강원도로 가는 사람들은 가게가 있는 이곳 도로를 반드시 지나야 했단다. 물론 장사도 썩 잘되었다. “안동·대구로 가는 사람들은 다 이 길로 다녔어요. 손님이 억수로 많았지요. 영주서 여까지 나오는데 가게가 하나도 없잖아요. 직행버스가 하루에 백 대도 넘게 다녔어요. 손님이 빽적빽적했지요. 중앙선이 개통되고 강원도 가는 사람은 길로 가고,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는 사람이 여기로 오지를 안해요. 출지에 오지가 아닌 오지가 됐지요.”



손수남(76)·이모태(77)

할머니가 시집온 지 벌써 56년이 흘렀다. 4대가 함께 살며 풍성한 삶의 몸짓을 담던 집도 이제는 노부부 내외만 남았다. 지금이야 좁은 방 세 개와 부엌이 전부인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한창때는 아이들과 함께 가장 분주했던 곳이다. “여길 돌아가면 마구 집이었는데, 60호가 넘게 있었어. 마카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었지. 두 집 남았어. 저 집 할매도 딸네 집 놀러 가버리고 요즘은 우리 내외가 다여. 동네가 참했는데 고마, 이 동네는 인심이 좋아서 니 꺼 내 꺼가 없었어. 아무리 낯선 사람이 와서 살아도 호트러뜨리지 않아요. 어텔 가도 이 동네 인심이 너무 아까워, 인심 하나는 아까워.”



김순자(71)

농사를 금지하고 있는 마을 한쪽, 할머니 한 분이 콩을 뿌리고 계셨다.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함이 몸에 밴 터라 쉽사리 농사일을 놓지는 못하시리라. 열아홉에 시집와서 올해로 71세인 할머니는 이 마을(옛은면 금광2리)에서만 52년을 살았다. 금광2리 마을 주변 사람들은 보통 '금강리'라고 불렀다. 온 마을이 내성천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내성천을 건너는 다리가 유일했다.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 다리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변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나 쓸려 내려가버리는 외나무다리, 장마철이면 비에 잠기는 잠수교, 그리고 차도 달릴 수 있는 현재의 다리. 그중 할머니가 두고두고 말씀하시는 다리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놓았다는 잠수교다. "잠수교는 내 결혼하고 3년 있다가 났지. 애기 아빠가 군에 갔다 와서 이장질 보면서 잠수교를 났어. 그때는 다리 상판을 옮기는 데 장정 여섯 명이 매달려서 힘들게 했지. 지금이야 뭐 기계가 다 하니깐 쉽지. 저거(잠수교)하고 난 뒤에는 다리(현재의 다리)를 이케 좋게 났는다... 에휴... 고마 물(영주댐)이 든다 카네."



김영순(73)

“옛날에 결혼해서 오니, 요 앞에 내성천 여름 강변에서 밤새기를 하고 그르더라고, 모래가 깨끗해서 거 앉아서 놀고 좋았지. 물이 얼마나 깨끗했는데 말도 모하지. 이 동네는 물(우물)에 철분이 많아서 뭐 하기가 나뻤어. 머리를 감으면 안 되고, 미역국을 끓여도 안 돼. 그래서 큰물(강변의 물)을 길어다 산모들 미역국도 끓여주고, 장을 담글 때도 그 물을 길어다 했지. 목욕은 뭐 거 가서 노다지 했어. 웬만한 건 큰물에서 다 했지 뭐.”



김종국(73, 괴현고택 종손)

“이 좋은 터를 막상 물속에 넣고 떠난다니깐 너무 참 아쉬워요. 여기 터가 현지까지는 괜찮아요. 벼슬은 못 했지만 다 괜찮아요. 재벌은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다 괜찮아요.” 이곳에서의 삶이 좋았다고, 참 좋았다고 말하는 괴현고택 종손인 김종국은 마을을 잃어버린 아쉬움보다 종손으로 집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이 더 컸다. “문화재라는 것이 있던 곳에 그대로 있어야 문화재지. 하마 장소를 어디로 옮겼다 하면 의미가 없지요.”



저녁이 되자 영주댐 아래 몇 집 남지 않은 마을을 가로등이 힘겹게 비추고 있다.

마음으로 매만진 음식

영주 괴현고택 종부 손은주



안주인의 마음과 숨씨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손님상. 괴현고택 손님상에는 문어와 육회가 빠지지 않고 오른다.

“그 집에 가서 대접 잘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야지”

손님상이고 주안상이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있나. 정성껏 만들어 대접하는 거지. 그래도 꼭 빠지지 않는 게 백김치하고 나물이야. 손님이 온다고 하면 김치부터 담그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갈비·조기·문어도 빠지지 않지. 우리 집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보푸람·육말·수란·묵무침인데 이것들은 한번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서 아주 힘들어.

보푸람은 ‘보푸라기’에서 따온 이름인데, 대구포·명태포·육포를 찌가지고 체에 곱게 내려서 만들지. 지금은 재료를 믹서에 넣고 갈지만 예전엔 방아 찧고 체에 걸러서 만들었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재료들을 깨끗이 씻어서 설탕하고 참기름 넣어 양념해서 먹으면 술안주도 되고 밥반찬도 되고 그래. 육말은 쇠고기를 곱게 다져서 조리는 건데, 쇠고기를 칼로 두드려 빵은 다음 물을 조금 붓고 익혀서 물을 따라내고 여러 번 다시 빵아서 고추장·참기름·생강·꿀을 넣고 타지 않게 볶아야 해. 쉽게 상하지 않아서 한 달 정도 두고 먹어도 좋아. 보푸람이나 육말은 씹기 좋아서 이가 약한 노인들이 먹기에 딱 좋지. 또 뭐가 있나... ‘수란’이라고 들어봤어? 이 음식은 손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돈에게 대접하는 음식 중 하나지. 끓는 물에 달걀을 익혀서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흰자로 감싸 반숙해야 하는데 이게 기술이지. 이렇게 건져낸 달걀 국물에 간장·식초·참기름으로 새콤달콤하게 간을 하고, 잣을 칼 등으로 곱게 다져 넣고 달걀을 띄우고, 석이버섯·실고추·잔파를 뿌려 마무리하면 되는데 맛이 정말 좋아. 내 생각에는 여기가 산골이니까 재료들이 귀하잖아. 그래서 산골에서 구하기 쉬운 달걀을 가지고 솜씨를 자랑한 게 아닌가 싶어. 묵도 먹는 방식이 조금 달라. 여기서는 묵에 여러 가지 고명을 올려서 비벼 먹거든. 그러면 참 맛있어. 국물을 흥건하게 해서 밥을 넣어 먹는 건 별로 맛이 없어. 멸치다시 물에 묵을 한번 행궈 내면 그 맛이 아주 깔끔해. 석이버섯·김치·달걀지단·김·쇠고기 같은 고명 올리고 참기름과 잣가루를 뿌려 먹거든. 우리 집 묵은 수란과 함께 손님 주안상에 올리는데, 주안상이라는 게 식사 중간에 올라가는 거잖아. 주안상에 올린 묵



온 마음을 다해 집안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양반의 도리라고 말하는 괴현고택 종부 손은주(69) 씨.

과 수란을 먹으면 배부르게 먹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어차피 고생해서 만드는 건데 그 집 가서 대접 잘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도 정성껏 만드는 거지.

“음식은 전부 심부름하면서 배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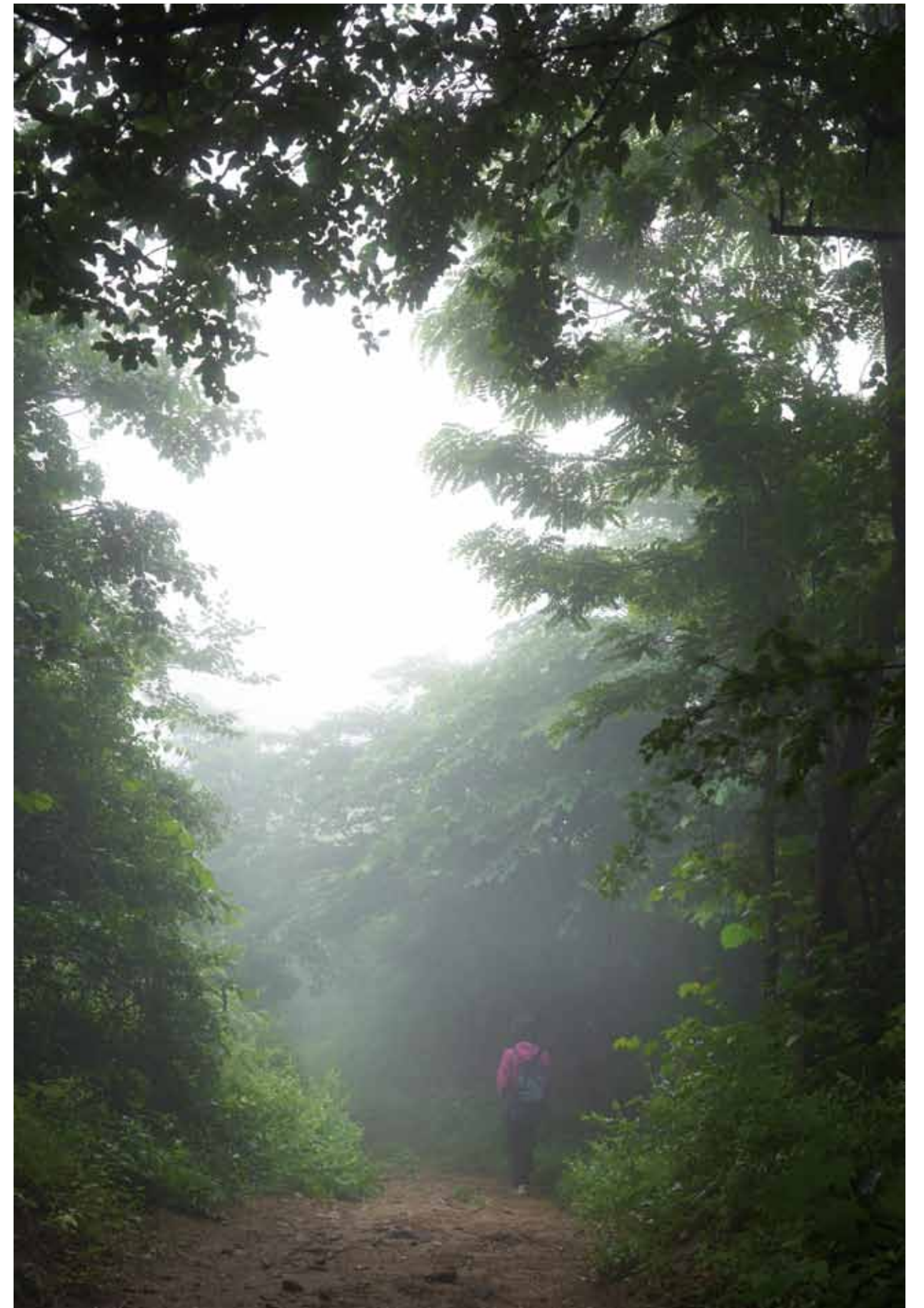
우리 친정어머니 부산인데 참 잘살았어. 아버지가 은행원이셔서 집안 살림이 넉넉했거든. 스물여섯에 대학 졸업하고 선박서 시집왔는데 공부만 하다 왔으니 살림을 뭘 알겠어. 그런 사람이 종갓집에 시집와서 제사 모시고 하려니 당연히 힘들었지. 처음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그냥 반항하고 싶데. 속으로 ‘저도 알아요. 아이고 참, 열 일곱 살에 시집와서 70년 종부 노릇 했으면 그까짓 걸 왜 못해...’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지.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처음부터 잘 좀 배울걸. 두 분 다 음식을 정식으로 가르쳐주시지 않아서 많이 배우진 못했어.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구. 안 해봐도 직접 본 거, 맛본 거, 경험한 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 배운 거드라구. 엄마가 김장하면서 입에 넣어줬던 김치 맛, 시어머님이 “야야 뭐 가져온나, 뭐 가져온나” 심부름시키면 갖다드렸던 재료들. 그렇게 하던 심부름들이 몸에 쌓여서 지금 내가 종갓집 음식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시어머니는 피편이라는 걸 자주 하셨지. 피편은 쇠머리를 삶아서 누른 음식인데 손님상에 육말이랑 보푸람과 같이 올렸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고 물으니 쇠머리를 삶을 때 닭 한 마리를 넣는다고 하시데. 여기는 음식 할 때 돼지고기를 많이 써. 시집오기 전에 돼지고기는 천한 고기라고 여겨 먹지도 않았거든. 시집와서도 한동안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 시누이가 시집갈 때 돼지 수육을 처음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그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내가 태중이었어. 그땐 그걸 몰랐지. 그 후로 괴현 사람이 다 된 거야.

어떻게 음식이 입에 맞나 모르겠네. 늙은이가 힘들게 만든 거니까 맛있게 다 먹어요. ㉠

소백은 농염하고, 달밭은 애뜻하니

풍기의 금계촌(金鷄村)은 조선 후기, 혼탁한 사회를 벗어나 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의 마음속 이상향인 승지(勝地) 중 한 곳이었다. 소백산 자락 깊숙한 달밭골도 마찬가지다. 풍기읍이나 순흥면에서 올라가야 하는 달밭은 산비탈에 달처럼 작은 땅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밭을 이뤘기에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소백산 자락길이 지나가는 산골마을일 뿐이지만 한때는 그 골짜기에 이상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것도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해방 전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혼란한 세상을 피해 천리 길을 달려와 마지막 이 고개를 넘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뭄으로 논과 밭이 메말라갈 때도 달밭골은 메마르지 않았다. 이날은 소나기까지 쏟아져 녹음이 더욱 농염했다.

초암사와 비로사 그 사잇길

먼발치에서도 소백산은 소백산다웠다. 웅장하다기보다는 아담하고 포근했고, 높이를 다투지 않아 압도하지 않았다. 초암사에서 시작되는 조붓한 숲길 역시 그러했다. 계곡과 사이좋게 오르락내리락 이어지는가 하면 잠시 높낮이를 달리하며 거리를 두는 숲길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 가끔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로 나뭇가지가 늘어지기도 하고, 아주 가끔 낙우송의 우듬지●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다가 산딸기와 오디를 따먹는 길은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었다. 크지 않지만 풍만하고 농염한 길이었다.

고려시대 문장가인 안축(安軸, 1287~1348)이 고향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죽계별곡(竹溪別曲)>의 배경이 이곳이며,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1501~1570)이 수려한 정취에 반해 아홉 구비에 이름을 붙여 ‘죽계구곡’이라 부른 곳이 이곳이다. 과연 그럴 만했다. 소백산 입구 배점리의 9곡 이화동을 시작으로 8곡 관란대, 7곡 탁영담으로 이어지는 경치가 사뭇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형국이더니 초암사 지나 1곡 금당반석에 이르러서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싶어졌다.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구상하던 곳이라더니, 이 역시 그럴 만했다. 넓고 평평한 반석은 이미 대응전 못지않고,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반석 위로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에 눈이 부셨다. 나 같은 중생도 한 석달 열흘 가부좌를 틀면 작은 깨달음이나마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물은 간 데 없다더니, 자연과 교감하고 명상하며 이 길을 걸었을 옛 어른들의 발자취를 더듬다 보니 빗방울이 듣는데, 숲 사이로 얼핏 흙집이 보인다. 물 한잔 얻어 마시자는 핑계를 대며 들어가니 초로의 부부가 맞아준다. 원월(圓月)이란 자호를 쓰는 선생은 전국의 산을 안 다닌 데 없이 다니다가 이곳이 좋아 눌러앉았단다. 일제강점기 때 숲 곁는 이들의 임시 거처였다가 버려진 곳을 최소한의 것만 손본 거처였다. 전화도 터지지 않았다. 전기가 유일한 문명의 혜택인 이곳에서 계곡물 받아 마시고 나물 채취해서 먹고 살다 보니 뱀·개구리들과도 교감하게 되더라.

“새벽에 높은 바위에 올라앉아 있으면 해가 뜨면서 붉은 기운이 퍼지고 저 아래 계곡에서 안개가 올라와 발아래 깔리는데, 그러면 마음이 초연해져요.”

그 맛에 중독되어 하루 이틀 하다 보니 어느덧 10여 년이 흘러버렸다고 한다. 산을 정복하려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니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허허 웃는다.

국망봉·비로봉 정상으로 오르는 길을 접고 성재(달밭재)를 넘으면 비로사로 내려가는 길이다. 고개를 넘자마자 울창한 잣나무 숲을 만나게 되는데, 차곡차곡 쌓인 낙엽길이 폭신하고 은은한 향기에 절로 깊은 숨을 쉬게 된다.



초암사에서 달밭재를 넘어도 마을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5분쯤 더 걸을 때야 읍내의 번듯한 집과 같은 민박집이 보인다. 이곳이 달밭골이 맞나 싶는데 알아서 계산을 하라는 작은 돈통이 하나 보인다. 사람이 없을 때라도 필요하면 언제나 부엌을 사용하고 계산은 양심껏 하라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에 주춤하고 있을 때 저만치서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해온다. 달처럼 작은 땅땀기들이 모여 있는 달밭골. 한때 그보다 더 작은 집들이 40여 가구나 있어서 마을 아래 초등학교까지 있었던 깊은 산속의 시끌벅적한 동네였다. 지금은 열한 가구가 남아 소백산에 기대어 살뜰하게 산다. 밭에서 나는 나물이야 필요하면 서로 나누는 것이 별스러운 게 없는 달밭골이다.

● 우듬지
나무의 맨 꼭대기 줄기.



마치 먼 세상으로 가듯, 아주 작은 길이 있었다. 그 길 끝 작은 집에 전덕성(70)·최은희(68) 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아래가 달밭골이다. 조선시대에 은밀히 퍼진 비결서 『정감록』에는 난세를 피할 수 있는 십승지 중 한 곳으로 풍기의 금계 일원이 적혀 있다고 한다. 해방 이후 이런 풍문을 따라 이북에서 흘러들어온 이들이 풍기 인구의 70퍼센트를 헤아리는데, 그중 돈 좀 있는 이들은 풍기인건이란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또 일부는 소백산 깊숙이 달밭골에 터를 잡았다. 한때는 40여 가구가 살던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네댓 가구가 민박을 하며 산다고 했다.

달밭골 사람들의 속사정

소백산의 속살 같은 달밭골에는 어떤 애뜻한 사연이 깃들어 있을까? 그런데 처음 만난 건 뜻밖에 너무 세련된 펜션이었다. ‘이건 머릿속에 그리던 그림과 너무 다른 걸(?)’ 하며 산골민박 주인장에게 60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다는 최형관의 집을 물었다.

작은 개울 건너에 있는 그의 벽돌집은 나무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고 민박 간판도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는 듯 현관 위에 조그맣게 걸려 있었다. 달밭골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말에 그는 흔쾌히 안으로 맞아주었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대에 평안도에서 일가족이 풍기로 내려왔고 한국전쟁 나던 해 이 골로 들어와 나무로 열기설기 엮은 움집 같은 데서 살았다고 한다.

그때 최형관의 나이가 열두 살.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니,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한다. 학교는 다녔느냐고 하니,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학교를 다니느냐”고 하는데, 설명해봐야 짐작이나 하겠느냐는 표정이다. 조부모와 부모, 전쟁통에 죽은 형의 미망인 형수와 두 조카, 그리고 동생 둘까지, 일가족이 오직 먹고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데도 끼니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 약초와 나물을 캐려고 구석구석 안 헤매고 다닌 데가 없어 지금도 소백산은 손바닥 보듯이 훤히 다.

지금은 여섯 자식이 모두 교사, 공무원이 되어 잘살고 있다니 그보다 큰 보람이 없겠다 싶었다. 팔순이 가까운 그는 다리가 조금 불편할 뿐, 눈빛 형형하고 목소리는 달밭골을 울릴 듯 찌렁찌렁한데도 당신 살아온 이야기는 피하는 느낌이 역력하다. 너무 아픈 이야기인가 보다 짐작만 할 뿐,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길을 되짚어 세련된 산골민박으로 돌아갔다. 평일인 탓에 주인 부부를 독차지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알고 보니 김진선은 최형관의 처사촌동생이고 부모님 모두 월남했으며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것, 이를테면 2세였다. 무엇보다 그는 이야기 보따리였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 그림은 전형적인 고정관념일 뿐이었고, 그렇게 무던 고정관념은 와장창 소리도 요란하게 부서졌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해방 후 북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서슬 퍼랬거든요.”

그는 최형관에 비하면 좀 냉철했고 가차 없었다.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그리 대단한 친일을 한 것 같지도 않아 인공 치하에서 이념이 달랐거나 지주들에 대한 처벌이 무서웠던 게 아니겠느냐고 오히려 내가 달래는 형국이었다. 해방 이듬해 고향을 등지고 야반도주할 때 김진선의 어머니 양일순(83)은 열네 살이었다.

함경도에서 제법 잘사는 집안이어서 큰집은 마을에서 유일한 기와집이었고, 어머니는 여학교를 다녔고, 어머니의 오빠들은 일본유학을 했다. 그랬던 집안이 땅이며 집을 모두 버리고 달랑 현찰만 버선이랑 옷 속에 감추고 보름이 걸려 풍기까지 내려온 것이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으니, 팔순이 넘은 어머니는 “마을 일을 봤던 것 같아요”라고 답한다. 시골집에 현찰이 있어야 얼마나 있었을까. 현찰은 이내 바닥났고 서울까지 가서 식모살이를 하다 보니 나이가 차서 달밭골 청년과 결혼했다. 김진선의 아버지 가족들은 처음부터 달밭골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참나, 그 고생해서 내려와갖고 왜 하필 산골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정감록』에 나온 피란처이긴 한가 봐요. 여기서는 육이오가 일어난 것도 모르고 있었대요. 어느 날 아주 상가지꼴을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게 후퇴하던 중공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뭘 해요. 정말 먹고살기 힘들었어요. 논이라고는 없으니까 감자랑 옥수수 심어 먹고, 86아시아게임 한다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일 때도 여기서는 옥수수밥 해먹고 살았어요.”

도시여자인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옥수수가 맛있어서 별미로 먹었나 보다 생각했단다.

“어릴 때는 달밭골 촌놈이란 소리가 그렇게 들기 싫었어요.”

그래도 달밭골을 떠난다는 건 엄두도 못 냈는데, 대학생이 된 사촌누나가 이곳에 놀러 와서 김진선의 어머니에게 “아들이라도 대학을 꼭 보내야 한다”고 말한 게 그를 서울살이로 이끌었다.

“서울은 완전히 딴 세상인데요.”

그랬던 그가 20여 년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2003년 지긋지긋하다고 떠났던 달밭골로 돌아왔다.

“제가 영업일을 했다고 하면 짐작하시겠죠? 서로 속이고 상납에, 비리에 염증이 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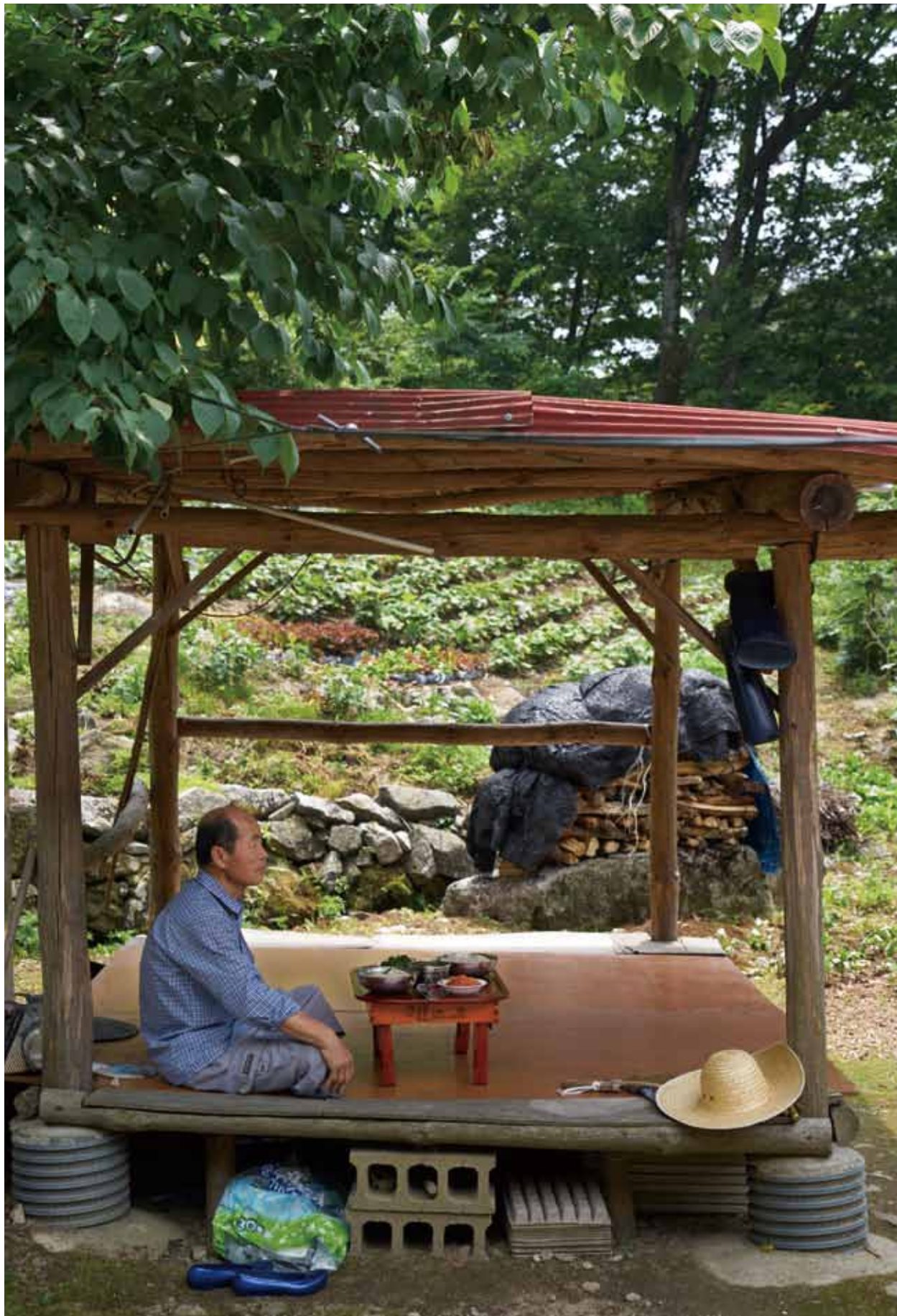
우영식(73)은 10여 년 전 이곳에 들렀다가 떠나지 못하고 머물렀다. 젊어서는 이 산 저 산 안 다닌 곳 없이 미친 듯 산을 오르내렸다. 그렇게 산을 밟아야 산이 마치 내 것이라도 된 것처럼 뿌듯하던 시절이었다. 자신의 호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허영과 자만이었는가를 아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매일 울던 새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고, 수 없이 밟고 지나쳤던 길옆의 풀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늘 자연과 함께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가장 변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자연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자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다름 아닌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함경도 출신 어머니 탓일까. 20여 년을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산 탓일까. 그가 살아온 이력으로만 본다면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인데, 말투만으로는 나고 자란 곳을 어림할 수가 없다. 부모님 때의 달밭골과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전할 때라야 비로소 그가 토박이임을 알아차린다. 하나 더, 2003년 고향으로 돌아온 김진선(54)은 시간이 흐를수록 할 일이 더 많아졌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일 외에 영주의 '명품마을(2013년 선정)'로서 달밭골의 모습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에서는 달밭골을 '명품마을'로 선정했고, 실무를 맡아야 하는 사무국장직에 그를 임명했다.



이화선(88)의 남편은 한국전쟁 때 전사했다. 부모님과 먼 길을 함께 하며 피난처로 택한 달밭골. 이곳 청년과 혼인을 하고 남매를 두어 창창한 앞날을 꿈꾸던 그에게 남편의 전사 소식은 고향을 떠나며 걸었던 먼 길의 수만 배나 되는 역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차마 시부모와 자식을 떨칠 수 없었던 그는 지금의 자리에서 시부모를 모셨고 두 아이를 키워냈다. 집으로 드나드는 길을 함께 쓰는 옆집의 최은희가 그의 만딸이다. 평생 희망이란 걸 품어볼 겨를이 없었던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옆집에 사는 사위와 딸에게 폐 끼치지 않고 딸네로 마실 가듯 그렇게 조용히 먼저 간 남편 곁으로 가는 것이다.



전덕성은 달밭골 도인이다. 불교 공부가 깊은 그는 어려운 불교 공안들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 책이나 펼쳤는데 거기 하필 <귀거래사>가 있는 거예요. 도연명의 시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리고 집사람한테 고향에 내려가도 되겠느냐고 했죠.”

“잠시 머리 식히고 올 줄 알았죠. 그때는 하도 위태로워 보여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태생이 달라요. 애초에 누굴 철석같이 믿지 않으니까 당하지도 않고 억울할 일도 없고 그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게 도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해요. 그거에 반하기도 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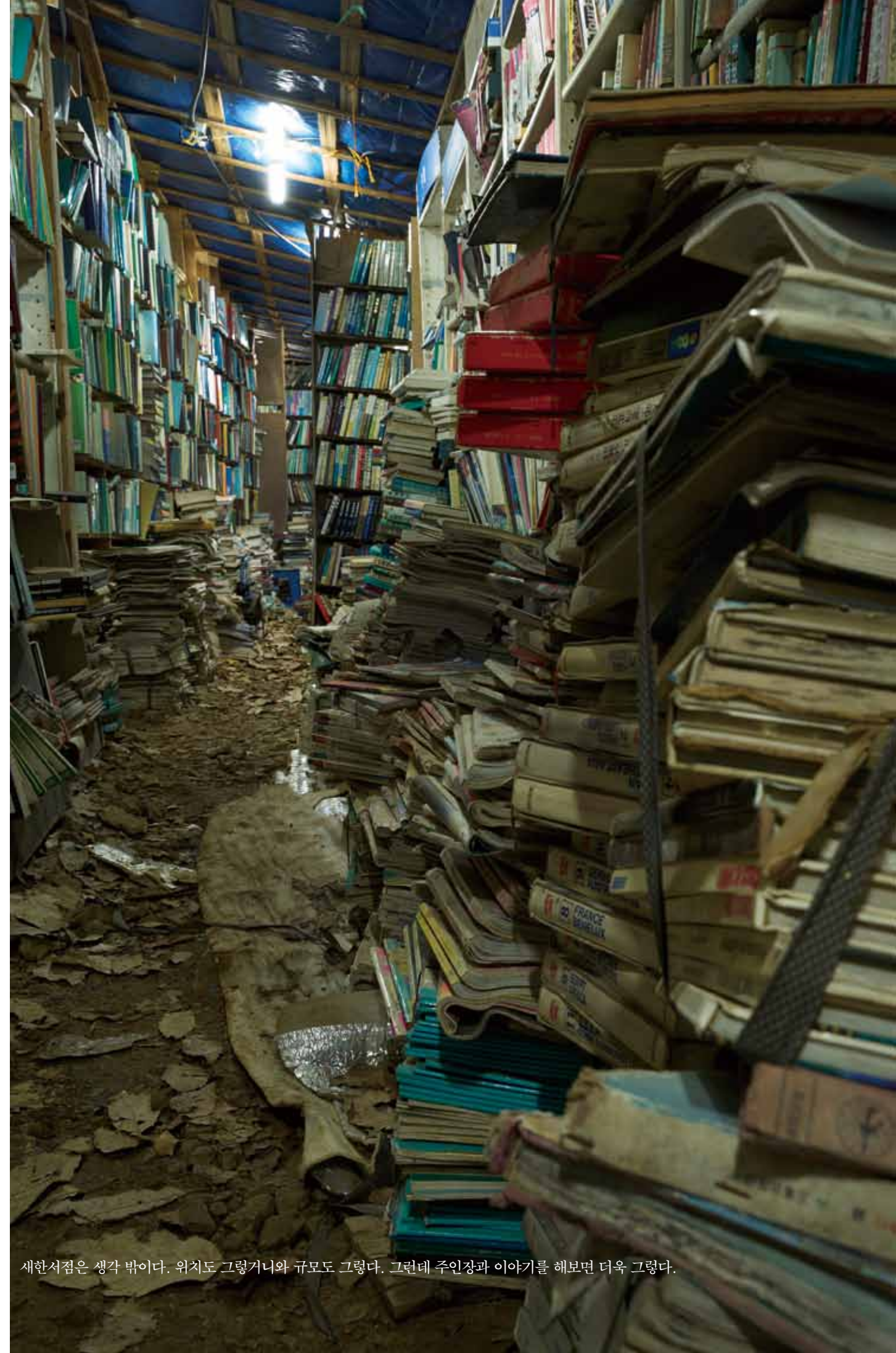
“세상일 참 신기해요. 한때는 지긋지긋해서 도망가고 싶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도시 사람들이 여길 찾아와서 나를 부러워해요. 여기서 나는 돈 벌려고 아득바득하지 않는, 나누는 삶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려고 해요.”

남자주인은 속삭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분자분 이야기하고, 안주인은 시원하고 화통하게 분석하고 정리 정돈하면서 사이사이 나물전을 부쳐 내오고, 막걸리를 따랐다. 달밭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

열한 가구가 사는 달밭골의 행정지명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다. 달밭을 한자로 써서 월전곡(月田谷)이라고도 한다. 자동차가 마을 안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길이 좁다. 걷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초암사 아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달밭재를 넘어서 마을에 다녀오기를 권한다. 아침부터 서두르면 초암사 아래 죽계구곡이며, 달밭골과 붙어 있는 비로사까지 돌아보고 되돌아오기에 알맞다. 김진선 씨는 산골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다음 주소창에 ‘산골민박’이라고 치면 찾을 수 있다.

그 숲에는 헌책방이 있다

영주의 오래된 책방인
스쿨서점 간판 귀퉁이에
‘since 1954’라고
씌어 있다. 그해 1월 20일
에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62년째이지만 그곳에는
서가에 꽂힌 책들만큼
켜켜이 쌓인 이야기가
없었다. 묵은 사진을
찾았지만 그마저도
없다고 한다.
무겁게 돌린 발길이
멈춘 곳은 단양의
새한서점이었다.
뒤로는 개울이 흐르고
하얀 개망초가
지천으로 피어 있는
그곳은 헌책방이다.
책들도 개울에 박혀 있는
돌들처럼 서가에
흩어져 있는 책방에는
밤이면 달빛이 낡은
책들을 어루만지는가 하면,
비가 내리는 날에는
빗소리가 책 사이로
파고들고, 한낮에는 햇살
머금은 바람이 들이
닥쳤다가 빠져나가곤
했다.



새한서점은 생각 밖이다. 위치도 그렇거니와 규모도 그렇다. 그런데 주인장과 이야기를 해보면 더욱 그렇다.



‘숲 속의 흰책방’이란 표지판을 보았을 때만 해도 뒷동산에 숲이 보이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다.



휴가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숲 속의 헌책방'을 찾는다. 주인장은 호기심에 찾아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도 그들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모든 분야의 책을 취급하지만 논문이나 원시와 같은 학술 서적이 주를 이룬다.



후배들이 시고로 들어가는 입구에 책을 안고 있는 주인 아저씨를 그려놓았는데 솜씨가 여간 아니다.



헌책방 주인장은 한 덩이 바위와도 같았다. 그를 에워싼 수많은 책들은 나무와 풀들이었으니 말이다.



책방의 모든 구조물은 그의 솜씨다. 일기설기 위였지만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휴식 공간이다.

편견을 깬 숲 속 책방

도무지 책방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길이었다. 북단양 IC를 빠져나온 차는 오미자나무들이 아치를 이룬 밭들을 지나 굽이굽이 휘어진 산길을 달렸다. 길은 점점 깊은 산을 향했다. 책방을 찾아가기엔 낯선 지형이었다. 한참을 달리자 금수산과 적성면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마을이 나왔다. 유난히 별이 잘 들 것 같은 마을에 집들이 다도해처럼 정답게 모여 있었다. 길 왼쪽으로 숲 속의 헌책방까지 1.2킬로미터가 남았다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오래 달려온 몸의 긴장이 비로소 느슨해졌다.

산딸기와 복분자 나무가 우거진 비포장 언덕길을 넘어서자 느닷없이 파란 지붕을 얹은 허름한 건물 두 채가 나타났다. 숲 속의 헌책방이었다. 기이한 광경이었다. 앞을 막아선 높은 산봉우리와 서늘한 계곡을 낀 곳에 난데없이 들어선 책방의 모습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아니 사실을 고백하자면 산속에 있는 책방은 나의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려주었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56번지 새한서점. 건물 벽에 붙은 주소와 상호가 들어 있는 나무액자를 바라보며 나는 산과 책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설부른 편견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계곡물 소리보다 더 상쾌했다.

파란 지붕을 얹은 책방은 온전한 건물이라기엔 몹시도 허술했다. 집을 허물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온 폐자재로 주인이 직접 지었다는데 문의 아귀가 꼭 들어맞지 않았고, 미처 다 가려지지 않은 틈새로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들이 보였다. 반면 흰 새시의 격자창은 허술한 벽에 비해 지나치게 견고해 보였다. 비워둔 벽 틈으로 햇살이 잠입했고, 바람은 문도 없는 건물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가끔은 호기심 많은 고라니가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건물이란 빈틈없이 채워지고 메워지고 바깥과 격리된 공간이란 개념 역시 편견에 불과하다는 걸 죽비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계곡 옆에 나무기둥을 세우고 합판과 나무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건물은 산이나 숲과 다를 바 없는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다. 아래로 경사진 지형을 따라 건물이 양쪽으로 비스듬히 이어져 있었다. 책이 빼곡히 들어찬 책꽂이가 놓인 곳은 시멘트조차 바르지 않은 흙바닥이었다.

산을 닦아가는 사람

주인장 역시 그곳에선 산이나 나무 같았다. 한때 새한서점에 가면 없는 책이 없다고 소문났던 이금석(64) 씨의 헌책방은 원래 서울의 고려대학교 앞에 있었다. 고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루 종일 책을 포장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할 만큼 바쁜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남은 책을 지고 38년 만에 고향 근처로 홀로 돌아와 먼지 끼고 곰팡이 핀 낡은 책들을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

“여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산·산나물·물·풀… 산에 가서 살고 싶던 차에 잘됐지 뭐.”

그가 처음 귀향한 곳은 지금 자리가 아닌 적성면의 한 폐교였다.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파는 시대가 되자 그의 책방엔 사람들이 뜰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책 읽던 시간을 컴퓨터나 TV 보는 데 써버렸고, 드물게 사는 책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다.

세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의 헌책방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검색창에 뜨지 않는 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책 한 권 한 권을 일일이 입력하고 자료화하는 데이터 작업 과정에서 빔도 지고 압류를 당하는 일마저 겪었다. 데이터 작업 업체가 두 번이나 바뀌고, 헌책방으로서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엔 벅찰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지도를 펴놓고 궁리를 했다. 고향 제천은 때마침 불기 시작한 레저 붐을 타고 전국의 관광객이 한 번씩 들르기 좋은 지점이었다. 그는 이 점을 결심했다. 그를 어려움에 빠뜨린 인터넷 망은 한편으론 그가 망설임 없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한 기반이기도 했다. 전국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는 이 땅의 택배 시스템도 한몫했다.

이 책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

제천엔 마땅한 곳이 없어 가까운 단양의 폐교를 빌려 책을 지고 내려왔다. 아이들이 떠난 빈 교실에 책을 가득 채우면서 그는 그곳이 책방뿐만 아니라 텐트를 치고 편히 쉬기도 하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꿈은 쉽지 않았다. 데이터가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웹사이트 주문만으론 폐교의 적지 않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2009년, 그는 한때 다랑논이었던 숲 속의 빈터로 남은 책들을 짊어지고 들어왔다.

천막을 치고 물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책더미를 쌓아놓고 그는 혼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서가를 짜는 것도 이력이 났다. 건물이 채 완성되지 않았는데 소문을 듣고 방송국에서 찾아왔다. 몇 번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찾아왔고, 미완의 상태로 방송이 나갔다. ‘숲 속 헌책방’이라는 이름도 그때 붙었다. 방송의 힘은 예상보다 커서 사람들이 산속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 후 영화도 세 편이나 그곳에서 촬영했고 드라마에도 나왔다. 어느덧 숲 속 헌책방은 단양의 명소가 되었다.

“도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리만족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가 주문 받은 책 여덟 권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습기를 막기 위해 일일이 신문지로 싼 후 다시 갈색 크라프트지로 포장했다. 그가 정성스럽게 싸고 있는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라는 영어책엔 ‘Ann cook, 62년 October’라는 연필글씨가 쓰여 있다. 앤 쿡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이 책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걸까. 나는 페이지마다 밑줄이 쳐진 책을 들고 상상에 빠졌다.

한때 이 책에 밑줄을 그으며 탐독했던 사람은 지금쯤 주름만 남은 노인이 돼 있거나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돌발적인 상상이야말로 헌책방의 가장 큰 매력인지도 모른다.

그의 책방엔 온갖 분야의 책이 많았다. 학술서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중간수집상들이 알아서 갖다 준 것이라고 했다. 한 미대 과사무실에서 주문한 조각가의 도록이 마지막으로 포장되었다. 책이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믿는 그는 가끔 귀한 책은 그냥 빌려주기도 했다. 헌책방으로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고, 라임색을 칠한 깔끔한 정자 옆에는 작은 간이 책꽂이가 서 있었다. 유리문이 달린 나무박스엔 ‘헌곡리 새한문고’란 글씨가 쓰여 있고 여러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책방 주인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설책이나 농작물 정보서를 빼서 읽고 다시 갖다 놓는다고 했다. 때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정자에서 쉬면서 책을 읽기도 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은 차도 자전거도 없는 그를 위해 심부름을 해주면서 서로 기대어 산다.

“고등학교 때 도서부원을 했었는데 그땐 공부방이 없어 거기서 공부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지. 특히 역사책이 재미있었어.”

중성세제 공장을 하다가 망한 후 먹고살기 위해 헌책방을 시작했다는 그에게 왜 하필 책이었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1979년, 헌책방이 준비하던 청계천에서 책 두 꾸러미를 사들고 잠실까지 가서 노점에서 판 게 시작이었다. 그 후 임대료가 오르면서 청계천의 헌책방들은 옷가게로 바뀌기 시작했고, 책 팔아 번 돈으로 다시 책을 사들이던 그의 헌책방은 날로 번창했다. 그가 잠실에서 고대 앞으로 가게를 이전할 즈음 그나마 몇 군데 남아 있던 청계천의 헌책방들은 재개발로 모두 떠나버렸다. 가슴이 아ഴ해졌다. 중학교 때부터 돈만 생기면 친구와 청계천을 찾았던 나는 지금도 그곳에서 산 보라색 천의 하드커버로 된 『주홍글씨』나 신구문화사판 세계전후문학전집 같은 걸 차마 버리지 못하고 이 사 갈 때마다 짊어지고 다닌다. 그 낡은 책들은 사실 무엇보다 그곳을 다니던 시절의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굳이 차를 몰아 산속의 헌책방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셰익스피어 서점을 갖고 싶다

“빛이 팔천이었는데 다 갖고 이제 이천 남았어.”

자신을 위해 비축한 살집 하나 없이 마른 몸의 사내는 앞니가 빠져나간 얼굴로 웃었다. 앞으로 1년 정도 더 고생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평일 하루 두세 팀, 연휴나 휴가철엔 더 많은 사람이 다녀간다는 서점은 5년간 계속 팔기만 하고 새 책을 보충하지 못했다. 그래도 남은 책이

10만 권쯤 된단다. 10만 권의 책엔 일일이 바코드와 ISDN(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번호가 붙어 있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찾기 쉽도록 책을 분야별로 분류해 서가마다 이름을 써놓았다. 종교·철학·세계문학·경제·민법·정치학·보건… 그의 서가에는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와 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를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던 계몽사판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과 대학시절 용돈을 아껴 구입한 「창작과 비평」 영인본, 러시아어와 헝가리어·인도네시아어 책도 눈에 띄었다. 보물찾기라도 하듯 서가를 구경하는 사이 그가 포장해놓은 책을 가지러 택배기사가 다녀갔다. 매일 오후 1시 30분쯤 택배기사가 온다.

“외로울 새도 없어. 사람들 오면 앉아 있을 평상도 짜야 하고, 아래쪽 계곡에 다리도 하나 더 놔야 해.”

그는 책을 빼낸 서가 구석에 알을 슬어놓은● 단단한 밀랍을 떼어내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 오래돼 딱딱해져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니 그가 만들어놓은 계곡의 다리 위로 까만 오디가 잔뜩 떨어져 있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산이야. 어찌다 금수산 정상까지 가는데, 하루 열두 시간 꼬박 걸려. 밥 먹는 시간 빼곤 쉬지도 않고 능선들을 넘어 다녀. 세상 좋아지면 백두산·금강산·묘향산 같은 데도 가보고 싶어.”

산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는 그는 산악회에서 암벽등반도 했다. 제천 송악산 자락에서 태어나 산이라면 진저리를 치던 그가 처음 친구를 따라 간 산은 소요산이었다. 나무를 하거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걷기 위한 산은 그에게 새로운 상대였다. 사람 왕래가 많은 헌책방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산에 가면 절로 해소되었다. 육십이 넘은 사람 같지 않게 맑고 천진한 얼굴은 산과 책이 만들어준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책은 일제 때 나온 어린이 잡지야. 헌책방 초기엔 고종황제 장례식 앨범이 우연히 들어왔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팔아버린 적도 있어. 그래도 책 살 때는 싸게 못 사. 항상 상대에 맞게 적당한 값을 쳐줘. 너무 비싸게 사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안 팔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에서 좀 더 주지. 그래야 같이 살지.”

그가 새로운 주문이 있는지 컴퓨터 화면을 띄웠다. 새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 이 책들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좋겠어.”

그가 아버 같은 눈으로 서가를 바라보았다. 순간 오래전 파리 여행 중에 일부러 찾아갔던 헌책방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Shakespeare & Company)’와

● 슬어놓은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깔기어놓은 모습.

세느 강변에 있던 헌책을 파는 가판대들이 떠올랐다. 그들이라고 왜 현대 기계문명에 치이고 자본에 도태되지 않았을까마는 그래도 헤밍웨이 가 단골이었다는 그 책방을 옷가게로 바꾸지 않았고, 끝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로 만들어냈다. 세느 강변의 책 가판대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곳에서 에곤 쉴레의 그림들이 들어 있는 얇은 책 한 권을 사면서 얼마나 행복해했던가. 오래 축적되고 이어진 것들을 가지 있게 생각하고 지켜낸 사람들에 의해 문화는 새롭게 창조되고 지속된다.

돌아오는 길, 오랜 가뭄으로 청풍호는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갈라지고 황폐해진 강바닥이 이 땅의 척박한 문화 환경 같았다. 그러나 숲 속의 헌책방은 지금까지 그러했듯 천천히 조금씩 더 서가를 늘려갈 것이고, 오래전 우리의 양식이었으나 지금은 잊힌 책들,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해 밀려난 책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 쓰일 책들은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두워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늙고 웅이 진 느티나무 한 그루가 지나가는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

한때 어인(御印)이 찍힌 『공신록』과 고종 당시의 과거시험 답안지와 같은 희귀한 책이나 문서는 물론 순종 때 만든 수학 교과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헌책방이었던 새한서점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56번지에 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구경만 하려는 사람들도 환영한다. 홈페이지에서 책을 주문할 수 있다.

www.shbook.co.kr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책뿐이지만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이마저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숲 속의 헌책방’ 새한서점 주인장 이금석 씨, 그는 책과 함께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아들도 머뭇거리는데 누가 하겠어”

소백산 기슭의 한지 장인 황동훈

황동훈(75), 그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17호이며, 소백산 기슭에서 한지를 뜬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자신이 뜨는 종이 질이 좋은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하는 그는 뜻밖에도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문학청년이었다.

그런데 졸업 후에는 또 은행에 입사를 했다. 그렇지만 며칠 출근해보지도 못한 채 고향으로

불려 내려와서 소설이나 산문은커녕, 시 한 수도 짓지 못하고 줄곧 종이만 땀다.

●
산판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파는 일
또는 그런 현장.

“아버지가 나보다 학교에 더 많이 가셨지”

“내가 중학교까지만 여기 단양에서 다녔어. 그러고는 용산고등학교 알지? 서울 용산 말이야, 거기로 유학을 갔어.” “그 시절에 유학을 갔으면 대단했겠네요. 제가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던 해, 70년에 서울로 갔는데 그때도 서울로 유학 간다고 야단법석이었어요.” “그랬지. 내가 갈 때는 단양에서 아무도 못 갔을걸 아마. 우리가 그때 좀 부자였지. 내가 서울로 간 것이 57년이야. 그래 60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서 이래저래 지내다가 69년에 졸업했지. 그때가 막 외환은행이라고 있잖아, 그계 생겼을 때라. 그래 거기에 입사를 했는데 한 달도 못 다녔을걸. 아버지가 갑자기 단양으로 내려오라는 거여. 그러니 어떡해, 용빼는 재주 없지 뭐. 그래 그 길로 짐 싸서 내려오는 다시 서울에 올라가지 못했어. 줄곧 단양에서 사업을 했던 거야. 아버지가 사업이 많았어. 이 종이 공장은 내가 고등학교 가기 전 해에 시작했는데 친구 둘하고 동업으로 구 단양 상방리, 지금은 수물패서 안 보이지. 거기서 시작한 건데 한 10년이나 됐다. 친구 분들이 다 떠나고 아버지 혼자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이 사업이 주업이 아니라 말야. 켈 큰 사업은 목상이지, 나무 장사하는 거. 산에 가서 산판●을 벌이고 그 나무들을 뗏목으로 묶어서 전부 저 한강을 타고 내려가서 서울의 광나루 거기까지 배달하고 그랬지. 그 사업이 켈 커. 여기에 목재소도 있고, 광산도 했고. 정미소도 크게 했는데 죽령 올라가는 이쪽에서 소 키우는 목장도 하고 그랬어.”

그는 1940년, ‘단양 황부자’인 황현식(1914~2011)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이가 말했듯 그의 아버지는 대단한 사업가여서 단양 일대의 산판이란 산판은 도맡아서 벌목을 했으니 돈을 굶어모았다는 말이 맞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번 책, 두 마을 이야기에서 찾아갔던 용진리를 지나 의풍리로 들어가는 깊은 산의 산판도 당신 아버지가 하셔서 그 나무들을 지금 용진대교가 놓인 그 자리에서 뗏목을 묶었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뗏목 이야기가 바로 황동훈 씨네 뗏목이었던 셈이다.

그런 그가 서울로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날마다 농땡이를 쳤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당신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많이 학교를 다녀가셨을까. 이삼 일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에서는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

고,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리나케 서울까지 달려와서 손이 닳도록 빌어서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학에 갈 때도 학교에서 원서를 써주지 않아서 못 갈 뻔한 것을 아버지의 설득으로 마음을 다잡고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그나마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하니 그이나 그이의 아버지나 모두 대단한 분들이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할 무렵, 아버지 명으로 고향에 돌아온 그는 당장 광산 사업부터 배웠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이에게 사업을 물려줄 요량으로 일을 맡겼는데 광산으로 시작해서 도담삼봉 앞을 흘러 다니는 유람선 사업까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그렇게 경험을 쌓고 난 후 한지공장을 맡았는데 곧 공장을 이전해야만 했다.

“그때가 충주댐이지요. 그 댐 때문에 물이 들어오니깐 단양이 다 잠겼잖아요. 그래 공장을 옮긴 것이 지금 이 자리로 오게 된 거죠. 그때는 공장이 컸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아버지가 처음에 공장을 시작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종이 뜨는 초지공만 열 명이 넘고 전부 다 하면 백 명 가까이 됐대 말이지. 그런데 여기로 옮겨 올 때 그때가 84년인데 공장 사람들이 모두 스무 명 남짓 됐죠. 그래도 그때 한 40만 불 정도는 수출했을 거요. 그런데 아이엠에프가 오고 나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요새는 겨우 10만 불 정도가 1년 매출이 되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우리는 100퍼센트 수출이야”

묘한 것은 그가 종이 값을 이야기할 때마다 달러나 엔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우리 화폐단위인 원으로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더구나 선적이 어찌고 물량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으니 의아했다. 의아해서 여쭙니 이렇다.

“우리 종이는 전부 수출이지. 국내 시장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요새는 100퍼센트 일본으로 나가고 있어요. 국내에는 특별한 경우, 얼마 전에는 『조선왕조실록』 복원한다고 하면서 문화재청인가 뭐 그런 쪽에서 주문해 간 거 있고, 경복궁 복원해놓고 도배할 때도 가져갔고 뭐 그런 정도지, 매장이냐 그런데 직접 내지는 않지.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40년을 그래 해왔지요. 일본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가는데 어디다 쓰는지 알 수



황동훈은 충북무형문화재 한지장이며, 아직은 일이 재미있다고 한다.

가 없지. 아마도 우리 종이를 가져가서 저희들이 따로 또 가공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다 파는 것 같지만 여기 앉아서 그걸 자세히 알 수가 없지 뭐. 우리한테는 헐값에 가져가서 그렇게 가공해서 비싸게 판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 주문이 엄청 까다로워요. 종이는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무게로 주문해요. 장당 몇 그램 이렇게. 또 펄프, 닥이지 이진 한지니까. 그걸 100퍼센트 넣는 것부터 50퍼센트 넣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오다(Order)를 하니 그거 맞추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그 주문을 어찌어찌 다 맞춰주니까 주문을 계속하는데, 예전에는 다른 곳들도 소개를 많이 해준 적이 있어. 우리가 물량을 다 댈 수가 없으니까 말여.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한 번 하고 다 나가 떨어졌어.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 까다로운 거를 우습게 본 거지.”

2층 창고에 들어가니 배에 신지 못한 종이들이 가득했다. 자체 심사에서 걸러낸 것들이란다. 중량이 맞지 않으면 종이 두께가 달라져서 보내 봐야 되돌아올 것이 뻔해서 아예 선적을 하지 않는단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지 뭐. 나도 그렇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계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딱딱 맞춰. 못해. 그래도ロス(Loss)가 나지 않게 잘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 저쪽 지통 앞에 대머리 벗겨진 사람은 종이만 뜬 지 40년 된 사람이야. 우리 공장에서 처음 시작해서 군대 갔다 올 때 하고 다른 공장에 가서 잠깐 있었던 것 빼면 우리 집에서만 30년이 넘은 거지. 베테랑이지. 그래도 주문 들어오는 대로 맞추기가 힘들다 말이야. 오른쪽 지통 앞에 좀 젊은 사람은 인자 우리 공장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30년 넘은 사람들 이야. 아무리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정확해. 슬쩍 무게가 맞지 않는 것을 끼워놓으면 귀신처럼 골라내서 돌려보내니까 요새는 처음부터 아예 보내지를 않아. 그게 상책이야. 괜히 보냈다가 운임만 더 나오고 신용 잃고 손해 보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이 덤벼들지 않지”

그렇게 잘못 뜬 종이는 국내 시장에 내다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말

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막무가내였다. 일본 사람들이 싫다 하는 종이를 왜 우리가 쓰느냐는 것이다. 국내에 내다 팔려면 국내 실정에 맞는 종이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관리 인력 또한 필요하게 되니 불가능하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이 도통 이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 지정되고 나니까 전수자를 두라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하난데 그놈은 저기 부안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개척교회 목사를 한다 말이지. 그러니 우리 아들도 안 할라 하는데 누구네 집 아들이 이 일이 좋다고 하겠느냐는 거지. 도에서는 자꾸 전수자를 빨리 두라고 난리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깐 하기는 하겠는데 두고 봐야 알지 뭐. 내가 할 때처럼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옛날에는 마을 전체가 닥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뭐 그렇지도 않고, 닥 구하기도 쉽지 않고, 공간이 넓어야 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수익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이 덤벼들지 않지.”

그이의 1년 매출은 10만 불이다. 1억1500만 원 남짓인 셈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운영비도 써야 하고, 직원 넷의 인건비도 나가야 한다. 아무리 셈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도 그이는 껄껄 웃었다. 그나마 아버지 덕에 물 걱정은 안 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경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공장 위로 나가면 대동샘이라고 저 죽령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수맥을 잘 잡아서 공장 안으로 물길을 땡겨놓은 거지. 그래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종이는 물이 중요하거든요. 흐르는 물이 있어야 거기에 닥을 계속 씻거든. 종이가 그만큼 깨끗해지니까. 그래도 우리는 물 하나는 흔하게 쓰는 편이지. 다른 공장 사람들이 간혹 놀러 오는데 그 사람들 전부 우리 물 쓰는 거 보고 놀라요, 부럽다고 말이지. 우리는 지하수도 같이 쓰고 하니깐 물값은 안 들어가는데 저 모터 돌아가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이 사업 하는 동안은…”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문득 조선시대 간경소(刊經所) 역할을 하던 사찰들의 입지가 생각났다. 불교 경전을 찍어내던 그런 사찰들은 당연히 종이를 만들어서 써야 했으며, 그들은 모두 빼어난 물줄기를 자랑하는 계곡을 끼고 있었다.



이제 기운이 달려서 한 번에 두 장씩 뜨는 쌍발 뜨기는 못 하고 외발 뜨기를 한다.



발 위에 종이를 얹히는 것이 기술인데 오로지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직접 종이를 뜨는 날도 많지 않다. 행정 업무를 봐야 하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고 해서 대충해서는 안 된다. 주문한 무게에 맞추려면 아주 정밀한 기술이 요구된다.

대개 그러한 사찰들은 많이 폐사지가 되었는데 종이 부역 때문이었다. 지역 관공서에서 종이를 찍어서 공물로 바치라는 요구가 심했기에 승려들은 수행은커녕 종이를 뜨는 노역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승려들은 하나 둘씩 사찰을 떠나게 되고, 곧이어 폐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의 노익장을 응원하다

이렇든 저렇든 문제는 그이가 하는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마땅치 않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통문화라는 것은 그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 흥한다. 그러나 그 일에서 돈이 생겨나지 않으면 사양길을 걷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지 또한 마찬가지다. 한 장의 종이를 뜨기 위하여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은 많은 반면,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이를 일본은 왜 필요로 하는가 말이다. 그것은 그들만의 기술력으로 재가공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일까. 우리 종이를 가져다가 재가공하여 열 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산업이라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 아닌가. 늘 말로만 우리나라 종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어찌고, 인쇄술이 어찌고 할 것만이 아니다. 그이의 한지공장인 단구제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67세 이상이다. 그들이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종이 제작은 그것을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하면 덩달아 발전할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 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부정적인 타령만 늘어놓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들이 힘겹게 만들어내는 종이를 사용할 묘안을 짜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서너 차례 공장을 찾아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면 할수록 참담한 기분이 드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상당 부분 옛 방식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것을 타할 수도 없었다. 인건비 때문에 사람 손이 줄어드니 당연히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옛 방식은 장인들의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을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의 노익장을 응원하고 싶었다. 죽령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작정 다시 찾아가 공장 사람들 모두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더니 그것도 쉽지 않았다. 30년 넘게 닻에서 잡티를 골라주는 일을 해온 김옥녀(70) 씨가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들의 나이는 만만치 않았고, 공장은 늙어 있었다. 어찌면 그이네 공장뿐 아니라 전통문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늙어 있는지도 모른다. 나의 걱정을 씻어주려는 것인가. 아쉬운 대로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다. ☁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오른쪽 두 사람은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넘었다.

영남지방은 고개의 남쪽지방을 일컬으며, 그때의 고개는 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를 이어주는 죽령을 말한다. 죽령의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한강을 차지하려고 쟁패를 벌이곤 했다. 죽령 북쪽인 단양에 신라의 적성비가 있는가 하면, 죽령 남쪽인 영주의 순흥에 다다르면 고구려의 흔적으로 보이는 고분이 남아 있다. 이것은 삼국이 죽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넘나들었다는 것을 뜻하며, 고갯마루나 강기슭에 남아 있는 산성 또한 그 흔적들이다.

남한강과 소백산 기슭의 산성



● 장옥불상
16척, 곧 장옥척(丈尺)을 기준으로 만든 불상을 말하며, 대략 높이가 5미터에 달하는 큰 불상을 뜻한다.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은 호기심에서였다. 옛글에 쓰인 한 줄 내용만으로도 그 궁금증은 나를 책상머리에 가만 놔두질 않았다. 역사를 공부합네 하면서 항상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한 것은 이처럼 진실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였다. 특히 고대 역사는 사료 부족으로 인해 언제나 나의 발길을 그날의 현장으로 옮겨놓기 일쑤이다.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지만 죽령에 다다랐을 때는 벌써 뜨거운 햇귀가 사방으로 뻗쳐버린 뒤였다. 멀리 소백산 자락의 제2연화봉과 도솔봉이 이어지는 잘록한 지점에 자리한 푹푹한 고개가 눈에 들어온다.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이사금(阿達羅尼師今) 5년(158년) 3월에 비로소 죽령길이 열렸다”고 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아달리왕 5년에 죽죽(竹竹)이 죽령길을 개척하고 지쳐 순사(殉死)했는데 고갯마루에 죽죽을 제사하는 죽죽사(竹竹祠)가 있다”고 했다. 물론 이때 신라가 이곳까지 와서 고갯길을 개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옛길로 들어서는 단양의 용부원리 마을에는 언제부터인지 다자구 할머니를 죽령 산신령으로 모시는 사당이 세워져 있다. 죽령 일대에서 행인을 괴롭히던 도적을 잡기 위해 이들이 잠에 폴아떨어진 순간 ‘다자구야, 다자구야!’를 외쳐 관군에게 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죽령에 남아 있는 고구려·백제·신라의 흔적

죽령 마루터기의 남쪽 작은 산봉우리에는 고대에 만든 죽령산성이 있다. 그리로 오르는 상사목에는 머리가 없는 석조여래입상 하나가 봉긋하게 솟아 있다. 가련하게도 장옥불상*의 불두는 떨어져 마치 발치에 놓인 돌덩이가 그 형체인 듯하지만, 원통형 석물로 이루어진 조각수법으로는 하늘재에 있는 충주 미륵리의 미륵불이 연상된다.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竹旨郎)조에 보면, 술종공(述宗公)이 죽지랑의 고갯길을 닦은 거사에 감응하여 그가 죽은 뒤 고갯마루 북쪽에 장사를 지낸 후 돌로 미륵 한 구를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웠다고 한다. 지금은 돌무더기 가득한 폐사지가 되어버렸지만, 신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세운 절이 아니었나 싶다. 죽령 봉우리에 있는 산성의 내부에서도 삼국시대의 토기와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죽령산성은 삼국이 이곳에서 쟁탈전을 벌였을 때 만든 성으로 생각된다. 실제 석축과 토축의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돌담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훼손되어 지금은 옛 흔적을 제대로 찾기 힘들게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위에서 멀리 조망되는 방향이 북쪽이 아닌 영주 쪽인 것은 북쪽에서 남쪽 신라를 방비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성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이하게도 발견되는 유물 중에는 신라계보다는 백제계에 가까운 유물이 많다고 하는데, 충주 지역을 통해 백제가 이곳까지 진출했던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증을 자아낸다.



단양 영춘면의 온달산성이다. 한강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성을 쌓았다.



단양 적성면의 적성산성이다. 이곳에서도 한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사실 이곳 죽령을 넘어 경상도 땅 어귀에 해당하는 영주는 매우 흥미로운 고장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옛 땅의 소속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그중 소백산맥 이남인 경북 봉화·영주 순흥·영주 부석·안동 도산·임하·청송·영덕·포항 등이 본래 고구려 땅이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저 만주벌판을 누비던 고구려가 경북 북부지방과 포항까지 내려왔다는 기록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길림성 집안에 있는 광개토왕 비문을 보더라도 왜(倭)의 침략으로 인해 신라가 구원을 청하자 400년 광개토왕이 기보병 5만을 보내 왜를 격퇴했다고 써어 있다. 이때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경주 부근까지 내려간 루트가 바로 죽령 길이었다.

고구려가 한강 상류와 소백산맥 일원을 장악한 것은 여러 기록과 유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개토왕 비문에는 396년 고구려가 백제를 토벌하여 58성 700촌을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문에 나오는 고모루성(古牟婁城)은 충주에 있는 고구려비에도 나오는 성으로서 그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강 상류 지역까지 고구려의 세력이 뻗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398년에는 광개토왕이 일부 군대를 변경의 백신토곡(帛愼土谷)에 보내어 동정을 살피고 가태라곡(加太羅谷) 등을 획득한다. 이러한 비문의 기록에 대해 다양한 설이 있지만 일단 백제를 토벌한 이후 남쪽 소백산맥 일원까지 고구려가 점거한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고구려의 남쪽 접점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던 영주 지역(나이군)이 백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때의 나이군(奈已郡)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영역이 백제로 잘못 표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기는 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조와 초고왕(肖古王)조에는 백제가 신라의 서쪽 경계인 원산향(圓山鄕)을 공격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이른 시기 백제가 경북 예천 일원에 일정 부분 세력을 뻗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에도 동한(東韓)의 땅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백제가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는 이 지역은 소백산맥 일원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에 있어서 남쪽 최전선이 바로 백제에게는 동쪽 변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소백산맥 일원의 단양과 문경·예천을 가르는 벌재(벌령(伐嶺))를 중심으로 많은 산성이 웅거하고 있다. 특히 단양의 독락산성이나 문경의 할미성에 가보면 고구려적인 내음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들 산성에서는 바깥 성벽에 수직으로 홈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성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상당 기간 고구려가 이곳에 주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중에서도 도락산(道樂山) 정상부에 있는 독락산성은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공방을 벌인 도살성으로



영주 비봉산 기슭에 있는 순흥 읍내리 고분은 사적 제313호로 지정되었다. 신라 지역인 경북 영주에 있는 고분이지만 마치 고구려 고분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더구나 고분 안에는 벽화들이 남아 있어서 흥미롭다. 벽화는 석회를 바른 현실의 네 벽, 연도 좌우 벽, 시상대의 측면 등에 그려져 있다. 방식은 먹선으로 그림의 윤곽을 잡고 그 안에 붉은색·노란색 등의 색채를 이용한 구름전채법(鉤勒填彩法)●을 위주로 하였다.

● 구름전채법
윤곽선으로 두른 면을 채색으로 메우는 화법.

고구려의 흔적이 배어 있는 소백산

추정되는데, 결국 소백산맥 일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쟁탈전을 벌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남쪽으로 죽령을 넘어 닿은 첫 마을 풍기만 하더라도 동부리 부근에 흙으로 쌓은 토성이 있다. 이 토성에서 일부 토기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소백산맥 인근 삼국의 접점에 있던 토성으로 짐작되는 만큼 훗날에 있을 발굴 결과에 자못 기대가 크다.

비봉산성의 애달픈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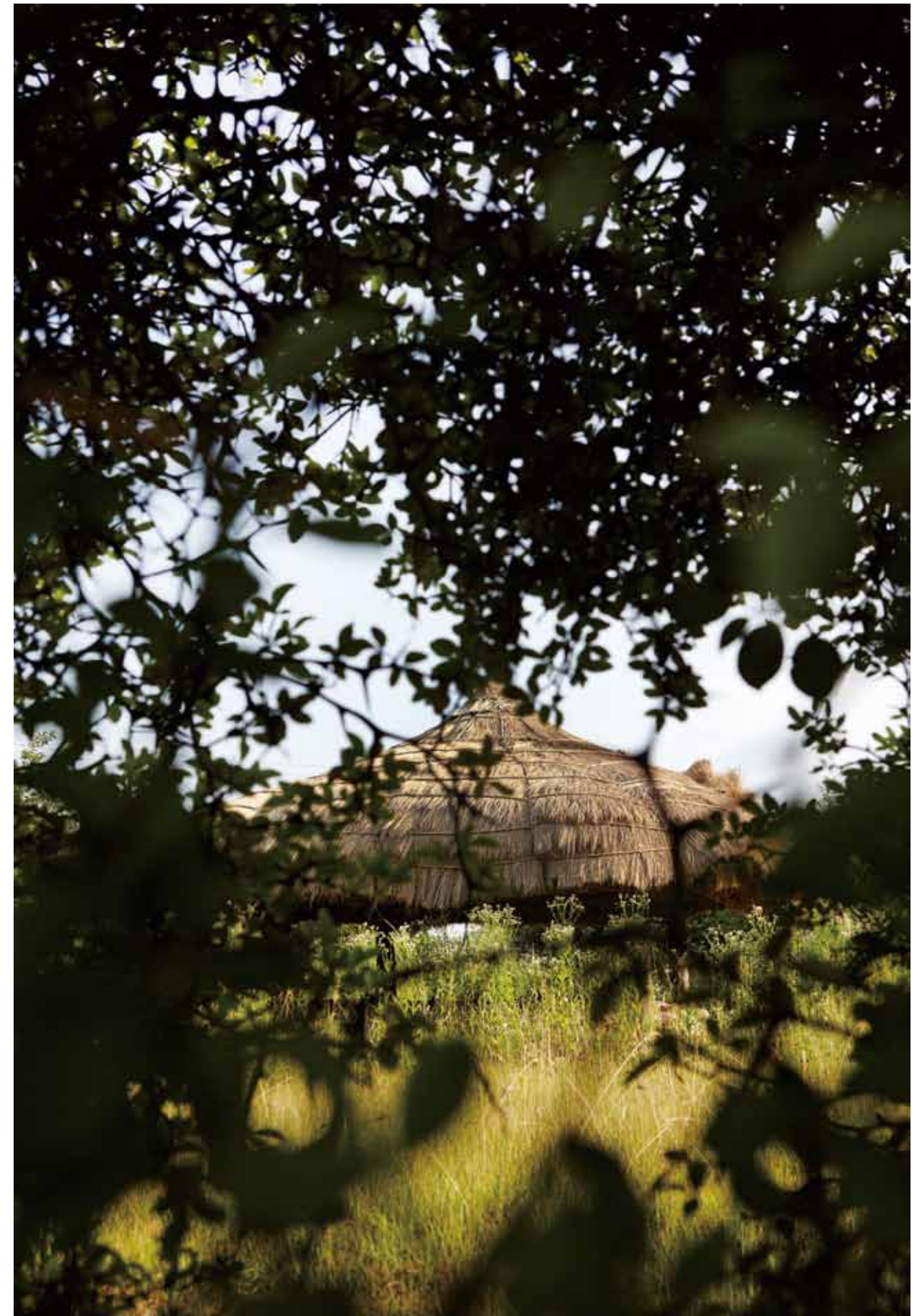
맑게 갠 하늘이 경상도 땅에 들어서자 갑자기 검기울더니 비라도 내릴 듯하다. 고개 하나 차이인데도 기상의 변화무쌍함이 느껴진다. 어느덧 풍기의 옆 동네인 순흥에 발길이 머물렀을 때는 역사에 대한 이런저런 상념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였다. 순흥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성리학을 도입했던 순흥 안씨의 세거지로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있어 항상 관광객들로 박작거리는 곳이다. 하지만 나의 발길은 순흥 중심부에 있는 비봉산성으로 향했다.

비봉산 일원에는 많은 고분이 널려 있는데 그중 나지막한 자드락에는 벽화가 그려진 돌방무덤이 있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다. 입구에는 수문장 노릇을 하는 시뻘건 모습의 역사(力士) 두 명이 버티고 있고, 연화문과 봉황·구름·연꽃·부채를 든 여자 등이 그려져 있다. 독특한 것은 물고기 모양의 깃발이 묵화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인데, 현재 일본에서는 어린이날에 비슷한 모양의 깃발을 사용하는 고이노보리(鯉のぼり)라는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형(魚形) 문양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고구려의 위양스를 짙게 드러내는 고분이다. 벽화 묵서 중에 ‘기미(己未)’라는 글씨가 있어 539년 쯤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단 고구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비봉산성으로 올라가는 앞마당에 고분 모형관을 만들어놓아 길 가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비봉산 주위에 있는 비봉산성은 과거 발굴했을 때 일부 석축이 드러났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이 흙으로 덮여 있어 성벽이 일부밖에 관찰되지 않는다. 발굴 시 5세기 후반에 유행하던 고배류가 출토되어 신라가 축조한 산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봉산성 아래에서는 신라의 관직이 적힌 어숙묘(於宿墓)•가 발견되기도 해서 일단 6세기경에는 순흥 지역을 신라가 점유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비봉산 정상에서 망루 구실을 했을 법한 토축에 오르면 남동쪽으로 순흥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반대로 비봉산의 북쪽으로는 멀리 소백산맥을 통과하는 관적령(串赤嶺)의 길머리가 새뜻하게 눈에 들어와 과거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을 실감할 수 있다.

• 어숙묘
황혈식 석실분(돌방무덤).



금성대군이 위리안치(圍離安置)되었던 순흥면에 당시 모습을 복원해 놓았다.



충북 민속자료 제3호인 죽령산신당이다. 이곳에는 죽령 일대에 들끓던 도적을 소탕하는 데 공을 세운 ‘다자구 할머니’ 전설이 전한다. 단양군수에게 병력을 지원받은 할머니는 죽령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자구야’, ‘들자구야’를 외쳤다. ‘다자구야’를 외치면 도적떼가 잠을 자고 있는 신호요, ‘들자구야’를 외치면 도적떼가 자지 않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신호였다. 이렇게 하여 도적을 소탕하자 지역민들이 그를 받들어 산신이 되었다.



죽령 정상에서 잔양 방향으로 1킬로미터 남짓 내려오면 만나는 보국사지(輔國寺址)다. 『삼국유사』 권2 죽지랑조에 술중공이 현 죽령인 죽지령을 닦은 거사에 감동하여 그가 죽은 뒤 북쪽에 장사 지낸 후 돌로 미륵 한 구를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그곳이 보국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령에서 거대한 석불상이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 발굴 결과 석불은 전실 안에 모셔진 것으로 짐작한다.

조선 초기 순흥은 사연이 많은 곳이었다.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이 단종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이곳에 귀양 오게 된다. 금성대군은 탕자나무 울타리에 갇혀 위리안치(圍籬安置) 상황에 처하는데, 이즈음 강원도 영월에 귀양 가 있던 단종과도 서로 연락을 취해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때 밀통한 루트가 바로 비봉산성 북쪽 길을 통해 관적령을 넘어 영월로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결국 순흥부사 이보흠과 모의하여 고을 군사와 향리를 모으고 경상도 사족들에게 격문을 돌려 단종복위 운동을 꾀했으나 밀고로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 순흥도호부가 폐지되고 이때 죽은 지역 사람들의 원혼이 지금도 청다리 일원을 떠돈다고 한다.

순흥에서 내죽을 지나 국망봉 동남사편을 올라 성골계곡을 거쳐 영춘과 영월로 가는 길은 현재 폐쇄된 통로이지만 과거 순흥과 영춘을 잇는 최단거리 고갯길이었다. 이 길은 고대에 신라가 고구려를 치러 간 길이기도 했다.

신라 북진정책의 요충지, 온달산성과 적성산성

단양 영춘에는 온달산성이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성산성(城山城)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을아조(乙阿朝)를 지키기 위해 온달이 축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로부터 온달산성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온달 장군이 영양왕 초인 590년 무렵에 계림령·죽령의 서쪽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천명한 후 아단성(阿旦城) 아래에서 신라군과 싸우다 유시(流矢)•에 맞아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양의 영춘이 고구려의 을아단현(乙阿旦縣)이었으므로 을아조는 을아단으로, 온달이 전사한 아단성은 이곳 온달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벽 하단에서 경사를 줄여 덧쌓은 기단의 축성 형태는 신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더군다나 독특하게 툽 불거진 성벽 동쪽에서 남한강 쪽인 북서쪽을 응시하고 있는 생김새는 고구려가 만든 산성이라기보다는 신라에 의해 만들어졌을 확률을 높게 하고 있다. 아마 온달이 이곳에서 싸우다가 전사했기 때문에 그 애뜻한 사연으로 인해 온달산성이라 불려온 듯싶다. 이때부터 고구려는 소백산맥 지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고구려와 백제는 지속되는 전투를 벌여왔다. 371년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올라가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인 후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장수왕 때인 475년 개로왕이 죽임을 당해 고구려에 의한 양갈음이 100여 년 만에 이루어진다. 이후 백제가 성왕 때에 이르러 신라와 가야 그리고 왜까지 동원해서 다시 고구려와 결전을 벌이는 설욕전을 치른다. 이처럼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의 한반도는

• 유시
목표를 빗나간 화살.

고구려와 백제의 격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뿔싸, 눈치 채지 못한 것이 그동안 나약하다고 여긴 신라의 성장이었다. 6세기 들어와서 신라는 점차 세력을 규합하여 강성해졌고 이때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상쟁했다. 백제는 드디어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 신라는 죽령 이북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때 단양 지역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교두보 중 하나가 적성산성이었다. 온달산성에서 굽이굽이 남한강의 남서쪽으로 가다 보면 나타나는 적성산성은 북으로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서쪽을 응시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죽령을 잇는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하고 있다. 깊은 물과 거대한 준령으로 둘러싸인 요충지이다.

성벽 하단의 경사를 줄여 덧쌓은 기단의 축성 형태는 신라식이며 성내에서 발견되는 신라의 토기 조각 등으로 미루어 짐작해도 적성산성은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정책의 전초기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곳에 전승비로서 적성비를 세웠을 것이고, 신라의 국경 개척을 기념함과 동시에 충성을 바친 적성사람의 공훈을 표창해 민심을 안심시켰을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진흥왕 12년(551년) 거칠부(居漆夫) 등 여덟 장수에게 명하여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략, 죽령 이북 열 고을을 탈취했다고 하고 있지만, 적성비에 등장하는 이사부·비차부·무력 등의 관등이나 활동시기를 통해 좀 더 이른 545~550년 전후에 적성산성을 점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사통팔달 적성산성의 접수는 이후 신라가 백제까지 치고 한강 하류 지역을 점유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세기 들어 신라는 소백산맥을 넘어 동쪽으로는 관적령을 통해 온달산성으로 진출했고, 서쪽으로는 영주에서 죽령을 통해 적성 방면으로 나갔으며, 또 별재를 넘어 단양의 독락산성을 통해 적성산성으로 치고 나갔다.

어느 틈에 소백산맥을 휘돌아 적성산성에까지 오는 동안 삼국의 일진일퇴 형국이 또렷하게 머릿속에 그려진다. 적성산성의 돌담을 걷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신라가 크게 성장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자문하게 된다. ❶

사통팔달 적성산성을 접수한 신라

• 결절점
맷힌 점. 매듭을 의미함.

감성적인 불교 건축과 이성적인 유교 건축

집이 집주인의 생각을 담보하여 지어지듯이, 사찰은 건립 당시 종파의 이념을 반영하여 지어진다. 그것은 유교의 사립 강학기관인 서원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사상에 따라 지어진 건축들은 저마다의 이념을 드러내는데, 영주에는 삼국시대에 세워진 부석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있어 흥미롭다. 더구나 소수서원이 지어진 곳은 부석사 못지않은 사찰이었던 숙수사가 허물어진 자리이기도 하다.

●
가산
산 모양이 되도록 인공으로
돌과 흙을 쌓아서 만든 산.

예제
의례(儀禮)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배치를 말함.

무엇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불교와 유교는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룬다. 더불어 길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도교적인 요소까지 우리 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 문화가 자리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시대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생활을 지배한 종교적 중심이었으며, 승유억불 정책이 이루어진 조선시대에도 면면히 그 명맥을 이어왔다. 불교와 달리 유교는 치세(治世)의 학문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신진사대부가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꾸며 건국한 조선시대에 유교는 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 문화와 생활 깊숙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룬 불교·유교·도교 사상은 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길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도교 사상은 자연과 벗하고자 하는 심성의 발로로서 원림(園林) 조성의 근거가 되었다. 신라 안압지의 경우 연못 속에 있는 세 개의 섬은 각각 도교에서 말하는 봉래와 방장, 영주라는 세 개의 삼신산(三神山)을 표방하며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궁궐과 주택에 조성된 많은 연못과 가산(假山)●, 조선시대에 유행한 일종의 별장 건축이라 할 수 있는 별서(別墅) 건축 역시 도가적인 풍류(風流)와 연관해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교 사상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삼은 교종(敎宗)이 주류를 이룬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때까지 도시 안 평지에 조성된 사찰은 탑과 금당(金堂)·중문·강당 등 중심 건물들이 일직선의 축을 형성하면서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통일신라 후기로 가면서 점차 수행을 중심으로 한 선종(禪宗)이 주류를 이루고, 산속에 사찰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사찰 배치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산비탈에 사찰을 조성하면서 지형의 흐름에 맞추어 건물들을 배치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많은 사찰이 이런 모습이다. 산비탈 지형에 맞추어 비교적 자유롭게 배치한 사찰들의 모습에서 감성적인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유교 건축은 예제(禮制)●를 근간으로 삼아 불교 건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제에 맞는 엄격한 틀을 지닐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지금도 수없이 남아 있는 향교와 서원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엄격한 격식을 지닌 유교 건축에서는 당연히 이성적인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논리를 지닌 불교와 유교 건축은 우리의 건축을 보다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나라 곳곳에 불교와 유교 건축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중 영주는 그것을 대표하는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있어서 서로 상반된 논리의 건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부석사다. 왼쪽 맨 뒤가 무량수전이며 그 앞이 안양루이다. 석축을 사용하여 법계로 오르는 느낌을 살렸다.



소수시원은 본디 사철이 있던 자리다. 그곳에 유교식 서원을 건립하여 공간 배치가 사철이나 전통 서원과는 다르다.

천년에 걸친 시간의 교감, 부석사

부석사는 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의상대사가 처음 창건한 부석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에서는 처음 창건되었을 당시의 부석사는 암자와 같은 작은 사찰이었을 것이며, 8세기경에 와서야 큰 사찰로 경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부석사는 산비탈에 건물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이용해 여러 단의 웅장한 축대를 쌓은 점이 인상적이다. 이 석축과 함께 당간지주와 석등 그리고 삼층석탑 등이 남아 있다. 이 석조물들이 창건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8세기에는 석축과 함께 이 석조물들이 구성되어 있었다. 무량수전과 조사당을 비롯하여 현존하는 목조건축은 모두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지었다. 무량수전은 고려 말 14세기 건물이며, 조사당은 여말선초의 건물로 추정된다. 반면 종각과 안양루는 조선 후기인 17세기에서 18세기에 지어진 건물들이다. 신라 때 만든 석축과 그 위에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지어진 무량수전과 조사당, 그리고 조선시대 말에 지어진 안양루와 종각은 부석사의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그러한 부석사를 오르기 위하여 산을 돌아들면 절의 입구를 상징하는 일주문이 나온다. 일주문을 지나 은행나무가 좌우로 도열한 길은 다시 오른편으로 꺾이고, 멀리 천왕문이 보인다. 천왕문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그 가운데에 난 빈 공간이 액자를 이루면서 형성하는 경관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어지는 웅장한 축대의 계단을 오르면서 계속해서 느낄 수 있다. 멀리서는 살짝 보이던 종각의 지붕은 축대의 계단으로 다가감에 따라 시야에서 사라진다. 다시 계단을 오르면 어느덧 웅장한 종각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종각 아래를 통과하면서 다시 그 끝에 만들어진 액자를 통해 멀리 안양루와 석축이 보이고, 그 뒤로 살짝 무량수전이 보인다. 안양루는 종각과는 축(軸)을 달리하고, 종각에서 안양루에 이르는 길은 꺾여 있어 종각에서 안양루에 이르는 동안 앞에 펼쳐지는 경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높은 축대 위에 세운 안양루에 다다르면 높직한 안양루가 시선을 압도한다. 다시 안양루 앞의 계단을 따라 오르면서 누 아래 열린 부분이 액자를 이루는데 이곳을 통해 석등과 무량수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입구에서 무량수전에 이르는 길을 걷다 보면 앞에 펼쳐지는 경관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비탈면에 만든 축대와 건물이 만들어내는 높이의 변화, 그리고 지형에 맞추어 건물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무량수전 앞에 이르러 올라온 길을 되돌아보면 첩첩산중이 발아래 펼쳐진다. 해 질 녘 이곳에 울려 퍼지는 사물(뽕종·뽕고·뽕어·운판) 소리는 발아래 펼쳐지는 저녁노을과 함께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며, 운해(雲海)라도 펼쳐지면 장관을 이룬다.

자연과 건축의 절묘한 어우러짐

무량수전에 오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유로운 모습과 무량수전 앞에서 내려다보이는 첩첩산중의 경관에서 불교 건축의 감성적인 측면을 느낄 수 있다. 부석사에서 신라 때의 석축과 고려시대에 지은 무량수전, 조선시대에 지은 종각과 안양루 등 오랜 시간의 차이를 지닌 석축과 건물들이 서로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간적 차이는 천년에 이른다. 이렇듯 부석사는 천년에 걸친 교감(交感)을 통해 이루어진 사찰이다.

자유로운 공간배치를 한 소수서원

유교는 예(禮)와 경(敬)을 근간으로 하며, 그 실천 덕목으로 교화(敎化)를 중요하게 여겼다. 조선시대 전국 곳곳에 수많은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을 지은 이유이다. 향교는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지방에 세운 중등교육기관이다. 서울에는 향교에 대응하는 사부학당(四部學堂)•을 세웠고, 오늘날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었다. 성균관과 사부학당, 향교는 ‘문묘(文廟)’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교육기관이지만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유교 성현과 함께 우리나라의 성현 열여덟 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다. 이들 성현의 위패를 모시는 건물을 대성전(大成殿)이라 부른다. 반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중심 건물로 명륜당(明倫堂)이라는 건물이 있다.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 외에 조선시대에는 사립 교육기관으로 전국 곳곳에 수많은 서원을 지었다. 서원은 학덕이 뛰어난 인물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그분을 기리면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학교이다. 이렇게 지은 서원 중에 가장 오래된 서원이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이다. 소수서원은 고려 때 학자인 안향(安珦)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서원으로, 조선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후신이다. 이후 1550(중종39)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退溪) 이황이 경상감사 심통원을 통해 임금에게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다. 이로써 소수서원은 최초로 나라의 공인과 지원을 받는 사액(賜額)서원이 되었다.

서원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강학(講學)공간과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공간으로 구성된다. 강학공간은 강당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장판과 책을 보관하는 장판각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추가하여 누각을 짓기도 한다. 제사공간은 선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중심 건물이 된다.

일반적인 서원은 비탈면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지형이 높은 곳을 격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지형이 낮은 앞쪽에 강학공간, 높은 뒤쪽에 사당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향교와 마찬가지로 강학공간과 제사공간을 하나의 축(軸) 위에 대칭으로 배치한 경우가 많다.

• 사부학당
조선시대 중앙의 4부(部)에
설치된 관립 교육기관으로
사학(四學)이라고도 함.



무량수전 안에서 내다본 모습이다. 여름이면 무량수전은 문을 들어 올려서 환기와 채광을 꾀하고 더위마저 식힌다. 이를 들어서 연다고 해서 ‘들어열개’ 혹은 ‘들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문을 드는 것과는 달리 환기와 채광을 위한 들창도 있었다. 대개 문보다는 위에 있는 작은 형태의 창이며, 들문처럼 들어 올려서 걸쇠에 거는 것이 아니라 막대 같은 것을 이용하여 문을 받쳐놓는 정도였다.



소수서원의 지락재(至樂齋)는 기숙사와 같은 곳이었다. 학생들이 머물렀으며, 스승들은 직방재·일신재(直方齋·日新齋)에 기거했다. 지락재는 ‘배움의 깊이를 더하면 즐거움에 이른다’는 뜻으로 양고재(仰高齋)라고도 했으며, 지락재와 같은 용도의 건물은 학문을 구한다는 뜻으로 이름 지어진 학구재(學求齋)이다. 온돌방과 마루 그리고 온돌방으로 이어지는 세 칸 건물은 진리를 상징한다.



이렇듯 끊임없이 계단을 올라야 하는 까닭은 부처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학구재 또한 학생들이 머물며 공부를 하던 곳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은 배흘림(Entasis)이다. 배흘림은 둥근 기둥의 가운데 부분을 미묘하게 볼록하게 만들어놓은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 아름다운 것은 기둥이 상층부(지붕)의 무게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또한 가운데 배를 부르게 해놓아서 무거운 팔작지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인다.



사찰에도 장서각이 있다. 그중 하나가 해인사 백련암의 장서각이다. 그러나 사찰에 꼭 장서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유교식 건물에는 반드시 장서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책을 보관하는 장서각 외에도 책을 적을 수 있는 나무판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다. 불교나 유교를 가리지 않고 판각을 보관하는 데 신경을 썼으며, 그러한 판전은 불교 쪽에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만큼 예제에 따라 엄격함을 갖춘 이성적인 공간을 만든다. 그러나 소수서원은 이러한 유교 건축의 엄격한 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최초로 지은 서원으로서 아직 유교 교육기관으로서의 배치가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소수서원은 이후 지어진 일반적인 서원과는 전체적인 배치가 남다르다.

소수서원은 산으로 감싼 아늑한 곳, 계곡이 휘돌아 감은 풍광 좋은 터전에 위치하고 있다. 물가의 풍광 좋은 곳에는 자연과 벗하며 학문을 닦고 휴식을 하기 위해 정자를 만들어놓았다. 강당과 사당 등이 있는 서원의 중심 공간은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조성했다. 협문[●] 형식의 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 중앙에 강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뒤편으로 스승이 기거하던 일신재와 직방재가 있다. 다시 그 옆으로는 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학구재와 지락재가 있다. 반대편에는 판각과 서책을 보관하던 장판각이 있으며, 그 옆으로 담장을 둘러 별도의 영역을 만든 속에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강당은 동향이지만 진입할 때의 정면을 고려하여 앞(동)과 뒤(서), 그리고 옆(남)에 넓은 마당을 두었을 뿐 아니라 건물도 세 면에서 모두 정면성이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건물들은 강당 측면에 배치했으며, 사당은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여 남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서원의 건물 배치는 일반적인 서원의 배치와는 차이가 많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의 아름다움

불교와 유교 건축은 그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형식과 꾸미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불교 건축은 부처와 보살을 모시는 전각을 중심으로 기둥 위에 격식이 높은 공포[●]를 구성하고 내외에 화려한 단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유교 건축으로서 서원은 절제된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당은 단청을 하지만 그리 화려하지 않고 기둥 위에 간단한 형식의 공포를 꾸민다. 강당은 단청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 밖의 건물은 단아하고 절제된 형식으로 만들 뿐 아니라 단청도 배풀지 않는다.

소수서원의 경우 강당은 단청을 하였지만 기둥 위에는 초익공식(初翼工式)[●]이라 부르는 간단한 구조 형식으로 만들어 화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부는 넓은 대청을 두어 강학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 스승이 기거하는 일신재와 직방재, 학생들이 기거하는 학구재와 지락재는 매우 간소한 형식으로 전혀 꾸밈이 없는, 작고 소박한 구조와 형식을 지니고 있다. 사당 역시 단청을 하기는 했지만 초익공식의 절제된 구조 형식을 채용했으며, 앞쪽에는 개방된 퇴를 두고 뒤쪽은 양 측면과 후면을 벽으로 막은 감실형으로 만들어 전형적인 사당의 형식을 지니도록 하였다.



소수서원의 시작은 백운동서원이었다. 이를 퇴계 이황이 1549년에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게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우주(大宇宙)·중우주(中宇宙)·소우주(小宇宙)라는 말이 있다. 대우주는 대자연을 말하고, 소우주는 소아(小我), 즉 사람을 말한다. 중우주는 집을 일컫는다. 우주(宇宙)라는 한자어도 ‘집’이라는 뜻을 지닌다. 집은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우리나라 건축에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건축이든, 유교 건축이든 집이 지니는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불교 건축은 감성적인 면이 많아 배치와 건물의 형식, 그리고 그 꾸밈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움이 존재한다. 반면 유교 건축은 예제에 따른 엄격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불교 건축에서는 자유롭고 감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반면, 유교 건축에서는 엄격하고 절제된, 이성적인 느낌이 강하게 풍긴다. 불교와 유교 건축의 차이는 우리 건축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㉞

● 협문
대문이나 정문 옆에 있는 작은 문.

● 공포
전통 목조건축에서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를 짜맞추어 낸 나무 부재(部材).

● 초익공식
기둥 위 새 날개 형태의 장식인 익공(翼工)을 하나만 설치한 것.

영험한 바위에 부처를 새기다

소백산 기슭인 경북 영주시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마애불은 모두 여섯 구이다. 이는 경주나 지리산 기슭인 전북 남원시 그리고 신라 오악 중 하나였던 경북 팔공산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또한 영주시의 마애불 중 보물 제221호인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은 남다르다. 마애불이 새겨진 바위에는 청동기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짐작되는 암각화가 베풀어져 있기 때문이다.



보물 제221호인 가흥동 마애삼존상과 마애여래좌상

물가 바위의 신성성

암각화(岩刻畵, 바위그림, Petroglyphs)는 선사시대를 살아간 고대인들의 주술과 기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바위에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해놓은 것이다. 그러한 도상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며 영주 가흥동의 암각화는 인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되는 패형(牌形)이 반복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패형이나 방패형(防牌形)들은 인물을 형상화하여 신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이는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시대보다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청동기시대 농경사회에서 보이는 것이다. 수렵과 채집 시대에는 울주 반구대암각화에서처럼 사냥과 채집의 대상을 바위에 새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영주 가흥동의 암각화는 농경사회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새겨진 바위의 입지조건도 얼추 들어맞는다.



농경이 시작된 청동기시대에 다다르면 물의 필요성에 따라 물가의 신성한 바위에 이처럼 신앙의 대상을 새기곤 했다.



보물 제680호 영주 신암리 마에여래삼존상이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왼쪽 면에 새기다 만 부처가 있고, 또 다른 면에도 마치 무엇인가 새겨놓은 것 같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신라에서 보이는 사면불일 가능성도 있다. 형체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대략 7세기에 새겨진 것으로 짐작된다. 본존은 앉아 있으며 협시는 서 있는 형태이다. 본존의 상호가 큼지막하여 가까이에 있는 가흥동 마에삼존상과 닮은꼴이다.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물은 절대적으로 신성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물 가까이 있는 바위를 택하여 그림을 그리는 의식을 행하며 자신의 기원을 전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가흥동 암각화 또한 바로 앞으로는 영주의 가장 중요한 물줄기인 서천이 흐르고 있으니 암각화가 새겨진 큰 바위는 농경사회의 구성원들이 기원을 올리는 신성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거석(巨石) 숭배사상은 초기 신앙의 형태 중 하나였다.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되고 불교가 공인되자 함께 전해진 갖가지 불교문화 중 마애불(磨崖佛)이라는 독특한 양식이 전해졌다. 한반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전해진 마애불은 자연 암벽에 부조나 선각[●]으로 부처의 모습을 새기는 것을 말한다.

마애불이 전래될 당시 산둥반도에는 석굴사원이 유행하고 있었고 석굴 벽에 부처나 보살을 새기곤 했다. 그에 따라 산둥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태안반도로 바위벽에 부처를 새기는 방식이 전래되었으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백화산 기슭의 바위에 부처를 새기곤 그 앞에 전각을 지어 마치 석굴인 것처럼 가꾼 것으로 보인다. 처음 새겨진 것으로 알려진 국보 제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은 삼존불이라고는 하지만 각각 그 부처의 존명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하지만 백화산 마애불을 시작으로 그다음에는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이 새겨진 것으로 짐작한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마애불의 시작은 삼국시대였다. 하지만 영주 지역을 대표하는 마애불 중 영주 가흥동 마에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과 보물 제680호 영주 신암리 마에삼존상은 모두 통일신라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앞서 말했듯 이미 거석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암각화가 새겨진 신성한 바위에 새롭게 맞아들인 부처를 새겨서 자신들의 염원을 기원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신앙심은 영주 신암리 마에여래삼존상으로 이어져 산기슭 큰 바위의 사면에 모두 불상을 새겼다. 그러나 지금은 삼존상만 그 형체가 남아 있고 서쪽 면에는 새기다 만 불상이 남아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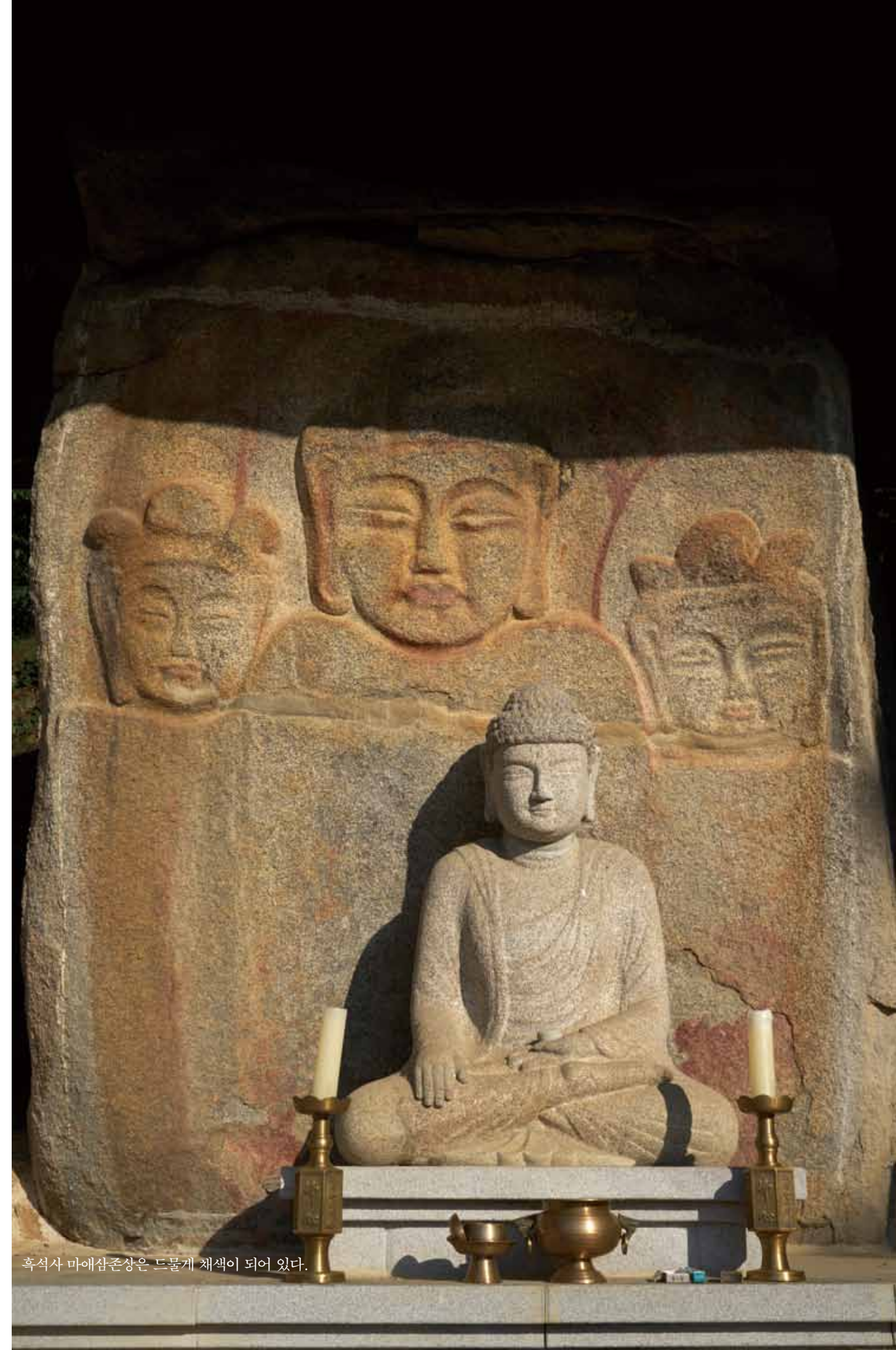
독특한 마에보살입상

이처럼 통일신라시대 초 영주 지역에 새겨지기 시작한 마애불은 봉화군까지 이어진다. 신암리에서 15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에 국보 제201호 봉화 북지리 마에여래좌상이 있다. 또 지금은 경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졌지만 북지리에서는 하반신과 연화대좌만 남은 거대한 보물 제997호 석조반가상(石造半跏像)이 출토되기도 했다. 더불어 의상대사가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소백산 자락의 초암사에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이 모셔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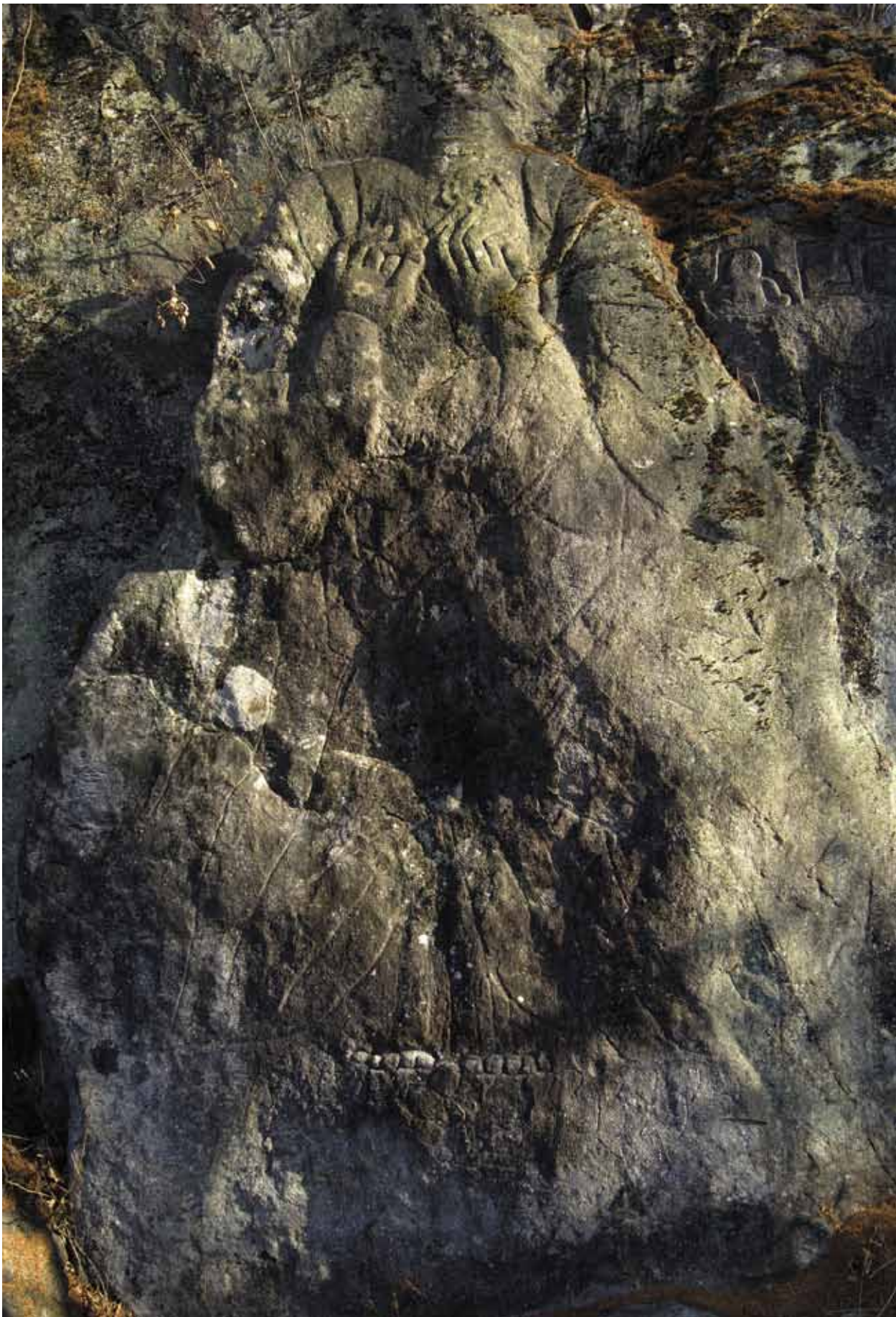
● 선각
선으로 새김. 또는 그런 그림이나 무늬.



영풍 두월리 마애약사여래상이다. 왼손에 약합을 들고 있으며, 가슴 아래는 새기다 만 느낌이다.



흑석사 마애삼존상은 드물게 채색이 되어 있다.



강동리 마에보살입상은 한겨울이 되어야 해가 든다. 가슴에 모은 손가락 끝에 지물이 보이며, 왼쪽 어깨 옆에 감실이 보인다.

●
약합
약을 담는 그릇. 높지 않고 둥글넓적하며 뚜껑이 있다.

화염문
타오르는 불꽃을 묘사한 무늬.

그렇다면 부석사가 창건된 7세기 후반, 통일신라의 가장 북방이던 영주 일대에는 불교문화가 찬란하게 빛났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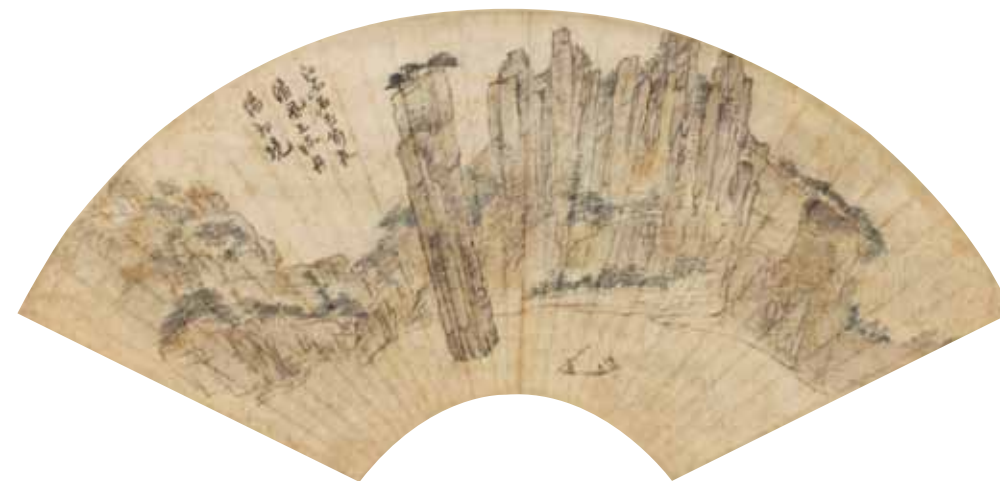
마애불은 산중 바위에 새기기도 했지만 평지에 새기는 것도 많았다. 산중 바위에 새긴 것들은 대개 그 산의 정상을 기준으로 8부 능선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주는 소백산이라는 큰 산의 기슭임에도 마애불들을 거의 평지에 새겼다. 앞에 말한 가흥동과 신암리는 물론이며, 그 외 흑석사 마애삼존불이나 영풍 월호리 마애석불좌상, 왼손에 약합●을 들었지만 미완성 마애불인 영풍 두월리 약사여래석불 그리고 서천을 사이에 두고 가흥동과 마주보고 있는 영주 휴천동 마애여래좌상 또 영주에서는 유일하게 보살을 새긴 영주 강동리 마에보살입상 등 모두가 산이라기보다는 마을 가까운 곳에 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중 두월리 마에약사여래입상과 흑석사 마애삼존불은 부처의 시선이 서로 다르다. 두월리 마애여래입상은 바위가 뒤로 젖혀져 있어 시선이 허공을 붙들고 있지만 흑석사 마애삼존불은 자신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지긋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흑석사 마애삼존불은 채색을 한 흔적이 남아 있는 그리 많지 않은 마애불 중 하나에 속한다. 가흥동과 신암리 마애삼존불들처럼 통일신라시대 초에 새겨진 것들 외에는 모두 고려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마애불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그중 가장 특이한 것은 강동리 마에보살입상이다. 평은면 강동리 왕유마을의 야산 기슭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보살상은 몸통은 자연 암벽에 새기고 머리 부분은 따로 환조로 새겨 올려놓은 방식이다.

그러나 강동리의 보살입상은 머리 부분을 끼웠던 홈은 남아 있지만 실제 두상은 사라지고 없다. 그런데 6미터에 달하는 이 거불을 보살상이라고 보는 까닭은 손에 지물(持物)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발가락 부분은 부조 그리고 몸통 부분은 선각으로 표현한 독특한 조각 방식으로 팔꿈치 부분부터는 다시 부조이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막대와 같은 것이 왼손 새끼손가락 위로 지나가고 그 끝에 연꽃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른손 손가락 바로 위에 마치 화염문● 같은 것들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이외에도 이 마에보살상은 의문투성이다. 보살상의 왼쪽 어깨부분의 암벽에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한 감실과 같은 것이 연이어 네 개나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작은 감실 안에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들까지 새겨져 있어 더욱 그렇다. 또 마애불의 오른쪽 아래에는 부행(釜行) 혹은 전행(釜行)으로 판독되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따르면 이 마애불을 조성한 사람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신빙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그렇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엄정함으로부터 고려시대의 분방함까지 다양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마애불 순례는 영주를 느끼는 또 하나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

단양·청풍·영춘·제천은
사군(四郡)이며, 이곳의
산수풍경을 일컬어
사군산수 혹은
사군강산이라고 했다.
그 아름다운 산수 속으로
유람을 떠난 사대부들은
앞 다투어 시문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
내로라하는 화가들 또한
사군산수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유람하는
모습을 그린 이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풍경의 완성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속에
사람이 등장하건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진 말이다.

화가와 시인이 사랑한 단양팔경



이윤영, 〈옥순봉도〉, 종이에 담채, 27.3×58.7cm, 고려대학교박물관

붉은 햇살이 비치는 땅 단양. 단양만큼 빼어난 풍경으로 문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지역도 드물다. 이곳은 퇴계 이황을 비롯해 삼연 김창흡·우암 송시열·다산 정약용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사상을 불문하고 문사들에게 사랑받아온 장소이다.

산수로 이름난 단양에서도 명소라면 으뜸은 단양팔경이다. 단양 천의 맑은 물과 수려한 바위 중에서 여덟 곳만을 엄선한 팔경이란 도담 삼봉·석문·구담봉·옥순봉·사인암·하선암·중선암·상선암을 일컫는다. 그런데 옛 그림 중에 〈단양팔경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으레 팔경 하면 전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간혹 근래에 만들어진 팔경도 없지 않다. 단양팔경이 그중 하나이다. 옛 그림에서 〈단양팔경도〉를 찾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해서 눈썰미 좋은 조선의 화가들이 단양의 비범한 풍경을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린 단양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의 단양팔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보는 눈은 비슷한 것이 아닐는지.

단양을 사랑한 두 친구의 우정

단양과 인연을 맺고 그 풍경에 매료된 화가 중에 능호관(凌壺觀) 이인상(1710~1760)이 있다. 그는 영조 때의 이름난 문인화가이다. 이인상은 서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탓에 세속적인 의미에선 크게 출세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선비로서의 올곧은 기상을 추구한 화가였다. 그에게 단양 풍경의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이끈 사람은 평생지기인 단릉(丹陵) 이윤영(1714~1759)이었다. 이윤영은 명문가의 자제였지만 일찍부터 스스로 관직에 나가길 포기했다.

대신 친구들과 함께 학문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은자의 삶을 선택했다. 단양의 수려한 풍경에 심취한 그는 구담봉(龜潭峰) 부근에 우화정(羽化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살았다. 자신의 이름도 ‘단릉산인(丹陵散人)’이라고 불렀다.

이인상도 이 친구와 함께 구담에 은거하기로 마음먹고 집자리를 정해 다백운루(多白雲樓)란 이름까지 지어놓았다. 그러나 집안이 여윌 수 못한 데다 연로한 노모가 있어 좀처럼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음으 로만 머물던 곳이었기 때문인지 이인상이 그린 단양 그림은 찾기 어렵다. 대신에 아미추어 화가이기도 했던 이윤영이 그린 〈옥순봉도〉라는 그림이 전한다. 부채에 옥순봉을 담담하게 그렸다. 실제 정치와 비교하면 조금 다르게 보인다.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열을 지어 선 옥순봉 중에서 봉우리 하나만을 유독 떼어내어 강물 가운데 세워놓았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옥순봉과 등을 맞대고 선 구담봉 곁에 살던 이윤영이 고 보니 옥순봉의 생김새를 몰라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나무의 새순을 닮아 ‘옥순’이라고 불리던 기암의 형상을 친구들에게 잘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을지.

어느 날 이인상은 김종수(金鍾秀, 1728~1799)와 함께 이윤영의 우화정을 방문했다. 김종수는 훗날 정조의 조정에서 크게 신임을 받으며 우의정에 올랐던 인물이다. 셋은 이 방문을 기념해 사인암에 대한 시를 지어 석벽에 남기기로 했다. 지금도 사인암에 가면 측면의 그늘진 곳에서 이인상이 남긴 시를 볼 수 있다.

繩直準平 먹줄처럼 곧고 수준기처럼 평평하며
玉色金聲 옥처럼 변치 않고 징소리처럼 맑구나
仰之彌高 우러러보니 아득히 높아
魏乎無名 우뚝하여라! 이름을 부를 수 없네

사인암 뒤편 청련암에서 삼성각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에선 이윤영이 새긴 시 두 행을 읽을 수 있다.

獨立不懼 홀로 서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고
遯世無悶 세상에서 숨으니 근심할 것이 없다

세상을 굴복시킨 김홍도의 그림

단원(檀園) 김홍도(1745~1805 이후)는 만년 들어 자신이 그린 그림 한켠에 ‘단구(丹丘)’나 ‘단노(丹老)’라는 이름으로 사인하길 즐겼다. 단구는 본래 신선이 사는 땅을 의미하는데 한편으론 단양의 옛 이름이기도 했다. 김홍도가 둘 중 어떤 의미에서 단구를 이름으로 선택했는지는 분명하

지 않다. 그러나 단양 그림 하면 곧 김홍도의 그림을 떠올릴 정도로 단양과 단원은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졌으니 그 이름이 여기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김홍도와 단양의 인연은 괴산의 연풍현감으로 부임하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나라 안의 최고 화가로 이름을 날리던 단원은 굵직한 국가사업에 번번이 차출되어 활약했다. 화원은 본래 궁정 부근의 도화서 소속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면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의 관직에 제수되기도 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지방관에 부임했으나 화원으로서의 예외적인 편이었다.

한때는 왕실의 목장을 관리하는 울산감목관에 부임한 적도 있으며, 대구 인근의 안기역을 지키는 역장적인 안기찰방에도 부임했다. 1791년엔 정조의 41세 어진 제작에 참여한 공로로 마침내 연풍현감의 자리가 주어졌다. 감목관이든 찰방이든 현감이든 모두 종육품으로 동일한 품계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는 관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고을이라도 현감은 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어엿한 목민관이다. 과거에 합격한 양반들이 부임하는 자리였으니 현감직은 김홍도에게도 영예로운 일이었다. 그런 김홍도가 자신의 이름을 ‘연노’가 아니라 ‘단노’라 칭했다면 화가로서 단원에겐 연풍보다 단양이 더 의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풍은 단양과 인접해 있다. 자동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 김홍도는 현감 시절 정조의 명령으로 단양 일대를 그려 진상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국왕에게 바칠 그림을 위해 단양을 자주 오갔을 것이다. 김홍도가 진상한 그림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이때 그린 그림의 면모는 다른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도의 그림 20여 장을 모아 엮은 『병진년화첩(丙辰年畫帖)』이다.

이 화첩의 마지막 장인 〈옥순봉도〉에는 ‘병진년춘사(丙辰年春寫)’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다. 요즘 화가들이 작품에 사인을 하듯이 날짜와 이름을 쓴 부분을 전통회화에선 통상 ‘관지(款識)’라고 부른다. 관지를 따라 이 화첩 자체를 『병진년화첩』으로도 부르지만 『단원절세보첩』이란 별칭도 있다. 유명한 서예가인 유한지(兪漢芝, 1760~1815)가 이 화첩에 ‘단원절세보(檀園折世寶)’라고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절세(折世)’는 사전에도 용례가 나오지 않는다. 흔히 사용하지 않던 단어인 것이다. 유한지는 어떤 의미에서 절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첫 번째는 세상에 비길 데 없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동음어 절세(絶世)를 대신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엔 굳이 다른 한자를 쓸 필요가 없이 절세를 ‘절세(絶世)’로 쓰면 된다. 굳이 절(折) 자를 썼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절(折)에는 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굴복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이때 절세(折世)는 세상을 굴복시킨다는 뜻이다.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그림보다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림은 훨씬 강한 감동을 주는 그림이다. 유한지의 뜻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옥순봉도

김홍도,
『병진년화첩』,
1796년,
종이에 담채,
26.5×31.5cm,
개인소장



사인암도

김홍도,
『병진년화첩』,
1796년,
종이에 담채,
26.5×31.5cm,
개인소장



구담도

이방운,
『사군강산삼선수석첩』,
1802~1803년경,
종이에 담채,
26.0×32.5cm,
국립대학교박물관



사인암도

이방운,
『사군강산삼천수석첩』,
1802~1803년경,
종이에 담채,
26.0×32.5cm,
국립대학교박물관

『단원절세보첩』에는 단양팔경 중 〈옥순봉도〉, 〈사인암도〉, 〈도담삼봉도〉가 포함되어 있다. 김홍도의 옥순봉과 사인암 그림은 아마 단양의 실경 산수화 중 가장 눈에 익은 그림일 것이다. 두 그림엔 제목이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린 장소를 알아보는 게 어렵지도 않다. 지형물의 특징이 잘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김홍도는 사실적인 표현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실제 경치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그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그림임이 드러난다. 화면의 옥순봉은 절벽의 좌·우가 칼로 깎아낸 듯이 표현되었지만 실제 경치는 그렇지 않다. 양 측면을 생략하여 옥순봉의 중앙만 집중적으로 그렸다. 30센티미터 안팎의 작은 종이에 옥순봉을 담기 위해 기암의 중심 외에 다른 부분은 모두 생략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니 암벽의 높이가 한껏 고조됐다. 화면 아래의 작은 배와 그 안의 옥순봉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암벽과 대조를 이룬다. 그림 속에서 옥순봉은 우뚝하다 못해 아득히 높아 보인다.

김홍도의 단양 그림이 인상적인 이유 중 하나는 관념적인 회화 못지않은 서정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런 서정은 그가 사용한 표현 형식에서 온다. 칼로 베어낸 듯 날카로운 사인암을 한껏 부드러운 필선으로 묘사했다. 암벽의 상부는 자세히 표현했지만 하단은 간단히 그렸다. 집중과 생략의 묘미를 살려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을 김홍도는 특별히 선호했다. 사진으로 말하면 아웃포커싱이다. 여기에 담백하고 깊은 색감이 우리나라는 섬세한 채색을 더하니 그림에서 자연스럽게 풍경과 교감하는 시인의 정서가 우러난다.

한진호(韓鎭壕, 1792~?)라는 후대 문인이 쓴 사인암 기록엔 당시 김홍도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정조의 명령으로 단양 일대의 산수를 그리던 단원은 사인암에 이르러선 그 뜻대로 그릴 수가 없었다. 10여 일을 머무르며 노심초사하며 그렸는데도 끝내 그 진면목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갔다고 한다. 그림으로 세상을 굴복시킨 천하의 김홍도이지만 단양의 풍경에선 그가 굴복당한 듯하다. 김홍도가 고군분투하며 그린 장소라니 사인암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이방운이 그린 안숙의 풍류

마지막에 이야기할 작품은 기야(箕野) 이방운(1761~1815)이 사군 일대를 유람하고 그린 산수화이다. 기야는 이인상같이 고고한 문인화가도, 김홍도처럼 시대를 풍미한 화가도 아니다. 그의 생애에 관해 전해지는 내용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가 몰락한 양반 출신이며 그림으로 생계를 이어간 여항(隅巷)•의 화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널리 알려진 화가는 아니지만 단양팔경과 관련해서 이방운은 빼놓을 수 없는 화가이다.

● 여항
자대부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방운의 그림으로 청풍부사 안숙(安叔)이 부탁해 만든 『사군강산삼선수석첩(四郡江山參仙水石帖)』이라는 작품이 전한다. ‘사군의 풍경, 세 신선, 그리고 물과 산’을 그린 화첩이란 뜻이다. 화첩엔 시문과 함께 여덟 폭의 그림이 들어 있다. 이 글과 그림은 화첩의 주인인 안숙이 이(李), 장(張)이라는 두 친구와 사군 일대를 두루 돌아본 여행의 기록이다. 제목의 세 신선이란 안숙과 그의 두 친구를 가리킬 것이다. 옛사람들의 여행에는 으레 좋은 친구, 술과 음식, 그리고 서화가 따랐다. 좋은 경치를 만나면 시인은 그 흥을 시로 노래하고, 화가는 그림으로 그렸다. 여행이 끝난 후에 시와 그림을 모아 화첩으로 남기는 일은 세상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가장 멋진 풍류였다.

『사군강산삼선수석첩』에 들어 있는 실경산수화 중 〈도담도〉, 〈구담도〉, 〈사인암도〉의 세 폭이 단양팔경에 속한다. 이방운은 이 그림에서 일반적인 단양 그림에서 볼 수 없는 구도를 사용했다. 한 화면에 한 장소를 그리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도담과 석문을 함께 그리기 위해 도담을 그림 오른쪽에 치우치게 놓았고 석문을 산 정상에 올려놓았다. 사인암에선 암벽의 정면 대신 후면에서 바라보며 그렸다. 조선시대 내내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방운의 그림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10면에 수록된 〈구담도〉이다. 구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진한 먹을 적신 붓으로 죽죽 그어내렸다. 이처럼 바위를 그리는 방법을 도끼로 찍어내린 듯이 붓을 사용했다 하여 ‘부벽준(斧劈皴)’이라 부른다. 이방운은 강한 필치를 사용하는 화가가 아니었다. 그가 유독 구담에서만 부벽준이란 강한 필법을 사용한 것을 보니 여기에서 받은 인상이 상당히 강했나 보다. 그림 속의 구담봉 건너편엔 경치를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는 인물들이 보인다. 안숙과 그의 일행이 아닐까?

元靈鑄墨胤之詩

이인상의 글씨와 이윤영의 시는

鬼慳神秘問石丈

귀신도 아껴 숨기니 들어른에게 물어야겠네

그림 옆에 적힌 안숙의 시이다. 구담을 유람하며 안숙은 여기에 은거하고자 다짐했던 이인상과 이윤영의 옛일을 떠올리고 그들이 돌에 새긴 글을 생각하며 감회에 젖었다. 단양이 아름다운 건 물과 산의 조화로운 풍경 때문이지만 그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건 이곳에 깃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예술이었다. 이처럼 내로라하는 조선의 화가들과 시인들의 사연이 얹힌 단양을 예술의 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㉞



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2층에 앤티크 자전거 전시 공간인
<두바퀴 Bicycle Galle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20여 점의 앤티크 자전거와 관련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람 안내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의: 02-799-7169



人文 風景

아무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어언 100여 년이 지났다.
당시의 치열했던 싸움은 돌로미티에도 무수히 많은 흔적을 남겼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취하여 바위산을 거닐다가 만나는
낮선 풍경들은 ‘전쟁으로부터 평화에게로(From War to Peace)’라는 슬로건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허물어진 요새나 참호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돌로미티의 모습은
자연풍경이 아니라 인문의 풍경으로서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돌로미티 전역에는 전쟁의 흔적이 난무한다. 왼쪽 성벽같이 생긴 구조물이 예전 요새의 흔적이다.





폴가리아(Folgaria)의 포르테 셀르(Forte Cherle, 1445미터)이며, 대공포 진지였다.



몬테 파테르노의 중간 부분에 암벽을 동굴처럼 파서 만든 요새에서 바라본 풍경.



폴가리아 포르테 셸르의 대공포 진지의 망루에서 보이는 산 세바스티아노(San Sebastiano, 1280미터) 마을이다. 돌로미티의 입구라고도 할 수 있는 초입에 위치한 폴가리아에서는 좀더 패스에서부터 드물게 숲이 좋은 길을 걸어서 닿을 수 있는 포르테 줌머 알토(Forte Sommo Alto, 1613미터)라는 대공포 진지에도 갈 수 있다. 비록 숲길은 짧지만 그마저도 돌로미티에 서는 감사한 길이다.

트레치메 디 라브라도가 위치한 지역은 1차 세계대전 돌로미티의 산악전쟁 중에서도 치열했던 곳이다. 빼어난 경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실상 대표적인 전쟁 유적이기도 한 셈이다. 그 때문에 로카텔리 산장 뒤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기는 쉽다. 로카텔리 산장에서 오론조 산장으로 향하는 101번 길 위 절벽에는 군 병력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비아 페라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비아 페라타(Via Ferrata)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알벽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둔 길이다.



요새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객관적이다. 어마 액자가 된 풍경이기 때문이다.



포르테 셸르에서 3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포르테 캄포몰론(Forte Campomolon, 1853미터)이 있다. 1853년에 이미 같은 이름의 요새를 만들었다고 하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은 280밀리미터와 420밀리미터의 곡사포를 동굴 안에 감춰두었다가 공격할 때 꺼내 쓰고 다시 감추곤 했다. 도로에서부터 이곳까지 가는 동안에도 병력들이 주둔했던 곳과 또 다른 곡사포들이 배치되었던 자리들이 눈에 띈다.



새벽녘, 해가 포르테 셀르의 지붕에 비치기 시작하자 콘크리트를 쪼아서 새긴 이름들이 드러났다. 한두 사람이 아니며 이름을 한뼘 한뼘 쪼아서 새긴 것으로 미루어 전쟁이 끝난 어느 날, 당시 이곳에서 근무했던 병사들이 찾아와서 새긴 것으로 짐작된다. 다행히 허물어지지 않은 요새의 벽에도 더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도 모두 후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였다.



포르테 셀르의 모습이다. 전체 길이가 100미터 남짓, 폭은 40미터 남짓하였으며, 사진에 보이는 요새의 뒤로는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섰던 흔적과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가 만들어져 있기도 했다. 요새의 규모로 미루어 가까이에 있는 포르테 줌머 알토보다 더 큰 규모였다.



포르테 셀르 요새에 대공포가 설치되었던 자리이다. 모두 4기의 대공포가 설치되었던 자리가 남아 있었으며, 요새의 한 가운데 지붕에는 회전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공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대공포가 설치되었던 곳로는 각각 지하에서 곧장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었으며, 내부는 모두 허물어져 들어갈 수가 없었다.



요새도 산악부대는 여전히 돌로미티에서 훈련을 한다. 천케 토리에서도 며칠 동안 머물며 훈련을 하더니 다시 팔자레고 패스와 발파롤라 패스 그리고 사스 데 스트리아 봉의 중간에서도 훈련을 했다. 일반인들과 같은 캠핑장에 머물며 훈련을 하는 그들은 무거운 방탄모 대신 암벽등반용 헬멧을 썼고, 신발은 모두 등산화였다.



코르티나 담페초의 포콜(Pocol)이라는 곳에서 팔자레고 패스로 오르는 길에 흥미로운 구조물이 있어 가까이 가보니 건물의 계단이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에 무너진 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었다. 사진을 찍고 그 위로 올라가보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남겨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발파롤라 산장이 있는 지역에도 오스트리아군의 요새가 있었다. 고갯마루에는 큰 요새의 건물을 고쳐 박물관을 만들었고, 산 아래의 작은 요새들도 모두 복원해놓았다. 그곳으로 이탈리아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온 것 같았다. 미리 가이드를 신청하면 당시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내려와 설명을 해주었다.



산 아래 작은 참호들이 무수히 많았다. 산 아래는 약간의 초원지대였지만 그곳에 불거진 바위 곁에는 어김없이 작은 참호들이 들어서 있었다. 또 건물들은 잠자는 곳을 비롯해 식당과 화장실 그리고 의무실과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나뉘어 있었다. 잠자는 곳은 일고여덟 명 정도가 누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참호들은 이렇듯 교통호로 연결되어 있다. 급경사를 이룬 산 중턱에 성과 같이 교통호를 파고 이동하며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전투를 벌였을 것이다. 이처럼 동굴을 팔 수 없는 지역들은 교통호를 뚫는데 요새 건물을 복원한 발란도르 산장 뒤에도 돌로 쌓은 작은 성처럼 교통호가 파여 있다.

검은 깃털과 에텔바이스

1868년 주세페 도메니코 페룰루체티(Giuseppe Domenico Perrucchetti, 1839~1916) 장군은 산악전문 보병부대의 창설을 주장했고, 4년 뒤인 1872년 이탈리아 북부 국경을 경비하기 위한 부대인 알피니(Alpini)가 창설되었지만 당시는 민병대 수준이었다. 대개 거대한 바위 봉우리로 형성된 이탈리아 북부는 지금 레저 스포츠의 천국이 된 돌로미티라고 부르는 지역이며,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주민 중 지형을 꿰고 있는 사람이거나 암벽을 쉽게 오를 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은 모두 검은 까마귀의 깃털을 꽂은 모자를 쓴 민병대가 되었다. 서슴없이 ‘아무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Di Qui Non Si Passa!)’고 말하는 이들을 ‘검은 깃털(Le Penne Nere)’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그것은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이탈리아의 산악부대에 맞설 수 있는 전문 부대가 필요했고, 그들은 높은 산에 피는 에텔바이스 꽃을 상징으로 삼은 군복을 입기 시작했다. 그들 또한 민병대인 것은 마찬가지였으며, 에텔바이스가 새겨진 모자에는 검은 뱀뿔[●]의 깃털을 꽂았다. 그런 군복을 입은 고산 민병대 중 제프 이너코플러(Sepp Innerkofler, 1865~1915)가 있었다. 그는 1869년 치마 그란데 디 라바레도(Cima Grande di Lavaredo, 3003미터)를 처음으로 오른 프란츠 이너코플러(Franz Innerkofler, 1834~1898) 집안이기도 하다. 프란츠는 폴 그로만(Paul Grohmann), 피터 쉘츠(Peter Salcher)와 짝을 이뤄 치마 그란데 디 라바레도뿐 아니라 3145미터의 푼타 데이 트레 스카르페(Punta dei Tre Scarperi), 사쏠롱고(Sassolungo, 3181미터)와 같은 돌로미티를 상징하는 거봉들을 처음으로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제프 또한 프란츠 못지않은 암벽 등반가였으며, 1890년에는 이미 오스트리아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산악가이드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1903년에는 산악인들을 위한 로카텔리 산장(Rifugio, A.Locatelli-S. Innerkofler)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10년 뒤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돌로미티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혈투를 벌이는 격전장이 되었다. 당연히 두 나라의 산악부대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결전을 치렀고, 제프 또한 조국을 위하여 전쟁에 나섰다.

탁월한 산악인이었던 그는 수직으로 솟구친 바위벽에 매달려 상대를 정찰하고, 험한 바위 봉우리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바위틈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길을 비아 페라타(Via Ferrata)라고 부른다.

하얀 전쟁

바위에 동굴을 파기도 하고 바위벽의 바깥을 걸어서 대규모 병력이 쏟아같이 이동하는 군사적 목적인 이 길에는 대개 쇠로 만든 손잡이나 밧 받침대 혹은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봉우리와 봉우리를 이어주는 출렁다리 그리고 또 쇠로 된 로프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제프는 1915년 자신이 설립한 로카텔리 산장 앞에 버티고 선 몬테 파테르노(Monte Paterno, 2746미터)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때부터 오스트리아는 무모한 산악전투를 포기하고 만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고도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겨울이면 닥치는 추위와 눈은 물론 고도가 높을수록 만년설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돌로미티 산군은 바위까지도 하얗게 보여서 당시의 전쟁을 ‘하얀 전쟁(White Wa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찌 그러한 격전이 로카텔리 산장에서 바라 보이는 트레치메(Tre Cime)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뿐이었을까. 돌로미티 산군 전역은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곳곳에 그 흔적을 남겼다. 비교적 남쪽에 오스트리아와 최전선을 형성했던 트렌토(Trento) 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작은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스무 곳이나 되며, 요새나 참호 그리고 전쟁과 관련한 유적지는 무려 백여 곳이 넘는다. 그곳에는 대부분 요새나 참호의 이름은 물론 그곳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비록 허물어져 볼품없지만 그곳에서 근무한 이들이나 그 자손들이 다녀가며 무너진 건물들의 벽에 새겨놓은 글귀는 모두 의미심장하다.

트렌토 북쪽 볼자노(Bolzano)나 코르티나 담페초(Cortina d’Ampezzo)와 같은 지역들은 전쟁 전 오스트리아 영토였다. 그곳의 돌산에도 무수히 많은 요새와

● 뱀뿔
몸에 비해 작은 머리를 가진 조류.

참호를 이어주는 교통로가 마치 중세의 성가퀴●처럼 남아 있기도 하다. 그들은 이러한 유적지들을 ‘위대한 전쟁(Grande Guerra)’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돌로미티 산군에서 이름난 봉우리에는 대개 참호나 요새 혹은 동굴이 있게 마련이다. 돌로미티를 대표하는 봉우리인 트레치메는 물론 그 곁의 몬테 파테르노, 또 우뚝 솟은 다섯 개의 봉우리가 돋보이는 친퀘토리(Cinque Torri, 2361미터), 라가추오이(Lagazuoi, 2835미터)는 물론 돌로미티 산군의 최고봉이라 일컫는 마르몰라다(Marmolada, 3360미터)에도 전쟁의 아픈 흔적이 난무한다.

자연 못지않은 아름다움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라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돌로미티 산군이지만 알고 보니 그 속살은 상처투성이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인위적으로 봉합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그들의 힘이지 싶다. 예닐곱 군데 현장에서 마주치는 유적들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월을 머금고 있었다.

그 장면 앞에서 만감이 교차한 것은 길게는 100년이 가깝도록 허물어져 가는 풍경이 자아내는 애뜻함 때문이었을까. 여하튼 그것들을 더 이상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이들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들은 이미 덕지덕지 쌓이는 세월의 흔적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는 있지만 다시 세월을 쌓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용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카텔리 산장만 하더라도 그렇다. 오스트리아인 제프 이너코플러가 세운 것이지만 이탈리아 영토가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집안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 맞서 싸운 그의 흉상을 산장 앞에 세울 수 있는 것 또한 ‘용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뿐이 아니다. 언어 또한 마찬가지다. 돌로미티 지역에는 이탈리아어와 독일어가 뒤섞여 있다. 지명 또한 두 가지 언어로 표시되어 있어 처음 가는 사람은 도로표지판을 보기가 난감하다. 오스트리아 영토

를 이탈리아가 차지하였으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용납인 것이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돌로미티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싶다. 그것은 시기하고 질시하여 반목이 횡행하던 폐허에서 찾아낸, 자연 못지않은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었다.

그 아름다움을 가능케 한 것이 사람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자연 풍경 앞에서 만난 인간들이 저지른 참혹한 풍경이 자연의 아름다움 못지않은 까닭은 세월의 더께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가 뒤섞여 ‘그 누구라도 이곳을 지나갈 수 있다’가 된 지금의 그곳은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다.🌐

전쟁 유적지 정보

www.trentinograndeguerra.it에 가면 1차 세계대전 유적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트렌토 지역의 정보는 www.visittrentino.it/en에서 찾으면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모두 ‘Trentino Grande Guerra’를 깔면 된다.

● 성가퀴
성벽 위에 설치한 높이가 낮은 담.

이탈리아 북동부 발 가르데나
(Val Gardena) 지역에는
나무로 만든 갖가지 조각들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한때는 성당에
들어가던 성물(聖物)을
조각하던 이들이 만들어낸
조각품이다.
여전히 성물이 많긴 하지만
몇몇 장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성물을 조각하는 장인에서
벗어나 아예 조각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들의 시도는 신선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를 이어 나무를 깎는 사람들



궁핍한 망치질이 만들어내던 성물

햇볕은 잔인하리만치 뜨거웠다. 나무 그늘은 커녕 한
땀방울의 구름 그늘조차 없는 땡볕을 서성이며 작업
장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다 문득 작업
장 안을 기웃거리자 유리창 너머 계단에 한 소년이
앉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자신도 누
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말이다. 말이 없을 뿐 아니라
미동도 않는 그 소년은 1995년생이고, 그를 만든 이
는 조각가인 빌리 베르기너(Willy Verginer, 58)였다.

그는 발 가르데나(Val Gardena) 지역의 오르티세
이(Ortisei)에서 나무를 주재료로 조각을 한다. 발 가
르데나 지역은 17세기경부터 나무 조각이 성행하
여 18세기에 이르러 베니스에서 공부를 하고 온 비
나처(Vinazer) 일가가 성당의 성물들을 제작하면서
나무 조각의 중심지가 되었다. 비나처 일가가 활동
을 시작한 때는 깊은 산골인 탓에 봄·여름·가을에
는 농사와 목축을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
는 마땅한 경제 활동이 없어 모두 가난하던 시절이
었다. 비나처 일가는 발 가르데나 지역의 성당에 성
물을 조각하기 시작하여 차츰 인근의 베네토(Veneto)
지역은 물론 전 유럽의 성당에 들어가는 성물을 제
작하게 되었다.

발 가르데나 지역이 돌산이라고는 하지만 산이
깊어 나무는 지천이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겨울
이면 연장을 들고 나무를 깎기 시작하면서 나무 조
각이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된 것이다. 그러나
300여 년을 이어져 오던 상황은 달라졌다. 돌로미티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겨울이면 스키, 봄·
여름·가을이면 트레킹과 산악자전거 그리고 모터사
이클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탈것의 천국으로 변하
자 하나 돌썩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망치와 끌을 내려
놓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예전처럼 성당에서 필요로 하는 성물들
의 수요가 줄어들기도 했고, 너무도 많은 주민들이
성물 제작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때
문이었을까. 산골로 스포츠를 즐기러 찾아오는 사람
들을 맞으려고 내려놓은 연장을 다시 드는 사람들은
없었다. 대개의 젊은 사람은 레저 스포츠 쪽으로 눈
을 돌렸으며, 나이 든 사람들만이 명맥을 유지했다.



아버지인 빌리 베르기너가 1995년에 만든 소년이다.



쌍둥이 중 형인 크리스티안 베르기너의 아들을 모델로 조각한 작품.

그리고 줄어든 성물은 그 수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한 집 건너 둔탁한 망치 소리가 요란하던 골짜기는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활기가 필요했다.

계단에 앉아 있던 소년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그 즈음이었다. 마을의 장인들은 더 이상 성물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며, 성물을 만들 당시 주로 만든 인물상을 조각하던 솜씨를 버리지 않았다. 더구나 이미 형상화되어 있던 종교미술의 인물상들을 만들며 경직되었던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인기 나무 조각가인 브루노 발포스(Bruno Walpoth)도 마찬가지다. 빌리 베르기너와 친구 사이인 그의 조각뿐 아니라 많은 조각가들이 대개 사람을 주제로 삼고 있는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이다. 빌리 베르기너 또한 한때는 성물을 조각했으며, 그때 사람을 조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배웠다고 말한다. 실제 빌리 베르기너의 작업장 안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 중 완성·미완성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주제로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쌍둥이 아들인 크리스티안 베르기너(Christian Verginer, 33)와 마티아스 베르기너(Matthias Verginer, 33)도 아버지 뒤를 이어 조각가의 꿈을 펼치고 있으며, 그들의 작품들 또한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외였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 조각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다. 물론니 아마도 베르기너 형제들이 발 가르테나 지역의 가장 젊은 조각가일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무 조각을 전공했다. 지금은 그 예술고등학교가 5년제여서 우리로 따지면 전문대학 과정까지 마치는 셈이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마티아스 베르기너는 카라라(Carrara)의 ‘Accademia belle Arti’에서 1년 더 조각을 공부한 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공방에서 일을 시작했다.

다른 많은 친구들은 모두 레저나 투어리즘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럽지 않느냐고 물으니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 저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재능이 필요한 일이며, 더구나 긴 시간을 견디며 인내한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한 눈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인 빌리 베르기너다. 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열일곱 살에 예술 학교에 진학하여 목조각 수업을 받았다. 처음에는 성물만 조각하였으나 앞의 소년상을 제작하던 1995년경부터 서서히 성물은 줄이고 자신의 작품에 몰두했다고 한다. 지금은 목조각 마을인 발 가르테나 지역에서 손꼽히는 작가로 활동하며 유럽 각 나라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



맨 앞이 쌍둥이 중 15분 동생인 마티아스 베르기너, 그다음이 형인 크리스티안 베르기너, 맨 뒤가 아버지 빌리 베르기너다. 그들은 이처럼 작업장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지하에서 나무를 기초 가공하고, 2층에서는 디자인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또 작업장에서 100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그들이 사용하는 큰 나무들을 쌓아놓은 창고가 있었다.



작은 아버지인 마티아스의 품에 안긴 귀여운 꼬마는 크리스티안의 아들인 엘리아 베르기너다. 엘리아는 우리들을 보자마자 지하에서 나무토막을 가지고 와서 눈길을 끌더니 급기야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관심을 보였다. 아버지인 크리스티안에게 엘리아가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하겠다면 어떡하겠냐고 물었더니 세 사람 모두 “대환영”이라고 했다.



장인에서 작가가 된 빌리 베르기너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했다.

더구나 여태 자신들이 이 일에 쏟은 열정이 아까워
서라도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주위에 같은 일을 하
는 친구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다고 했다.

희망에 찬 끝질이 빚어내는 예술

그들은 아버지가 먼저 터를 잡은 공방에서 같이 작
업을 한다. 발 가르테나 지역에서 이렇듯 대를 이어
작업을 하는 경우는 이들이 유일하다. 작업이 성물
제작에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상(構
想)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맞닥뜨린 문제는 없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명쾌했다.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만
족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다. 성물을 만들 때는 주문
이 들어온 그대로 만들어주는 일의 반복이었지만 지
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실상 자신들이 성물을 많이 만들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어느 성당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들과 성당 사이에 중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 지금도 매니지
먼트를 대행하는 갤러리아가 있긴 하지만 자신들의
이름으로堂堂하게 전시가 이뤄지고 작품이 판매되
기 때문이다. 또 당시에는 장인(Master Craftsman, Master
Artisan)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작가(Artist)로 불리는
것도 그 변화 중 하나다. 비록 이 일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그것
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
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가 요
구되는 시기와 마주했을 당시 두려움도 적지 않았
을 것이다. 그러나 베르기너 삼부자는 슬기롭게 이
겨낸 여유가 보였다. 예전에 비하여 무엇보다 즐거
운 것 중 하나는 앞에 말한 자신들의 이름으로 당
당히 나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럽 곳곳에서
전시 that 이뤄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공방에서 작업
만 했지만 지금은 전시가 이뤄지는 곳으로 다녀오
는 등 아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두어 시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즐거움에 젖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았다. 산골 마을의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망치질이 무르익어 이제는 스스로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끌질로 승화시킨 것이나 다르지 않다. 더불어 쌍둥이 형제는 스스로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크리스티안에게 막 다섯 살이 된 그의 맏아들 엘리아 베르기너(Elia Verginer)가 이 일을 이어서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벤베누토(benvenuto)”를 외치며, 환영하지만 긴 여정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작업실을 살살이 구경하고 문을 나서자 햇볕은 여전했다. 아직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발 가르테나 지역 조각가들의 작품에서 흔히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이 특색일 수도 있을 테지만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며 단순하다. 또 그것을 피하려고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자칫 난해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을 보면 아직 그들의 작품이 무르익은 단계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한여름 땀별과도 같은 무지막지함을 잘 견뎌 지금껏 견뎌온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

—
아래 홈페이지에서 이들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빌리 베르기너
www.verginer.com/eng/index.php

마티아스 베르기너
www.verignermatt.com

크리스티안 베르기너
www.verginer.org

브루노 발포스
www.walpoth.com

“욕심쟁이는 나무와 친해지지 못한다”

글. 한선현(조각가), 사진. 유동영



조각가 한선현은 드물게 이탈리아에서 목조각을 배우고 돌아왔다. 그도 처음에는 대리석을 배우러 갔지만 나무의 매력에 빠져 전공을 바꾼 것이다. 나무가 주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을 테지만 그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여태 기억하는 말은 “욕심쟁이는 나무와 친해지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에게 나무 조각을 사사한 스승인 클라우디오 키아피니가 했다는 그 말은 지금도 그의 귓전에 맴돈다고 한다.

당진군 읍내리 극장 뒤편의 당진한복집 아들로 자란 나는 극장 앞을 오가며 마주치는 영화 간판을 그리는 아저씨를 본 것이 처음 그림을 접한 것이었다. 그 뒤 스물셋이던 1993년 첫 번째 개인전을 마치고 이탈리아 카라라(Carrara)로 유학을 결심했다. 흰 대리석 산지이며, 미켈란젤로·헨리 무어·미토라이·페르난도 보테로 등 조각의 대가들이 작업했다는 ‘조각 도시’ 피에트라산타(Pietrasanta)로 갔다. 길거리나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조각가라는 곳이다. 이탈리아의 스파게티·샐시체·치즈·붉은 포도주 모두가 좋았다. 뜨거운 태양과 포도, 올리브 동산은 아름다웠고, 매주 토요일이면 축구에 빠져 살던 나에게 어느 날 스승이 나타났다. 클라우디오 키아피니(Claudio Chiappini)는 대리석을 조각하는 것이 아닌 나무를 다루는 장인이었다. 그는 카스텔 누오보 마그라(Castel Nuovo Magra)라는 자그마한 산동네에서 아름다운 부인 비안카, 아카데미에서 회화를 전공한 아들인 코라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넓은 목공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올리브·매실·무화과 등 많은 유실수와 예쁜 꽃들이 가득한 집, 그리고 나무 유리창으로 따사로운 햇볕이 비쳐드는 작은 공방에서 나를 반겨주곤 했다. 당시 낯선 한국청년이 그에게 나무 조각을 배운다는 것이 화제가 되어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키아피니는 여러 제자를 길러 독립시켜주었다. 나에게도 먼저 자신에게 기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너의 조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곤 했다. 그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 로마 바티칸 성당과 밀라노 두오모 성당의 문을 보수, 복원하는 일과 제작에도 참여할 만큼 목공과 조각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었다. 복원전문가나 교수들도 훼손되고 썩어서 부러진 예수상 등을 그에게 상담하고 제작을 의뢰했다. 이탈리아 아카데미에는 복원(Restauro)학과가 필수로 있으며, 이탈리아는 1년 365일이 복원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1년에 한 번 광장(Piazza)에서 전시를 했는데, 여러 분야 장인들의 소박하고 질박한 느낌의 놀라운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말하곤 했다. “욕심쟁이는 나무와 친해지지 못한다! 꾸준한 정성과 준비, 노력과 성실만이 나무를 볼 수 있다”고 말이다. 이탈리아에서 5년간의 유학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그는 “훗날 내 무덤에 꽃이나 갖다 달라”며 배웅의 말을 대신했다.

La mia casa, Dolomiti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는 다양함이 돋보이는 곳이다. 겨울이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이는가 하면 봄이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지고, 울퉁불퉁한 바위산들이 위압적이라면 초원지대는 너무도 평화롭기 때문이다. 또 아름답기 그지없는 산속에는 전쟁의 아픈 상흔들이 남아 있고, 승전국이나 패전국 가릴 것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얼핏 낯설기도 하다. 자연환경으로 이미 아름다운 돌로미티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빚어내는 문화가 산에 배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 작은 봉우리 다섯이 모인 것은 친퀘토리(Cinque Torri, 2361미터)다. 왼쪽 뒤는 토파나 디로제스(Tofana De Rozes, 3225미터)이며 오른쪽 아래 마을이 코르티나 담페초(Cortina d'Ampezzo)다.





해거름의 친퀘토리(Cinque Torri, 2361미터), 리프트로 쉽게 오를 수 있으며, 산장에서 묵을 수도 있다.



왼쪽의 높은 봉우리는 몬테 파테르노(Monte Paterno, 2744미터)이며, 오른쪽 봉우리 세 개가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Tre Cime Di Lavaredo)이다. 세 봉우리 중 가장 왼쪽은 치마 피콜로(Cima Piccolo, 2857미터), 가운데가 치마 그란데(Cima Grande, 2999미터) 그리고 오른쪽이 치마 오베스트(Cima Ovest, 2973미터)이다.



오른쪽이 라가추오이(Lagazuoi, 2752미터), 왼쪽은 사스 데 스트리아(Sas de Stria, 2477미터) 봉이며, 왼쪽 아래 집은 팔자레고 패스(Falzalego pass, 2105미터)의 산장이다.



발 파롤라 패스(Valparola Pass, 2168미터)는 경사가 완만하여 트레커뿐 아니라 산악자전거도 많이 지나다니는 아름다운 꽃길이다.

세 가지 언어로 뉴스를 방송하는 곳

뽁뽁한 침엽수림과 통나무집,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젖소나 양 그리고 염소와 말, 아름다운 산과 초원을 수놓은 고운 야생화와 투명한 에메랄드빛 호수들, 일출과 일몰에는 거대한 바위 봉우리들이 찬란하도록 붉게 물들고, 수십 종의 귀여운 동물들이 마을 가까이에 사는 곳.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2000킬로미터의 스키 슬로프를 가지고 있으며, 멀티 익스트림 스포츠와 암벽등반 그리고 트레킹의 천국인 곳. 계절과 상관없이 인적이 드문 민가에는 사슴이 내려 오기도 하고, 약 2억5000만 년 전 따뜻하고 얕은 바다로 덮여 있었지만 바다 바닥에 퇴적물이 수백 미터 쌓이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물이 점차 빠져나가 2억 년 전 거대한 암군이 만들어졌다는 곳. 넓은 카펫처럼 끝없는 초록색 초원과 검푸른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르고, 그 뒤로 솟아 있는 1000~3000미터의 거대한 바위벽들이 5500제곱킬로미터의 광대

한 면적에 끝없이 펼쳐져 있고, 계곡 틈에는 투명하다 못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호수들이 176개나 있다. 대략 돌로미티는 이런 곳이다. 자동차로 다녀도 며칠씩이나 걸리며, 지리적으로 티롤 알프스(Tyrol Alps)라고 부르는 곳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인스부르크 그리고 이탈리아의 알토 아디제(Alto Adige) 주의 주도인 볼자노(Bolzano)까지다. 유럽의 알프스는 모두 여섯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티롤 알프스는 가장 동쪽에 있으며,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선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암군이 돌로미티이다.

본디 돌로미티 지역은 오스트리아 영토였지만 1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이탈리아로 넘어온 보석과도 같은 곳이다. 1972년부터 완전한 자치권이 주어져 돌로미티를 중심으로 볼자노 거리의 표지판은 모두 독일어와 이탈리아어 두 개의 언어로 표시되어 있고, 알토 아디제 지역은 독일의 장점과 이탈리아의 장점이 공존하는 유일한 도시이다.



기아우 패스(Gia Pass, 2236미터), 도로 왼쪽으로 가면 콜레 산타 루시아(Colle Santa Lucia)이며 오른쪽으로 하하면 코르티나 담페초로 간다. 뒤에 보이는 봉우리는 아베라우(Averau, 2649미터)이다.

특히 그 지역은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부유하고 깨끗한 도시 중 하나이다. 돌로미티 산군의 주민 약 75퍼센트 이상이 독일어를, 20퍼센트 정도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며, 나머지는 그들만의 전통 언어인 라딘(Ladin)어라는 방언을 사용한다. 저녁 정규 텔레비전 뉴스는 같은 뉴스를 독일어·이탈리아어 그리고 라딘어로 제각각 3회에 걸쳐서 방송해야 하는 독특한 지역이기도 하다. 여태 티롤왕국 시절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국경일과 그들만의 공휴일을 모두 쉬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암벽등반에 있어서도 돌로미티 지역은 유서가 깊다. 수직으로 치솟은 직벽과 천장(Overhang)을 오르기 위해 하켄(Haken)●을 박고 인공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는 인공 등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등반기술을 배경으로 하여 수많은 알피니스트들이 탄생했는데, 인류 최초로 히

말라야 8000미터 14좌를 등반한 라인홀트 메스너(Reinhold Messner, 1944~)도 이곳 출신이다. 그 또한 돌로미티에서 암벽등반을 하며 히말라야 등반을 꿈꾸었다. 그는 지금 볼자노에 살고 있으며, 산악박물관을 운영한다. 박물관은 모두 여섯 곳으로 서로 다른 주제로 꾸며졌으며, 지난 7월 23일에는 볼자노의 크론플라츠(Kronplatz, 2275미터) 정상에 여섯 번째 박물관인 MMM(Messner Mountain Museum)의 개관식을 치렀다. 돌로미티 지역에 오로지 등산이나 스키 혹은 익스트림 스포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다른 어느 곳보다 박물관이 많기로 손꼽을 만한데, 산악박물관뿐 아니라 지방 특성에 맞는 민속박물관·자연박물관·철의박물관·수정박물관 그리고 와인박물관과 같은 다양한 박물관 수백 개가 있다. 이들 박물관 중 가장 돋보이는 것 하나는 볼자노 시내 중앙에 있는 아이스맨 박물관(South Tyrol Museum of Archaeology Ötzi)이다.

●
하켄
바위의 틈에 고정시키는
나무나 쇠로 만든 켜기.



기아우 패스 언덕에서 바라본 크로다 다 라고(Croda da Lago) 산군이며, 가운데 뾰족한 봉우리가 치마 담브리줄라(Cima d'Ambrizzola, 2715미터)이다.

인류의 생존에 관한 의류학·의료학 등 인류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5500년 전 냉동 미라 외치(Ötzi)를 발견한 산이 볼자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으며, 미라가 볼자노 시내 박물관에 있어서 휴가 시즌에는 이를 보기 위해 박물관 입구에 200~300미터 줄을 서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돌로미티에서는 세계 최초로 산악 영화제가 개최되기도 했다. 알토 아디제 주 북부인 트렌토에서 매년 열리는 산악영화제(Film Festival Trento)는 63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2주 동안 열리며, 산을 주제로 한 약 400편의 영화가 출품되는 대형 영화제다. 이 밖에도 돌로미티에는 산상연주회·산상연극·산상조각 전시회는 물론 아름다운 등산로를 끼고 만들어진 수백 개의 로즈마리노 십자가의 길 등과 같이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한다.

스포츠 산악문화로는 돌로미티 전역에서 열리는 각종 익스트림 대회를 빠뜨릴 수 없다. 돌로미티 지역은 사이클을 타고 이탈리아 전국의 험한 길을 달리는 ‘지로 이탈리아(Giro d’Italia)’ 경기 중 가장 난코스 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산악마라톤, 산악스키대회와 스키와 빙벽등반 월드컵대회가 열리며, 래프팅·카약·캐녀닝(Canyoning)·패러글라이딩·프리라이딩(Freeriding) 등 각종 익스트림 대회가 거의 매주 열려 세계적인 멀티 익스트림 스포츠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

알피니즘이 프랑스 몽블랑 산군 아랫마을인 샤모니에서 태어났다면,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스포츠 클라이밍은 남부 돌로미티의 작은 마을인 아르코(Arco)에서 시작됐다. 세계 최초로 암벽등반대회가 열려서 지금은 여러 곳에서 암벽등반 월드컵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머지않아 올림픽 종목에도 들어갈 전망이다. 아르코는 매년 9월 첫 주에 한 해의 월드컵대회 우승자들을 초청해서 왕중왕 전인 아르코 록 마스터대회(Arco Rock Master)를 개최하는데, 유료 관람객만 수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돌로미티를 제대로 알려면 이런 문화의 가장 중심인 오래된 티롤 알프스의 전통문화를 맛보아야 한다. 거의 매주 전 지역에서 열리는 민속 행사

는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하는 명물이다. 전통 민속의 상 거리 패션쇼부터 아주 작은 마을마다 벌어지는 마을 밴드 연주회를 비롯하여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이들만의 축제를 엿서와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아무리 작은 축제라고 해도 자연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주제이기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온다.

사실 축제는 가난하던 시절의 상징이기도 하다. 수천 년 전, 가난에 찌든 고산 목동의 삶에는 하이드가 살고 있었고, 고산 거벽(巨壁)을 오르며 먹고 살기 위해 수정을 깨고 사냥을 하던 사람들에게서 알피니즘이 꽃피지 않았던가. 이처럼 힘겨운 삶을 스스로 격려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축제가 생겨났고,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그 작은 축제들이 돌로미티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상품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아웃도어 산업과 스키산업

돌로미티는 스포츠 신발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몬테벨루나(Montebelluna)라는 작은 산골 마을은 나무 신발을 신던 시대에 처음으로 가죽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 곳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산화를 만들기 시작하여 스케이트화·스키화·롤러블레이드화 그리고 축구화를 만든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많은 브랜드의 스키화는 물론 전 세계 등산화의 많은 양을 생산한다. 이름만 말해도 알 수 있는 축구화 브랜드 또 세계적인 종합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돌로미티에서 탄생했으며, 세계 스포츠와 아웃도어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1973년 돌로미티의 스키장들은 하나의 공동체인 연맹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고, 1974년 돌로미티 지역 열두 개의 계곡에 위치한 스키장과 행정 도시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돌로미티 슈퍼스키’를 탄생시켰다. 각 마을과 스키장과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지구상 최대 규모로 약 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슬로프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단일 스키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돌로미티에서는 스키리프트권 한 장만 있으면 그 어느 스키장에서라도 스키를 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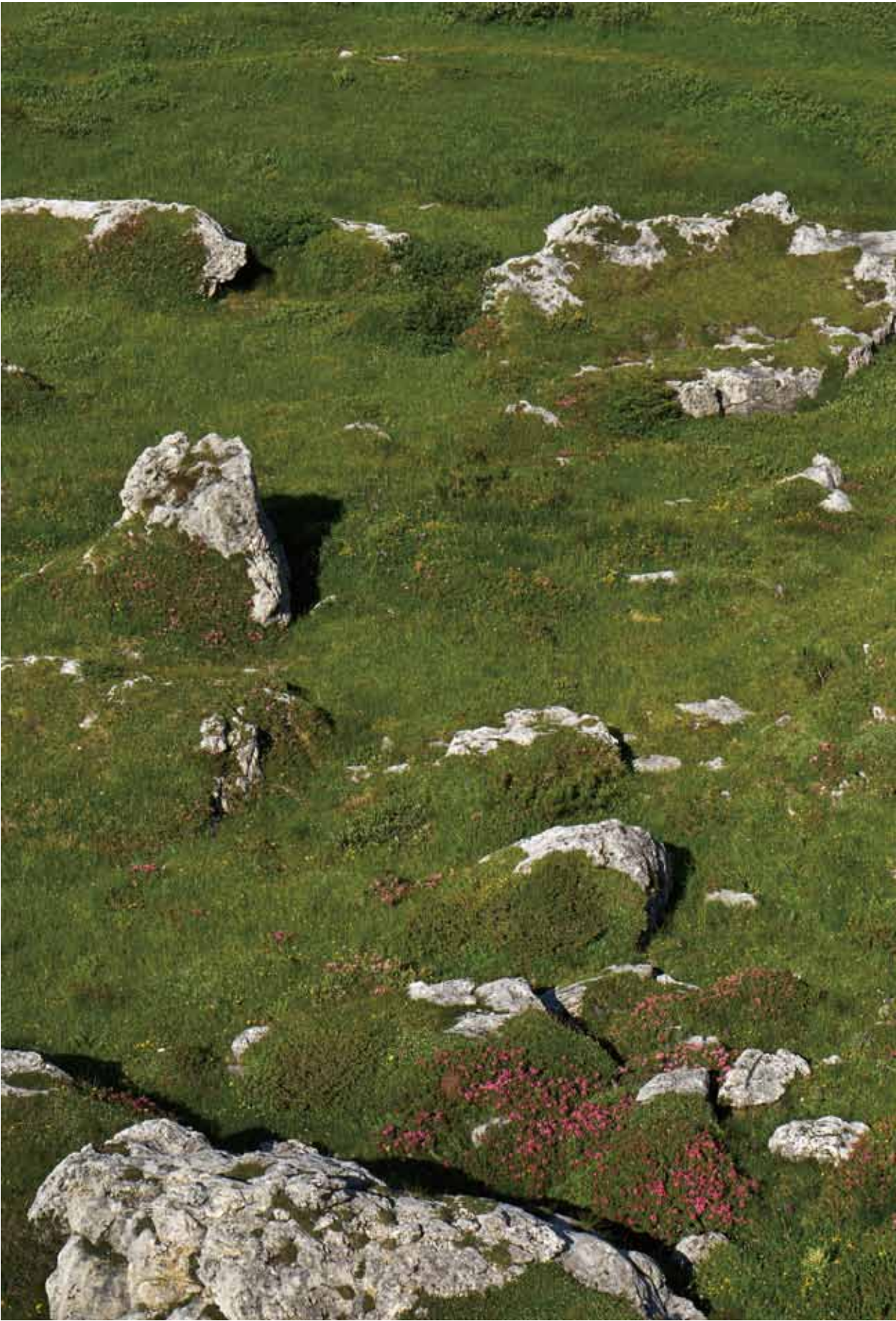
고산스키장은 매년 11월 1일 개장하여 이듬해 5월 첫 주말에 문을 닫기 때문에 6개월간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시즌권으로 열다섯 개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탈 수 있다.

돌로미티는 전문산악인만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트레킹과 하이킹으로 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암벽에도 오를 수 있다. 그중 가족이 같이 암벽등반의 고도감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비아 페라타(Via Ferrata)’는 쇠로 만든 길을 일컫는다. 일고여덟 살 어린이들조차도 육십이 넘은 할아버지와 같이 등반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비아 페라타는 주요 군사 거점 확보를 위해 더욱 발전했으며, 급기야 돌로미티에 만들어진 ‘철의 알파인 전선(Catena Alpina)’은 380킬로미터나 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산악전투장으로 변했다.

바위의 외벽만이 아닌 벽 안에 지나간 전투용 터널을 뚫어 치열한 전투를 했고, 그 길들은 전쟁이 끝난 후 등반 루트가 되었다. 암벽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오를 수 있도록 인공 구조물인 쇠말뚝을 박고 그것들을 와이어로 연결하여 고정했다. 또 난이도에 따라 철제 계단이나 사다리, 또는 암벽을 깎아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쇠로 만든 다리나 와이어로 간단히 만들어 흔들거리는 티베트 다리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아 페라타는 제각각 다섯 개의 난이도로 등급을 구분해놓아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 즐겁게 등반을 하고 큰 암벽을 오르며 느낄 수 있는 고도감과 벽과 벽 사이의 미로를 오르며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알파인 관광(Turismo Alpino) 등반’이란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돌로미티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암벽등반이나 산행 혹은 트레킹과 하이킹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에 젖어보는 것도 좋겠다. 아름다운 산은 전 세계에 많이 있으나 이처럼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곳은 돌로미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

쇠로 만들 길, 비아 페라타



이러한 꽃길을 걸을 수 있음은 돌로미티 트레킹이나 하이킹의 큰 즐거움이다.



몬테 파테르노 봉에서 비아 페라타를 등반 중인 사람들이 점과 같다. 오른쪽 끝에 사각형 구멍이 뚫린 곳은 감시초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트레치메에서 로카텔리(Locatelli) 산장으로 향하는 101번 길에서 바라본 105번 길이다. 오른쪽 뒤 산은 사쾡 디 세스토(Sasso di Sesto, 2539미터)이다.



아베라우 산장(Rif, Averau)에서 내려다본 기아우 패스.



프라토 피아자 산장(Rif. Prato Piazza, 2000미터) 앞의 초원지대이다. 젖소들이 풀을 뜯는 모습 위로 보이는 것이 발란드로 산장(Rif. Valangero, 2040미터)이며, 그 오른쪽은 크놀코프트(Knollkopf, 2179미터)이다.



오론조 산장(Rif. Auronzo)에서 101번 길로 트레치메 봉우리 앞까지는 40여 분이 걸린다. 왼쪽 위 까마득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곳이 101번 길이며, 이곳을 지나면 로카텔리 산장이다. 오론조에서 로카텔리 산장까지는 두 시간 남짓이다. 101번 길은 트레치메의 가장 왼쪽 곁으로 걷는 길이며 105번 길은 가장 오른쪽으로 에돌아 걷는 길이다. 105번 길은 101번 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보이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로카텔리 산장에서 101번 길을 따라서 오론조 산장으로 돌아오면서 본 105번 길이다. 길이 실처럼 아스라하다. 자칫 돌로미티 트레킹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목적지가 너무도 빨리 보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걸어보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산이나 나무들이 시야를 가로막지만 돌로미티는 대부분 나무가 없어 땀별을 걸어야 하는 것도 고역이다.



트렌티노(Trentino)에 있는 개인 소유의 성인 피에트라 성(Castel Pietra)이다. 이처럼 중세의 성을 사들여서 개인들이 머물거나 레스토랑을 경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안드라즈 성처럼 복원을 하여 옛 모습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바뀐 곳도 많으며, 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박물관들도 있는데 볼자노 인근에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Reinhold Messner)가 지은 산악박물관이 그것이다.



로카텔리 산장이다. 이 산장은 1903년, 제프 이너코플러(Sepp Innerkofler, 1865~1915)가 산악인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그 자신이 전문 가이드였던 그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조국인 오스트리아의 산악부대로 활약하다가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몬테 파테르노 봉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지금도 산장은 그의 후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그가 사용하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다.



주변 산으로 리프트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코르바라(Corvara)를 지나자 가르테나 패스(Gardena Pass, 2136미터)로 오르는 길이 나타났다. 코르티나 담페초 지역에 있다가 발 가르테나 지역으로 들어서면 한눈에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발 가르테나 지역은 큰 바위산 아래에 초원이 많이 펼쳐져 있는 반면, 코르티나 담페초 지역은 울퉁불퉁한 바위로 된 산군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돌로미티는 트레킹의 천국이기도 하지만 탈것들의 천국이기도 하다. 모터바이크·산악자전거·패러글라이딩 또 겨울이면 스노보드나 스키와 같은 다양한 레저스포츠가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니 산장이 있는 곳이면 대개 탈것들이 드나든다. 비록 자동차가 아닐지라도 말이다. 사진에 보이는 길로는 우리나라 경운기와 같은 것이나 사륜구동 모터바이크 같은 것들이 다닌다.



모든 산이 그렇듯이 돌로미티에서 높이로는 열 번째 안에 드는 사쵸 롱고(Sassolungo, 31871미터) 또한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 이 사진은 오르티세이(Ortisei)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산길을 올라 어느 가정집 마당에 놓인 나무의자에 앉아서 본 것이다. 해거름에 천변만화하는 봉우리는 눈을 즐겁게 했고, 마당 넓은 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들을 신기해했다.



돌로미티의 동쪽에 코르티나 담페초가 있다면 돌로미티의 서쪽에는 발 가르테나가 있다. 발 가르테나 지역은 오르티세이(Ortisei)·산타 크리스티나(Santa Cristina) 그리고 셀바 디 발 가르테나(Selva di Val Gardena)와 같은 세 개의 마을이 있다. 사진 아래 보이는 마을은 오르티세이이며, 발 가르테나 지역의 시내버스 뒤편에는 큰 트레일러가 달려 있다. 그곳에 산악자전거를 싣고 고갯마루까지 가는 것이다.



안드라즈 성(Castello di Andraz)이다. 1100년대부터 자연 암석 위에 축성했다고 전하며, 지금은 박물관으로 복원되었다.



성의 상층부에 있는 성주의 화장실이다. 아래 둥근 부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불일을 보면 성 밖으로 용변이 떨어진다.



발파놀라 패스의 꽃길, 7월이면 돌로미티 전역에는 갓은 들꽃이 만발한다. 가운데 봉우리는 아메라우 봉이다.



LS Networks

0438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www.lsnetworks.com

